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9 2기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

2009년 2기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

2009년 1월 31일 - 2009년 2월 22일 (매주 토, 일/4주간/총 32시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NGO 열린마당

주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주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

CONTENTS

CONTENTS

page 3 Ⅱ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개

page 4 Ⅱ 일정표

page 5 Ⅱ <1강> 드러내기와 자기점검: 호모포비아 깨기

page 7 Ⅱ <2강> 레즈비언 바로 알기

page 27 Ⅱ <3강> 여성주의 상담의 이해

page 35 Ⅱ <4강> 레즈비언 상담의 기초

page 52 Ⅱ <5강> 주제별 상담 1: 레즈비언 정체화 과정

page 77 Ⅱ <6강> 주제별 상담 2: 침대 레즈비언: '침대' 레즈비언/ 침대 '레즈비언'

page 90 Ⅱ <7강> 주제별 상담 3: 커밍아웃과 아웃팅

page 102 Ⅱ <8강> 주제별 상담 4: 지지집단의 형성: 가족 및 지인

page 118 Ⅱ <9강> 주제별 상담 5: 교제 및 가족 구성

page 130 Ⅱ <10강> 주제별 상담 6: 우울 다루기

page 133 Ⅱ <11강> 주제별 상담 7: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page 144 Ⅱ <12강> 주제별 상담 8: 레즈비언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

page 165 Ⅱ <13강> 주제별 상담 9: 레즈비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강의

page 184 Ⅱ <14강> 유형별 상담: 전화·메일·게시판 등 온라인 상담의 기법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사회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권리 운동을 추구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 억압의 토대인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11월 <끼리끼리>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여 레즈비언 인권운동은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최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형성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즈비언을 향한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나 편견, 왜곡이 팽배한 것입니다.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동성애자로 이중의 억압에 처해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문제, 독립의 문제, 교제의 문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레즈비언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의 레즈비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레즈비언의 고민을 모아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레즈비언 상담소로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및 이에 근간한 제도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간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내방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esbian Counselling Center in South Korea

대표전화 02) 703-3542

상담전화 02) 718-3542

팩스번호 02) 703-3543

대표메일 lsangdam@lsangdam.org

상담메일 lsangdam@hanmail.net

홈페이지 www.lsangdam.org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일정표

일시			강의	강사
1	1/31	15:00 - 16:45	드러내기와 자기점검 : 호모포비아 깨기	현박정원 (레고)
2	(토)	17:00 - 18:45	레즈비언 바로알기	박김수진 (박통)
3	2/1	13:00 - 14:45	여성주의 상담의 기초	이미혜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참)
4	(일)	15:00 - 16:45	레즈비언 상담의 기초	이정연 (원영)
5	2/7	12:00 - 13:45	주제별 상담 1 : 레즈비언 정체화 과정	김윤서이 (케이)
6	(토)	14:00 - 15:45	주제별 상담 2 : 십대 레즈비언	이정인 (아자)
7	2/8	13:00 - 14:45	주제별 상담 3 : 커밍아웃과 아웃팅	박김수진 (박통)
8	(일)	15:00 - 16:45	주제별 상담 4 : 지지집단의 형성-가족 및 지인	정은지 (라와디)
9	2/14	15:00 - 16:45	주제별 상담 5 : 교제 및 가족구성	정은지 (라와디)
10	(토)	17:00 - 18:45	주제별 상담 6 : 우울 다루기	루
11	2/15	13:00 - 14:45	주제별 상담 7 :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이문자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상담연구위원)
12	(일)	15:00 - 16:45	주제별 상담 8 : 레즈비언 성폭력 관련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면접상담 포함)	김윤서이 (케이)
13	2/21	15:00 - 16:45	주제별 상담 9 : 레즈비언 상담을 위한 법률 알기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4	(토)	17:00 - 18:45	유형별 상담 : 전화, 메일, 게시판 등 online 상담의 기법	이정연 (원영)
15	2/22	13:00 - 14:45	레즈비언 상담의 실제1: 성정체성+커밍아웃+아웃팅 상담+십대 레즈비언	상담팀 (야옹)
16	(일)	15:00 - 16:45	레즈비언 상담의 실제2: 성정체성+성폭력+성관계	상담팀 (소윤)
		16:45 - 17:30	수료 및 평가	

<1강> 드러내기와 자기점검: 호모포비아 깨기

현박정원 (레고)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강 ‘드러내기와 자기점검: 호모포비아 깨기’에서는 ‘동성애’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호모포비아에 대해 점검하려 한다. 이는 16강을 여는 프로그램이지만, 교육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세라 할 수 있다. 상담은 단순히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그치는 작업이 아니다. 내담자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과정일 것이다. 레즈비언 혹은 성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는 내담자와 소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상담원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이다.

1. 나를 드러내기

- * 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딱 그만큼!)
- * 다음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쪽지에 써 모아보자
내가 레즈비언 상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나는 왜 지금 이 강의를 듣고있나?)
- * 다음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나에게 동성애는 000이(었)다. / 나의 주변인들에게 동성애는 000이(었)다.

2. 드러내기와 자기점검: 호모포비아 깨기

- * 호모포비아가 담긴 영상물 함께 보기
- * 호모포비아가 담긴 신문 헤드라인 함께 보기
- * 역질문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이성애라는 것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까?
당신의 이성애는 동성애에 대한 신경증적 두려움에서 생긴 것이 아닐까요?
동성과 육체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성애자(동성애자)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이성애자라고 밝히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왜 이성애자들은 항상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유혹해서 이성애자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이성애자라고 굳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닙니까?
이성애자가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 질문들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흔히 묻는 질문들을 재 구성한 것입니다.

상담원이 내담자와 관계 맺기 할 때 어쩔 수 없이 호모포비아가 개입된다. 성소수자이건, 성소수자가 아니건, 이성애만을 정상이라 하는 현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정도의 차이로 모두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있다.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성애중심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것만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호모포비아를 체득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 표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담원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수성(호모포비아)에 대해 성찰 할 필요가 있음. 내담자의 이야기가 대부분 정체성에 기반 한 고민들인 상황에서 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면 이는 결코 좋은 상담이 아니라 할 수 있다.

* 잘못된 상담의 예 (정체성 상담)

어떠한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감수성 키우기'이다. 거창한 이름의 '상담' 이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이든 소통의 바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아닐까 한다. 내담자는 이 사회의 호모포비아 때문에, 내담자 자신의 호모포비아 때문에 어디에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상담원에게 어렵게 꺼내놓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담의 효과는 예상보다 더 내담자를 좌절하게 할 수도, 가장 기억할만한 좋은 날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와 소통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감수성. 즉, 상담원이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2강> 레즈비언 바로 알기

박김수진 (박통)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 용어의 이해

1) 동성애/동성애자(vs 동성연애/동성연애자)

동성애란, 동성의 사람에게 갖는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이끌림을 뜻한다.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이끌림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동성애자란, 동성의 사람과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을 나누고 있거나,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체화 한 사람을 의미한다.

동성연애란, 동성애를 비하하는 낱말로써 동성애자들이 항상 성 접촉을 전제로 한 연애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담겨있는 용어이다. 동성연애자란, 단순히 ‘동성의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용어가 아니다. 이 역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낱말로써 모든 동성애자들이 교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편견으로부터 파생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2) 레즈비언/게이(vs 호모)

레즈비언이란,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정서적, 정신적, 성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

게이는, 남성동성애자를 의미한다. Gay는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으로써 서구 동성애자 사이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한 용어인 ‘호모’를 대신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여/남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남성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호모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동성연애자’라고 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한 낱말이다.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 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이반

양성애자란, 동성인 사람/이성인 사람 모두에게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을 나누고 있거나,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정체화 한 사람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사람이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한 경우,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사람이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한 경우 이들을 트랜스 젠더라고 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체화한 이들은 Female To male 트랜스 젠더라고 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체화한 이들을 Male To Female 트랜스 젠더라고 한다. 연예인 하리수의 경우, Male To Female 트랜스 젠더이다.

퀴어(QUEER)는 이반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female to male, male to female 트랜스 젠더 등 모든 소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퀴어는 "이상한", "기묘한" 등의 뜻인데, 1980년 미국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를 긍정적으

로 수용/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반이란, 국내 게이 커뮤니티에서 생성된 용어로 ‘일반’ 혹은 ‘일반적인’이라는 용어를 조소하듯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너희는 일반적이나? 그럼 우리는 이반적이다’, ‘너희는 1반이냐? 그럼 우리는 2반이다’ 등 기존의 ‘일반적이다/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이분법에 도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반은 레즈비언과 게이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어 퀴어(Queer)와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게이를 포함한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등 다양한 소수자들을 아우르는 낱말로 사용되고 있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이들을 ‘여성이반’으로, 게이로 정체화한 이들을 ‘남성이반’이라 부르기도 한다.

4) 커밍아웃/아우팅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the closet)'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긍정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뜻한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긍정하는 그 순간을 커밍아웃의 1차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긍정한 동성애자는 가까운 지인과 가족 그리고 조직원 등에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데, 이를 커밍아웃이라고 한다.

아우팅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가 동성애자임을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외부에 알리는 과정과 행위를 아우팅이라고 한다.

5) 동성애혐오증(동성애공포증)

동성애혐오증이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해 갖는 공포증상·혐오증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핍된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게 갖는 막연한 공포와 혐오를 의미한다. 동성애혐오증은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사람들은 물론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에게도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 사회 역시 동성애혐오증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 내 안의, 네 안의, 우리 안의 호모포비아)

2. 동성애의 원인

- 1) 타고 태어난 것인가?
- 2) 선택의 문제인가?
- 3) 이성애의 원인은 무엇일까?

3. 동성애자 인구에 관한 통계

4. 통계로 본 국내 레즈비언 인권 실태 : 561인 한국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결과¹⁾

(1) 종교 분포 현황

1) 2004년 레즈비언권리연구소 레즈비언 인권 실태조사 결과.

① 561인 레즈비언 종교 분포 현황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빈도(명)	119	109	54	12
비율(%)	21.2	19.5	9.6	2.1

② 한국 국민 종교 분포 현황				
비율(%)	23.9	20.1	9.3	1.3

① 연구자의 조사 결과표

② 출처 : 『한국의 사회지표』 ; 1999, 통계청

종교 분포도는 기독교 21.2%(119명), 불교 19.4%(109명), 천주교 9.6%(54명), 기타 종교 2.1%(12명)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47.6%(267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99년에 3만 명을 표본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비율은 53.6%에 이른다. 서울 지역 조사의 경우, 기독교 23.9%, 불교 20.1%, 천주교 9.3%, 기타 1.3% 등의 종교 분포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자의 조사에서 역시 레즈비언들의 종교 분포도가 기독교 21.2%, 불교 19.4%, 천주교 9.6%, 기타 2.1%로 나타났는데, 1999년 통계청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종교·사회적 논의 및 사회·문화적 시각을 일정 정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한국 종교계에서 다루어지는 부정적인 동성애 담론은 동성애자의 인격과 인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기독교계의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혐오는 극에 달했다 할 수 있다. 다수의 기독 단체에서는 기독교 신자 중 있을 수 있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고, 부정의 차원을 넘어 동성애자를 ‘사회의 악’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 등의 낙인을 부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의 21.2%는 기독교 신자이며, 9.6%는 천주교 신자이다. 이는 그간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해서도 안 되는’ 동성애자의 존재가 기독교 사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성정체성 고민 시작 시기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무응답	계
빈도(명)	36	353	158	8	6	243
비율(%)	6.4	62.9	28.2	1.4	1.1	100.0

언제부터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조사 결과는 10대 62.9%(353명), 20대 28.2%(158명), 10세 미만 6.4%(36명), 30대 1.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69.3%(389명)가 10대 이하의 시기에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과 동성애의 상관관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정신의학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상담 기관에서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장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 혹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조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동성애자라 함은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인데, 조사 결과 69.3%라는 결과가 증명하듯 많은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에 관한 고민을 10대 이하의 시기에 시작한다.

조사 결과, 동성교제의 경우에도 50%가 넘는 레즈비언들이 10대 이하의 시기에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29.6%(166명)는 청소년 시기를 지난 20대 이후에 성적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의 원인설에 관한 부정적인 설명 중 상당수는 ‘동성애는 선천적’²⁾이라는 것인데, 연구대상자의 30%에 달하는 수가 20대·30대부터 성적체성을 고민했다고 응답하고 있음은 동성애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형태임과 동시에 성적체성이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 실시한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적인 한계 즉, 40대 이상의 레즈비언 인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을 상기할 때, 20대·30대 이후에 성적체성 고민을 시작한 레즈비언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레즈비언 정체성은 10대 이전·이후 시기, 교제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성된다.

(3) 최초 동성교제 시기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계
빈도(명)	6	301	208	13	1	529
비율(%)	1.1	56.9	39.3	2.5	0.2	100.0

동성과 교제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있다’ 95.0%(533명), ‘없다’ 4.3%(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동성교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동성교제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533명 중 529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10대’ 56.9%(301명), ‘20대’ 39.3%(208명), ‘30대’ 2.5%(13명), ‘10세 미만’ 1.1%(6명), ‘40대’ 0.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청소년들의 금기 사항 중의 하나인 양 여론화하여 결국 성장기에 자신의 성적체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즉, ‘동성애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현실 안의 레즈비언들은 성적체성 고민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함은 물론 동성애자라는 성적체성을 부정하기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같은 성의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기의 어떤 공간에도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고는 한다. 중국에는 신경정신과를 찾거나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은 조사들은 청소년 자살 동기의 50% 이상이 ‘동성애’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³⁾

2) 동성애 문제에 관한한 일관성을 잃은 논리들은 일반화되어 있다. 그 중 ‘동성애자는 선천적이다’라는 주장과 ‘청소년 동성애자는 없다’라는 주장이 양립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3)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공동주최 “대안적 성교육과 청소년 동성애 이해를 위한 교사 토론 세미나” 자료집, 연대미상

(4) 성정체성 부정 경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빈도(명)	282	275	4	561
비율(%)	50.3	49.0	0.7	100.0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 결과는 있다 50.3%(282명), 없다 49.0%(2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의 과반수인 50.3%가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5) 성정체성 부정 이유

	빈도(명)	비율(%)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93	19.3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69	14.3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143	29.6
동성애자로 살아 갈 자신이 없어서	112	23.2
종교적인 이유로	30	6.2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본 적 없다	14	2.9
기타	22	4.5
계	483	100.0

성정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 282명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조사 결과는 '가족·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29.6%(143명), '동성애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23.2%(112명),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19.3%(93명),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14.3%(69명), '종교적인 이유로' 6.2%(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정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 282명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 282명 중 276명이 응답하였다. 276명이 1인당 평균 1.6개 항목을 선택, 총 483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레즈비언의 과반수인 50.3%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고, 성정체성을 부정한 원인에 관한 결과는 '가족·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29.6%(143명), '동성애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23.2%(112명),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19.3%(93명),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14.3%(69명), '종교적인 이유로' 6.2%(30명) 등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의 상당수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상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가지도록 하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결과이다.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에 관한 두려움,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라는 잘못된 사회·문화적인 교육의 결과 동성애자 스스로 내면화한 동성애혐오증 그리고 보수 종교계에서 설파하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편견과 동성애혐오적인 이

테올로기 유포는 결국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찰하고, 긍정적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비롯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유포 및 확대는 결과에서 보여 지듯 레즈비언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레즈비언의 40%는 이성과의 교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성과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당위 하에서 그리고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성과의 교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뿌리내린 이성애중심주의와 동성애혐오를 기반으로 조작된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승리이다.

(6) 성정체성 고민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I

	혈연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교우 관계	이성 결혼	‘비정상’ 이라는 생각	기타	계
빈도 (명)	414	135	86	181	188	193	117	73	1387
비율 (%)	29.8	9.7	6.2	13.0	13.6	13.9	8.4	5.4	100.0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 중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61명 중 554명이 응답하였다. 554명이 1인당 평균 2.5개의 항목을 선택, 총 1,387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관한 결과는 ‘혈연 가족 관계’ 29.8%(414명), ‘이성 결혼’ 13.9%(193명), ‘교우 관계’ 13.6%(188명), ‘직장 생활’ 13.0%(181명), ‘친인척 관계’ 9.7%(135명), ‘비정상이라는 생각’ 8.4%(117명), ‘학교생활’ 6.2%(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7) 동성 교제 과정에서의 어려움

	빈도(명)	비율(%)
고백하기 어려운 것	103	10.7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	289	30.0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	280	29.0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었던 것	105	10.9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모임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	57	5.9
동성애와 관련한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점	60	6.2
본인 혹은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 때문에 관계 지속이 어려웠던 것	47	4.9
기타	23	2.4
계	964	100.0

동성 교제의 경험이 있는 533명 중 409명이 응답하였다. 409명이 1인당 평균 2.4개 항목을 선택, 총 964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동성과의 교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에

관한 응답 결과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 30.0%(289명),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 29.0%(280명),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 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었던 것’ 10.9%(105명), ‘고백하기 어려운 것’ 10.7%(103명), ‘동성애와 관련한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점’ 6.2%(60명),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모임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 5.9%(57명), ‘본인 혹은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 때문에 관계 지속이 어려웠던 것’ 4.9%(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이유

	빈도(명)	비율(%)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사회 인식	211	37.6
‘변태’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21	3.7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두려움	167	29.8
커밍아웃 이후에 발생할 학교에서의 징계·직장에서의 퇴직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125	22.3
무응답	11	2.0
기타	26	4.6
계	561	100.0

커밍아웃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사회 인식’ 37.6%(211명),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두려움’ 29.8%(167명), ‘커밍아웃 이후에 발생 할 학교에서의 징계·직장에서의 퇴직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22.3%(125명), ‘변태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3.7%(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성정체성 고민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II

	자해 욕구	자해 시도	자살 욕구	자살 시도	두려움·공포	비하 발언	따돌림·왕따	물리적 위협	기타	계
빈도(명)	64	74	120	50	256	349	48	55	99	1,115
비율(%)	5.7	6.6	10.8	4.5	23.0	31.3	4.3	4.9	8.9	100.0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 중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61명 중 518명이 응답하였다. 518명이 1인당 평균 2.2개의 항목을 선택, 총 1,115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관한 결과는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동성애 비하 발언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 31.3%(349명),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낀 경험이 있다’ 23.0%(256명),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10.8%(1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자해 시도 경험이 있다’ 6.6%(74명), ‘자해 욕구 경험이 있다’ 5.7%(64명), ‘가족

이나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4.9%(55명),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 4.5%(50명), '따돌림(왕따)을 당한 경험이 있다' 4.3%(48명) 등의 결과가 나왔다.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동성애 비하 발언을 접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낀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혐오하고, 자학의 욕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정서적 위협을 경험하는 경우에 혹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레즈비언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도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동성 교제 관계를 완벽한 비밀로 부치고, 곤궁에 처했을 때 역시 온전히 당사자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으로 레즈비언을 몰아간다.

이러한 체계적인 억압은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성애 중심주의 이데올로기와 이성애 중심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동성애 혐오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곧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동성애 공포증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동성애 공포증 유발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는 관련 정보를 차단,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유포, 제도 교육 과정상에서 관련 교육 내용 배제 등의 방식을 동원한다. 이는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 전략 즉, 차별의 제도화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0) 성정체성을 원인으로 한 피해 경험

	있다	없다	기타	무응답	계
빈도(명)	126	413	10	12	561
비율(%)	22.5	73.6	1.8	2.1	100.0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없다' 73.6%(412명), '있다' 22.5%(1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1) 성정체성을 원인으로 한 차별 및 피해 내용

	심리 불안정	인간 관계 갈등	조직 불이익	아웃팅	성폭력 피해	금품 갈취	기타	계
빈도(명)	59	67	35	35	16	2	8	222
비율(%)	26.6	30.2	15.8	15.8	7.2	0.9	3.7	100.0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레즈비언 126명 중 124명이 응답하였다. 124명이 1인당 평균 1.8개 항목을 선택, 총 222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 및 피해를 경험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 갈등' 30.2%(67명), '심리·정서적 불안정' 26.6%(59명), '아웃팅 위협 및 협박' 15.8%(35명), '학교·회사 등 조직 내 불이익' 15.8%(35명), '성폭력 피해' 7.2%(16명), '금품 갈취 피해' 0.9%(2명)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끼리끼리>에 따르면, 레즈비언 정체성을 타인에게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강간을 하는 사례, 직장 동료에 의한 아웃팅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례 등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⁴⁾

(12) 피해 상황에서의 도움 요청 유무

	있다	없다	계
빈도(명)	11	115	126
비율(%)	9.2	90.8	100.0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단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없다’ 90.8%(115명), ‘있다’ 9.2%(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115명 중 87명이 응답하였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3.3%(29명),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31.0%(27명),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17.2%(15명),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이 두려워서’ 12.6%(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 피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아웃팅 두려움	기관의 존재 모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혼자 해결 가능	기타	계
빈도(명)	11	15	29	27	5	87
비율(%)	12.6	17.2	33.3	31.0	5.5	100.0

레즈비언임을 이유로 심리 불안정·조직 내 불이익·아웃팅 피해·성폭력 피해·금품 갈취 피해 등을 경험한 레즈비언 10명 중 9명 이상이 타인이나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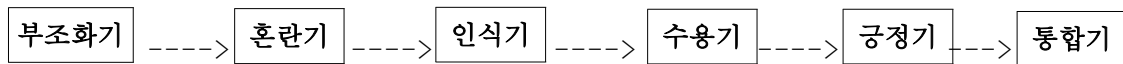
성정체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에 노출 된 경험이 있는 레즈비언들은 피해 당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정체성 혼란 시기부터 교제 과정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개인·사회적인 혼란과 고통을 감당하듯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서 역시 혼자의 힘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상황에 놓인 레즈비언들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그러한 기관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 과정상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끼리끼리>에 따르면 접수되는 폭력 및 범죄 내담 사례 중 동성애 혐오 범죄 관련 내담이 50%, 아웃팅 관련 내담이 31%, 성폭력 관련 내담이 19% 정도의 비율이라고 한다(끼리끼리, 2004).

레즈비언 정체성을 원인으로 한 범죄의 피해 여성들은 사건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두려워한다. 피해 상황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혼자의 힘으로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해결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 피해 상황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의 문제에 대해 무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레즈비언들에게는 박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금품 갈취 피해, 성폭력 피해, 아웃팅 피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역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어 버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감추어 사건을 덮어 버리고 마는 현실은 한국 사회 레즈비언들의 참혹한 인권 박탈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 레즈비언 정체성 정체화 과정 :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 6단계



1) 부조화 및 혼란 단계

레즈비언 구성 초기 과정에서 레즈비언은 여성으로 향하는 특별한 감정 상태를 ‘집착’, ‘동경’, ‘우정’, ‘있을 수 없는 이상 감정 상태’ 등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내면화 하고 있는 레즈비언 자신에 의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수용된다. 부정적인 방식의 수용은 혼란, 거부 반응, 회피, 자기 비하, 자기혐오, 자기부정 등의 부정적인 전략을 레즈비언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전략의 수용은 자신의 정체성을 비정상화 하거나 왜곡된 정체성을 정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성된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방식과 전략의 선택 및 실천은 레즈비언 스스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정체성 및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자학이나 자살 시도의 욕구를 가지게 한다.

2) 인식 및 수용 단계

레즈비언 정체성은 교제와 이별 등의 구체적인 관계 문제, 부조화 및 혼란 상태의 반복적인 경험 등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인식과 수용의 내용은 긍정적인일 수도, 부정적인일 수도 있다. 레즈비언 정체성의 긍정적인 인식 및 수용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정보의 접근과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에 의해 가능하다.

3) 긍정 및 통합 단계

부조화, 혼란, 인식, 수용의 단계를 거친 레즈비언들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련 정보의 접근을 통해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고, 통합했다는 사실이 곧 레즈비언들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의 문제, 이성애 중심주의, 가족주의, 정상 이데올로기 등은 온존하기 때문이다.

6. 레즈비언은 성적소수자인가⁵⁾

올 해로 국내 레즈비언 권리 운동도 1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들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레즈비언 단체라는 것을 만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곳을 찾아 힘겹게 살림을 꾸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수많은 활동가들이 그 자리에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녀들이 서 있던 자리에 우리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레즈비언 권리 운동의 장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운동의 역사들을 만들어 냈던 모든 활동가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레즈비언들과 활동가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저는 “레즈비언은 ‘성적소수자’인가”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말잔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단순한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11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 심각하게 논의된 바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운동 초기에는 용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따위가 사치였을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레즈비언 혹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어떠한 용어라도 채택해야 했을 만큼 관련 언어들이 부재했고, 관련 언어들에 관한 인식이 저급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 관련 담론들은 ‘AIDS=동성연애자들의 역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운동 현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를 알리는 것이었을 테고, 그 과정에서 HIV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의 필요성, 동성애자라는 용어의 적합성 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레즈비언”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 즉,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항하고 그러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해체를 위한 주체로 레즈비언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생산할 여력 혹은 필요성을 상실·망각·지연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여성이반커뮤니티센터 끼리끼리=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하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단체 회칙을 보면, 활동목표가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 타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올해로 횡수로 치면 6년째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6년의 시간동안 동성애, 성정체성, 성적소수자, 레즈비언 등 용어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기 바빴고, 우리 단체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당장 죽을 것 같은 레즈비언들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구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용어들에 관한 작은 문제의식을 확장시킬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즈비언”이라는 용어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기존 대학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레즈비언”이라는 용어의 정치성 문제가 제게는 숙고의 대상이 아닌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나 그리고 우리는 레즈비언에 관한 모든 용어-그것은 나와 우리를 설명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에 관해 깊이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레즈비언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존재하는 이들과 함께 레즈비언,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우리를 설명하는 용어들의 올바른 사용과 용어 사용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인식의 출발을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적소수자”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설지

5) 이 글은 지난 2005년 4월 30일 <레즈비언권리연구소>에서 주최한 <쟁점토론 4> “레즈비언은 ‘성적소수자’인가” 토론회를 위해 작성한 문제제기 글이다. 당시, 토론회에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그리고 <레즈비언권리연구소> 활동가들이 모여 이 주제에 관한 토론문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성적소수자”라는 용어를 단체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000년에 몇몇 선배 레즈비언들에 의해 개명되었던 <여성이반커뮤니티센터>를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제안과 동의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성 동성애자”라는 용어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등 다양한 “성적소수자”들을 포괄하는 방식의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존 여성 운동 안에서 이야기되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레즈비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운동가, 학자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다른 “성적소수자”를 배제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성적소수자”를 포함하는 용어 사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의 “성적소수자”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듯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레즈비언을 설명함에 있어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서 같은 성(性)을 가진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의 정의가 옳은가?

○ “사랑”이라는 용어가 1:1 결합의 낭만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때, 위와 같은 정의에 비판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는가?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단체 회칙에 언급되어 있듯이 레즈비언이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 타파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레즈비언을 “같은 성의 사람에게 가지는 정서적·성적 욕망을 가지는 여성”이라는 정의가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 동성애자, 성적소수자, 성정체성 등 나와 우리를 설명하는 용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 성적소수자라는 용어 안에 동성애자와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는데,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는 동일선상에서 언급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혼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레즈비언 권리 운동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이를테면,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문제, 사랑의 상처로 깊은 골방에 갇힌 이들의 문제, 레즈비언 정체성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가슴 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모든 의문들이 지금 당장 풀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지라도, 그 중 일부는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용어인 “성적소수자”라는 용어의 경우,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인데다가 각종 이론서, 단체 발행 자료집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법문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번도 “성적소수자”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에 관해 숙고한 바 없으며, 그러한 용어 사용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 한번 제대로 한 바가 없습니다. “레즈비언”이 “성적소수자”인지에 관해,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가 동일선상에 있어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인지에 관해, “동성애자”와 “이성복장착용자”와 같은 범주 내에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없습니다.

오늘 운동하고 내일 당장 죽을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운동을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전을 펼쳐 나감에 있어 우리를 설명하는 용어 사용에 관해 살피고, 약간의 의구심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무엇이 의심스러운 일인지, 오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레즈비언 정체성을 알리는 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

다 명확해 질 것이고,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빛 좋은 개살구마냥 척척 만들어지고 있는 관련 법안의 논의 안에 제대로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 <레즈비언인권연구소>에서 제안한 논의를 수락한 4개 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용어 사용에 관한 각자의 고민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 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동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처음 논의인 만큼 제가 제안하는 논의 사항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소 거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테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앞으로 양질의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레즈비언 활동가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문제의식을 정리·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소개해 드린 저의 개인적인 의문들은 잊어주세요. 오늘 논의의 핵심을 “레즈비언은 ‘성적소수자’인가”로 국한시키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외의 의문들 역시 언젠가는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혹은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로서 “억압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추상화시킬 위험이 있는 논의는 시급한 논의가 아닐 수 있고, 시급한 논의라 할지라도 이견의 폭이 넓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풀리는 문제이니깐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용어의 정치성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 우선, “성적소수자”에 관한 문제제기로 좁혀보겠습니다. 문제제기에 앞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성적소수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출판물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적소수자”의 정의입니다.

※ 출판연도 순으로 정리했으며, 일반적인 사용법에 근거하여 성적소수자, 퀴어(queer), 이반의 용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음을 밝힙니다.

●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1996

“그것은 이성애적인 것이 아닌 무엇으로 자신을 확정하기보다는 아닌 모든 것, 그 어떤 것 속에서 자신을 유동적이고 불연속적인 계열체로 열어 놓는다. 그래서 양성애자도, 트랜스 섹슈얼즈라는 이성전화주의자도, 양성구유자도, 레즈비언도, 게이도, 복장도착자도, 그 가족유사성으로 인해 모두 퀴어라는 이름에 묶인다(p.167)”

● 윤가현, 『동성애 심리학』, 학지사, 1997

“이반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다는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반은 단순히 게이를 칭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적 표현에 대한 소수집단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보리고 한다. 만약 후자의 입장이라면, 성적 관심의 대상이 이성인가 동성인가의 차원을 벗어나 인간이 아닌 물체로부터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해당되는 폭넓은 의미로 적용되는 셈이다(p.27)”

● 이해술,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1999

“이반은 영어 퀴어(queer)의 의미로 성적 소수자를 일컫는다. 1995년 게이 커뮤니티에서 영어에 의존된 동성애의 개념을 한글말로 개발, 표현하자는 취지에서 이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반은 일반인(common people)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여성 이반은 레즈비언을 비롯해 여성 양성애자(兩性愛子), 여성 성 전환자, 여성 복장 도착자 등 성적 소수자를 아우르는 의미이다. 1970년대 당시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 개념 또한 모호했기 때문에 모두가 여성 동성애자(lesbian)로 통칭되었다(p.364)”

● 한 채운, “성적 소수자 차별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해소 방안”, 『성적소수자의 인권』, 한인섭·양현아 편, 사람생각, 2002

“‘성적 소수자’의 사전적 정의는 인종적, 문화적, 육체적, 심리적 특질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집단을 소수자 집단(Minority)이라 부르는 일반적 정의에서 한 발 나아간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으로 정리할 수 있다(p.45)”

"하이텔 동성애자 모임 ‘또 하나의 사랑’은 정회원 자격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로 규정하고 있다(p.46)"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는 ”양적인 차원에서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 생식기 소유자, 레즈비언, 게이, 바리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그리고 자신의 섹슈얼리티, 젠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다수’라는 논리하에서 심리적·사회적·정치적 편견과 차별, 억압에 대상화된 모든 이들“을 성적소수자로 일컫는다(p.46)”

● 양현아, “성적 소수자: 법사회적 쟁점과 전망”, 『성적소수자의 인권』, 한인섭·양현아 편, 사람생각, 2002

“성적 소수자란 정치적 뉘앙스가 강한 용어로서 이성애자를 제외한 다양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소아애자(pediphilia), 새디스트(sadist), 이성복장선호(transvestism) 등을 포함한다(p.15)”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윤수중 외 지음, 이학사, 2005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는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성애자’ 이외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자신의 육체의 성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간성(양쪽 성기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이성복장 착용자, 남장 여자, 여장 남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p.112-112)”

간단하게(?) 세 가지로 문제제기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 문제제기 내용은 토론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세 가지 문제제기 내용입니다.

1) 성적소수자는 정치적 용어인가?

이미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린 용어 성적소수자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정의자들은 한결같이 성적소수자라는 용어가 갖는 정치성에 관해 언급을 하거나, 이를 사실로 전제합니다. 즉, 성적 소수자를 “정치적 뉘앙스가 강한 용어”라든가, 레즈비언·게이 활동가들의 어떤 반성적인 인식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주장이지요.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에서 “여성 성적 소수자의 가상공간 활동에 대하여”라는 글을 쓴 정경운은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성애의 대척점을 형성함으로써 또 다른 성적 소수자들(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무성애자, 양성 기관자, 이성 복장 착용자 등)을 소외시킨다는 반성적 인식에 따라, 동성애 인권 단체는 동성애

자들을 포함한 여타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문제 삼는다는 입장을 채택한다(p.148)"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관한 레즈비언.게이 커뮤니티 내의 논의는 전무했습니다. 기초적인 논의의 장이 전무한 현실에서 일련의 운동 전략으로 혹은 당위로 어떤 개념을 “채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몇몇 단체에서, 그것도 산발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한 개념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미 “정치성”을 가진 듯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합의한 바 없고, 그 내용을 장담할 수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겠지요. 물론 그 전에, 기존의 그와 같은 개념 정의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근거로 설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 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면 채택의 필요·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용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킬 것인지, 완전하게 열어 둘 것인지에 관한 논의 역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그러한 개념이 정치성을 갖는다면, 그 정치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가 이성애만을 강요해 온 사회에 항거하는 개념인지, 이성애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인지, 이성애주의 전복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개념인지 아니면 서동진의 주장처럼 “유동적이고 불연속적인 계열체”로 이해하면서 완전히 열어 두어야 하는 개념인지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런 개념 정의 안에 혹은 밖에 위치할 수 있는 레즈비언의 정의 문제에 답해야겠지요. 정의를 하던, 하지 않던 말입니다.

2) 레즈비언 vs 이성복장착용자

레즈비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레즈비언과 이성복장착용자가 한 배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요. 이미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 보입니다만. 저의 경우, 레즈비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입니다.

◆ 레즈비언(Lesbian) ① : 여성에게 정서적·정신적·성적 교감의 욕망을 가졌던 경험이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 여성들 중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인식하는 여성

◆ 레즈비언(Lesbian) ② : 여성억압의 최대 수혜자를 남성권력일반으로 상정하면서, 남성권력일반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 타파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

이 둘을 결합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문제, 이 둘의 결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 결합이 가능하거나 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 등은 논의의 대상인 듯하니 다른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레즈비언을 정의하든지간에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성적소수자 안에 레즈비언이 양성 생식기 소유자와 함께 기술되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측면 즉, 어떤 내용의 정치성을 획득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성적소수자라는 용어가 그토록 정치적인 용어일 때, 그 정치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이성애를 강요하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다양한 “저체성”과 “취향”을 가지는 이들이 한 통속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지배적인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부장제 타파라는 것도, 상위 권력으로써의 남성권력일반의 질서 파괴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랬을 때, 변화하게 될 레즈비언 권리 “운동”의 내용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운동 주체는 누가 될 수 있으며, 운동 분화의 필요성은 또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일일까요?

정치성의 문제 등 복잡한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적소수자가 내포하고 있다는 정치성의 문제에 흥미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 레즈비언과 성전환자, 레즈비언과 양성 생식기 소유자, 레즈비언과 소아애자(pediphilia), 레즈비언과 새디스트

(sadist), 레즈비언과 이성복장선호(transvestism)의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할테죠.

3) 레즈비언은 진정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 인가?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는 한채윤의 정의처럼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으로 표현되기 일쑤입니다. 나아가 성적소수자로 묶여 윤가현의 주장처럼 “성적 관심의 대상이 이성인가 동성인가의 차원을 벗어나 인간이 아닌 물체로부터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해당되는 폭넓은 의미로 적용”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들이 불편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즈비언 정체성은 단순히 성적 관심의 대상에 따른 경우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층위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끊임없이 성애화하고, 성기 중심 혹은 성교 중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웬지 기존 남성권력일반이 기획한 놀음 즉, (단순 무식한)성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기 때문입니다. 레즈비언 정체성은 다른 언어, 새로운 방식의 정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야기 할 때, 그 존재가 “물체로부터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과 일직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레즈비언인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일까요? 레즈비언을 무엇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운동 내용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목표의 선정, 운동 수단의 선정, 운동 방향의 선정, 연대 가능성에 관한 판단 등이 레즈비언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레즈비언은 물론 레즈비언을 포함해 설명하고 있는 성적소수자 정의를 위해 동원되는 개념어들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레즈비언인권연구소>의 주 발제 : 레즈비언은 “성적소수자”인가에 관한 문제제기를 마칩니다. 이 질문, 레즈비언은 “성적소수자”인가에 관한 해답을 저 역시 완전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주 발제문이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글로 채워졌습니다. 이 점,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하나의 질문이 가져오는 수많은 질문들을 따라가고, 해답의 실마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했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 국내 동성애자 관련 인권 운동 지형의 이해

1) 국내 동성애자 관련 인권 운동 지형의 이해

2) 성소수자⁶⁾ 권리 운동과 “진보” 정당과의 관계 정립

2000년 1월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의 “민중”이 누군 인가를 시시콜콜 따지고 싶지는 않다. “진보”인 것과 “진보”가 아닌 것의 경계를 묻고,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일컫는 당 정체성으로서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열거할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자본제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체제를 고민하고, 대안체제 고민의 주체를 노동계급으로 상정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애초에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을 계급기반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조직된 정당이니까 말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의 많은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6) 이 글에서 나는 유감스럽게도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나는 “성소수자”라는 용어 안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결코 한 개념으로 묶일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이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이고, “성소수자”라는 낱말을 별 거부감 없이 수용·차용하는 단체들 간의 결합에 관한 것이니만큼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성소수자”에 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레즈비언인권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 『LIFL 총서 ① 한국의 레즈비언 권리 운동』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노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당사 최초로 <성소수자 위원회>를 조직한 정당이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이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그리고 최근 조직된 <여성성소수자인권네트워크 무지개숲> 등의 국내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 매우 유관한 조직이다. 특히, <성소수자 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게이문학>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조직이기도 하다.⁷⁾ 이렇듯 <성소수자 위원회>와 국내 일부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들은 매우 유관하다.

그런데 나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의 민주노동당과 일부 성소수자 권리 운동 진영의 “결합”에 관한 의심과 걱정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실험 단계에 있는 정당이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민중정당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보”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실험의 과정이 얼마만큼 순탄할지, 순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것이 국내 성소수자 권리 운동과 결합했을 때의 과정과 결과에 관해서는 더욱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일부 국내 성소수자 권이 운동 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의 실험에 지나칠 정도로 무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 “개입”이 용감한 개입인지, 무비판적인 수용을 토대로 하는 개입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위원회>와 국내 일부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들의 만남은 위험하다. <성소수자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즉, 이중 멤버십을 가지는 활동가들의 수가 상당하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 내에서 연대하는 테이블뿐만 아니라 각 단체 주요 사업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 위원회>는 언/제/나 함께 한다.⁸⁾ 인권 운동 단체 활동가와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이중 멤버십을 용인하지 않는 단체 원칙을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정당 내의 한 위원회 건설에 인권 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결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급기야 <성소수자 위원회>가 한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의 건설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위원회>는 위원회 연혁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 건설 과정에 참여(5월 이후, 10/16 발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내의 인권 운동 단체들이 진행해 온 많은 사업들에 <성소수자 위원회>는 자연스럽게 공동 개최 자격을 얻게 되었고, 시민사회내의 인권 운동 단체들이 축적해 온 정보들과 활동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슈에 언제나 참여함으로써 공동 테이블을 형성하게 되었고, 심지어 시민사회내의 인권 운동 단체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정당내의 위원회와 이토록 긴밀한 결합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그 어디에도 없다. 유독 국내 성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만이 정당 정치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 사이의 갈등과 균형 논의가 불필요할 만큼 정당 정치내의 위원회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내가 이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민중”이 누구인지, “진보”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자고 한 것이 곧 그

7) “최초 포괄한 회원은 민주노동당 당원인 성소수자들의 일부였습니다. 이 집단은 애초에 진보운동에 투신한 동성애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운동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 집단은 바로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내의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회원분들, 친구사이의 회원분들, 게이문학의 회원분들,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제 1집단과 제2집단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분류로는 그러하다는 판단입니다”(호르는 물, ‘2005년 한국 동성애자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정치토론회 자료집 “동성애자와 진보정치”’, 2005.12.29

8)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 및 여름동성애자인권캠프 공동개최”,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5 참가”, “MBC 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성소수자 진영 공동대응 공동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05 여름동성애자인권캠프“ 공동개최”, 제8회 청소년동성애자 인권학교“ 공동기획” 등,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연혁, 「성소수자 교육자료집(당원용)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기’’, 2005.11

정체를 밝히는 일이 불필요하거나 사치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름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보”, “해방”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조직 간의 협력관계는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는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간의 파트너십은 사안별 연대를 통해 드러나야 하고, 협력과 연대의 과정은 일정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 나는 긴장 없이 출발한 <성소수자 위원회>의 탄생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비판 없는 연대가 가져 올 부정적인 파장을 염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무비판적인 연대 상황을 좌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축적해 온 모든 성과가 정치 기구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 기구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기획·추진·축적된 성과들은 해당 단체의 성과로 남아야 한다. 단체의 성과가 관련이 적은 또 다른 단체의 성과로 남거나 특정 정치 기구의 성과로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단체의 성과는 타 단체 및 정치 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공유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 기구는 건강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기구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비판을 필요로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와 토론 등에서 우리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경계하자는 목소리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운동은 일부,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운동만이 운동이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이 그저 레즈비언이고, 게이인 정치인을 만들어 내고, 제도 운동만이 운동이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안 될 일이다. 레즈비언 없는 레즈비언 권리 운동이 허상이듯, 레즈비언 권리 운동가 없는 레즈비언 정치판은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제도 운동에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제도 운동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제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내의 담론 형성의 과정,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관련 제도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에 관한 충분한 실태 파악은 물론 대중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히고, 성실하고 정직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인식이 따라오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제도는 처음부터 한계가 너무 많다. 인식과 함께 성장하지 않는 제도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이다. 성소수자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질적·양적 성장과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성장이 원동력이 되어 제도화 운동과 결합될 때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운동의 의제는 대중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성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비판적인 정치 기구와 국내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간의 연대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정치 기구는 정치 기구 특성상 관료적이다. “진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아무리 “진보”를 외친다 한들 현재 한국 사회 정당 정치 구조 내에서 그 정치 기구가 관료적인 성격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도 제도권 밖의 운동/제도권 내의 운동, 구관에 기어 들어가는 운동/새판 짜기의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지 않은가. 결국에는 초월할 수 없는, 시작부터 기존 판에 들어가 시작된 정치 치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지 국내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사안을 성가셔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순간에 무반응으로 일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확한 결합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단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정치 기구와의 연대 과정에서 돌출하는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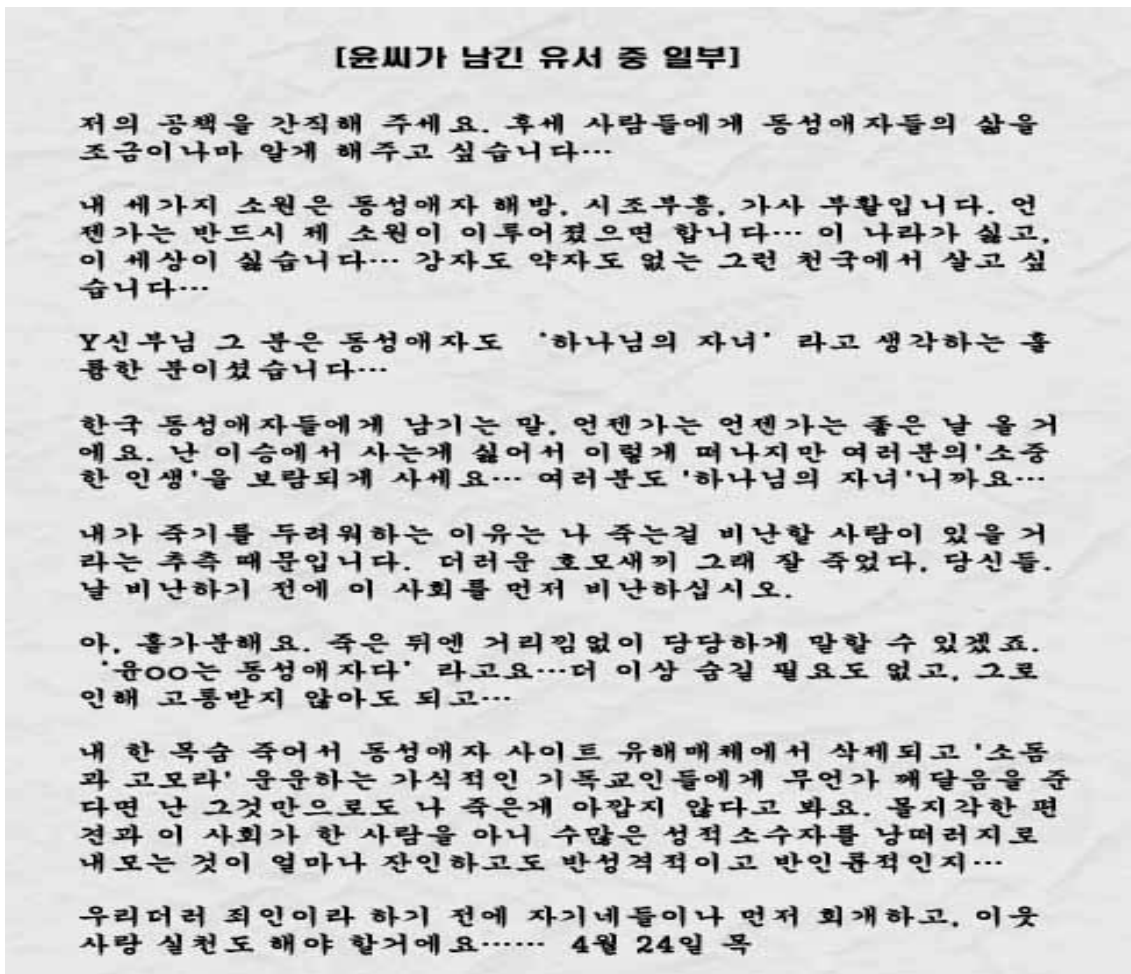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고민의 부재가 제도권 밖의 운동만이 추구하고, 이를 수 있는 즉, 제도 밖 운동의 자생력, 창조력 그리고 급진적 동력을 희석시키고, 후퇴시키고 나아가 싹을 잘라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기구 특성상 정치 기구는 차이가 아닌 동질성만을 내세우는 방식의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의 무비판적 수용의 일반화 경향은 운동과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한 차이들을 무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해방”이라고 할 때의 “우리”가 누구이며, “해방”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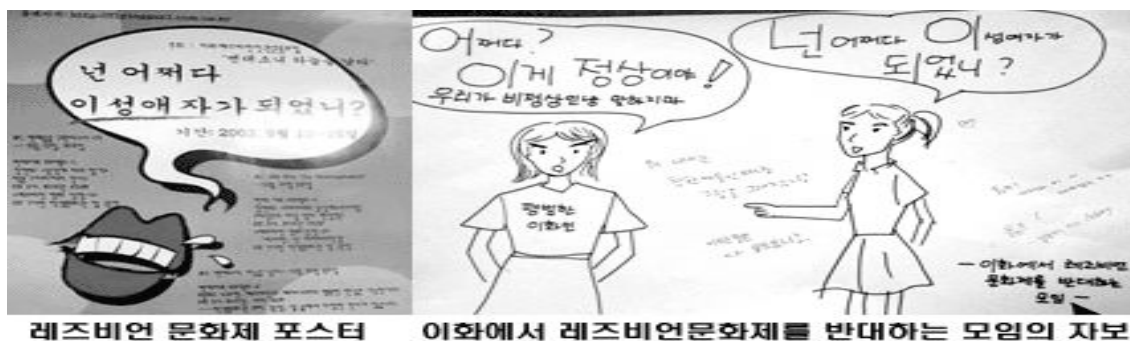
- 1) 사랑과 우정사이 : 사랑 이데올로기
- 2) “나는 조국을 생각한다”
- 3) 나르시스트와 레즈비언

※ 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유서



출처 : <http://ildaro.com>

※ “당신들의 평범함이 우리에게 폭력이다”



출처 : <http://ildaro.com>

<3강> 여성주의 상담의 이해

이미혜 | 서울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I. 상담의 개념 및 이론

1. 상담의 정의

상 담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장호 ‘ 상담심리학입문 ’)

여성주의 상담 /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자각하고 여성차별 철폐와 성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상담이다.(김혜경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

여성주의 상담가 / 이런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상담접근을 선택하는 사람

2. 상담의 주요이론

1) 정신분석치료

/ 인간은 심적 에너지와 유아기의 경험으로 결정되며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이 현재 행동의 중심이다. 비합리적 힘이 강하며 성욕과 공격충동에 의해 인간은 움직인다. 유아기 발달이 중요, 후의 성격 문제는 유아기의 억압된 갈등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 정상적 성격발달은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잘못된 성격의 발달은 어떤 특수한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결정의 결과이다. 원욕, 자아, 초자아가 성격의 기본구조. 불안은 기본 갈등을 억압한 결과이다. 자아방어는 불안을 통제하기위해 발달한다.

/ 해석, 꿈분석, 자유연상, 저항분석, 전이 분석 등이 핵심기법. 내담자가 자기의 무의식적 갈등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통찰을 획득하고 결국 새로운 재료가 자아에 융화된다.

2) 인간중심치료

/ 인간관이 긍정적이다. 인간은 보다 완전하게 기능하려고 한다. 내담자를 자각을 증가시키고 자발적이며 자기를 믿고 내면으로 향할 줄 아는 존재로 본다. 정신건강은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간의 일치성이다. 부적응은 자기가 바라는 존재의 상과 현실적인 자기 존재간의 불일치의 결과.

/ 안전한 분위기 제공, 내담자가 자기를 개방하고 신뢰하고 발전하며 자발성과 생기를 찾도록 돕기

/ 기법을 중시하지는 않으나 치료자의 태도는 강조한다. 진실성, 무조건적인 관심과 수용, 정확한 공감적 이해

3) 행동치료

/ 행동은 학습의 산물, 우리는 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그것을 만드는 존재. 표출된 행동, 치료목표의 구체화, 치료계획의 발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에 초점을 둔다. 학습이론의 원리에 바탕, 정상적 행동은 강화와 모방을 통해 학습된다. 비정상 행동은 잘못된 학습 결과이다.

/ 부적응행동의 제거, 보다 효율적인 행동학습

/ 체계적 둔감법, 이완기법, 강화기법, 모델링, 인지적 재구성, 사고중단법, 주장훈련, 행동연습

4) 현실요법

/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며 삶에 책임을 진다. 반결정론적이고 긍정적이다. 이 모형은 인간이 자기주변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기술한다. 인간이 그의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을 내담자에게 가르친다. 내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현재 활동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초점을 둔다.

/ 성공적인 정체감, 실패적인 정체감, 인간은 그들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에 의해 감정을 창조한다.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행동은 우리의 지각을 통제한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치료법(내담자의 과거, 감정, 통찰, 진이, 무의식, 꿈과 같은 요인에 초점을 두는 것)을 거부한다.

/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강해지고 자신의 인생에서 개인적인 책임성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합리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기

/ 행동적이고 직접적이고 교시적인 치료법, 어떤 행동적 기법도 만약 내담자가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 지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행동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그들은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할 수 있다.

II. 여성주의 상담

1. 여성주의정체성 발달단계

여성주의 상담자 유형과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단계. **전통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자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심없이 사회구조를 받아들이는 소극적 수용인 1단계에 해당하며 여성 내담자들이 겪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성차별적 사회구조나 문화가 여성에게 갈등을 준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당연히 받게 받아들인다.

비성차별주의 - 인본주의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자는 인본주의 가치에 따라 개인적 선택과 성장 이슈를 강조하고 성역할 이슈에 유연성을 보이며 1단계인 소극적 수용성을 낮으나 상담을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여기며 내담자의 내적 체계의 변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내담자의 관심에 영향을 끼쳐온 외부적 요소를 분명하게 강조하지는 않는다(Greenspan 1993)이들은 앞서 제시한 전통적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자보다 2단계인 눈뜸의 단계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유형에서는 모두 새로운 여성정체성 획득과 사회변화를 기본으로 하는 여성주의 상담 원리에 따라 2, 3, 4단계 인 눈뜸 새겨둠과 참여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상담은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여성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상담에 비해 새겨둠과 참여가 더 높을 것이다.

다우닝과 루시	위 렐	여성주의정체성 발달단계
1단계/소극적 수용(Passive Acceptance)	동 일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자각하지 못했거나 부정하는 여성을 묘사한다. 그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위치를 수용하기 쉽고, 전통적 젠더 역할 배치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눈뜸(Revelation)	동 일	여성의 이전 지각을 유지하기 못하게 하는 의식화 경험에 의해 재촉된다. 이 경험은 개인적 차별, 관계의 상실, 여성주의 관념과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자신에 대한 억압을 깨닫고 분노하고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협력한 자신의 역할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성을 과소평가하면서 젠더를 양극화 시키기 쉽다.
3단계/ 새겨둠(Embeddedness -Emanation)	동 일	여성의 문화에 빠져있고 다른 여성과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증가시키는 여성을 묘사한다. 저자들은 사회구조가 남성과의 접촉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게 하므로 빠져있음 과정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만일 그 여성이 결혼했고 아들이 있다면 억압자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다고 볼지 모른다. 여성들이 이 단계를 빠져나옴에 따라 그들은 양극화된 입장을 포기하고 자신을 새 인격으로 재통합하기 시작한다.
4단계/종합(Synthesis)	4단 계 로 통 합	여성은 유연하고 긍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에 이르고 점차 자신의 여성 자기(Female self)의 가치를 인정한다.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억압을 자각하지만 ‘ 전통적 성역할을 초월할 수 있고 잘 정의된 개인적 가치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남성을 고정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5단계/적극적 참여(Active Commitment).	참 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입장을 묘사한다.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리고 ‘성역할 초월이 가치있고 격려되는 목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한다.

2. 여성주의 상담원리

1)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개인적이라는 의미는 너와 나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너와 나만의 문제라는 것이고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사회 문화 구조속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폭력문제는 가부장적 사회와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문화구조를 기본바탕으로 발생한 문제로 전제한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렐은 제 1원리중 ‘정치적인 것’의 측면을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개념화하여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모든 개인은 복잡한 사회 문화안에서 몇 개의 사회적 위치에 속하며 이들 각 위치에서 각기 다른⁹⁾ 정체성 발달수준 을 갖는다. 상담자는 이를 평가하고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해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렐은 이 원리를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을 총 3단계로 보여준다. 첫째 단계는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 분리하기’이다.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사회규칙, 성역할 사회화, 제도화된 성차별, 개인의 경험에 따른 다른 종류의 억압을 분류하도록 하며 내담자가 자기 문제의 외적 원천과 내적 원천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한다.

두 번째는 ‘병리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내담자들의 ‘증상’은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여성의 우울은 억압받는 것에 대한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여성주의 역량강화상담자¹⁰⁾는 여성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자신의 환경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변화의 초점은 내담자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내면화된 신념들을 교정하도록 돕는데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변화 주도하기”이다. 여성주의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차별과 소수집단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학교, 종교, 직장, 경제, 법률, 정치적 구조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핵심이다. 개인과 사회변화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한 방법은 사회변화에 수준의 연속성이 - 큰 거시수준에서 작은 미시수준으로 -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여성주의 상담자는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와의 평등성을 추구한다. 그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여성으로서 가부장적 사회속의 피해자라는 공통된 인식이다. 김민예숙은 가부장적 억압과 차별의 여성피해자들을 직접적인 피해자와 간접적인 피해자로 나눈다.

또한 여성주의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의 삶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한다. 이들을 희생자가 아닌 생존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평등성은 상담 관계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여성주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관계를 줄이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여성주의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내담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개방한다. 여성주의 치료자들은 가치자유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치(성역할 기대, 성적 행동, 의존성 등)가 뚜렷해지도록 용기를 분돈아 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사회 규

법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한다. 여성주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선택적 자기노출(자신의 현재와 과거 삶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과 내담자에 대한 자기참여를(자신의 지금.여기 반응을 나누기) 한다.

3) 역량 강화

역량강화 (Empowerment)는 어떻게 내담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나 관계에 적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지향하도록 이끌것인 가가 관건이다.

여성주의 치료에서 임파워먼트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사회 권력구조의 분석 ◇ 여성들이 어떻게 무력함을 느끼도록 사회화되는지에 대한 토론과 인식 ◇ 여성들이 개인적, 관계적, 제도적 영역에서 어떻게 힘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발견 ◇ 여성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술의 사용 등.

여성주의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돌보도록 격려한다. 상담자들은 특히 내담자들이 즐거움과 지배의 느낌을 갖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예로는 목표 수립해보기, 운동같은 육체적인 훈련, 개인적인 돌봄, 스트레스 관리 기법, 또는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거나 배우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에 등록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내담자들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격려하며 특히 경제적인 독립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 분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담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수록 분노가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여성주의 상담자는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에 일정부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한다.

4)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기

여성 자신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여성의 경험에 입각해서 삶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재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자기 규정하도록 촉진된다. 스터디반트는 이 현상을 ‘ 여성이 정의한 여성 ’이라고 부른다. 공감 양육 협력 직관 상호의존 관계집중이 가치와 우선권을 갖는다. 자기가 여성으로서 현재 (Here and Now)를 살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3. 여성주의 상담자의 특성

1) 자기 성찰과 여성주의의 실천

“특히 여성주의/심리상담 치료자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사회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자신의 편향과 왜곡을 탐지해야한다”(제럴드 코리 ‘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

성찰/ △ 상담자 자신이 여성주의자 혹은 상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상담자와 내담자의 평등한 관계, △ 상담관계의 맥락을 유지시키려는 노력, △ 내담자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유능한 사람으로 보려는 노력, △ 상담자의 변화에 대한 조급성의 성찰, △ 그리고 상담자 자신 안에 있는 가부장성에 대한 성찰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내담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대하게 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한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여성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간과하게 되고 여성 내

담자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한 탐색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성찰도 어려워지게 된다.

실천 /△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으로 내담자를 돕는 것. △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개입하는 것, △ 법제화 운동같이 사회구조를 변화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2) 지지집단

지지집단은 상담자들이 여성주의정체성을 깨닫고 이를 체화시키는 새겨듬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워렐은 여성주의 상담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지지집단은 1. 여성으로 사는 것 -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인종적 소수집단 또는 문화적 소수집단으로 - 과 여성주의자가 되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 문제를 다루기 2. 여성주의 프로그램을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 의식화 3. 여성주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지지에 중요하다.

3) 평등의식과 자매애

여성상담은 전문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료, 파트너의 관계이며 상담자는 외부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인 셈이다

자매애는 평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맺어지는 정서적인 유대를 말하지만 내용은 그 이상이다. 남성중심적인 세상의 질서에 맞서 여성들만의 독특한 질서를 새로이 구축하는 개념이다.

4) 학습

가부장제의 영향을 이해하는 여성학 공부,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상담심리학 공부, 여성 및 남성심리학 공부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또한 집중해야하는 분야는 상담자체에 대한 전문성함양의 측면이다. 기본기가 부족한 채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만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이라기보다는 여성주의를 가르치는 교육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 기본기란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상담과정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끌어나가는 능력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기법을 말한다. 경청,공감,명료화,요약,질문,직면,자기공개등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슈퍼비전

5) 미래의 비전

엔스는 여성상담의 첫째 목표로 ‘ 적응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한다 ’를 꼽고, 여성주의 상담에서 가능한 자기 변화의 성과는 사회적 운동의 참여라고 전제한다. “ 개인적으로 경험한 문제들은 오로지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만 개선되므로 보다 큰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여성들 개인의 삶의 변화와 연관된다 . 의식성장그룹과 지역운동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여성들은 미래의 변화된 행동들을 이끌어갈 경험과 자신감을 얻는다

4. 여성주의 상담기법

1) 문화분석

가부장 문화가 여성 남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으며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심리에 어떻게 내재화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달리 키워지는가를 본다.

2) 성역할 분석

“성역할과 관련된 기대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사회화되었는 지에 대한 내담자의 각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

목표/ 자신이 여성이어서 얼마나 차별을 받았느냐를 깨닫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력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모든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가능성에서 배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의 핵심임을 알게한다.

분석과정/

- 1단계- 내담자가 경험한 직.간접적인 성역할 메시지 찾기
- 2단계- 자신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보기
- 3단계- 이들 메시지를 어떻게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자기대화형태로 내면화 했는지 보기
- 4단계- 내면화된 메시지중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5단계- 변화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 6단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 변화수행

3) 권력분석

권력(Power)개념의 재정립필요/

“여성이나 남성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혹은 믿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행하게 하거나 혹은 믿게 하는 능력(Paula Johnson ,1976)”

“움직이거나 혹은 변화를 생산하는 능력(Jean Baker Miller,1991)”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끼쳐서 생산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 (배인숙, 여성주의연구모임, 2007)”

“○○ 에 대한 권력”, “자기 자신만을 위한 권력” 개념에서 벗어나 , 나로부터 비롯하여 대상으로 확산되는 권력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역량강화(Empowerment) /

"상호적 관계적 과정을 통해 각 사람의 에너지 자원 힘을 결집하고 목적적으로 행동할 능력, 자유, 동기 (Janet L. Surrey ,1991)"

권력 → 권력감 → 역량강화 → 나와 사회적 조건의 변화 → 권력 → 권력감 → 역량강화의 상호작용적 순환구조

4) 주장훈련

자기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단호함을 배운다. 표현행동과 의사소통을 학습한다.

5) 의식향상훈련기법

강의,영화보기,토의,역할연기,생활나누기

6) 독서요법

7) 재구성과 재명명

재구성(reframing)- 희생자 비난하기로부터 내담자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의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생각이동

재명명(relabeling)- 행동특징에 적용된 라벨이나 평가를 바꾸려는 중재

8) 상담탈신비화 전략(상담자의 자기 드러내기)

참고도서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서울여성의 전화 기획, 황경숙외 6인 공저, 한울아카데미 (2005)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주디스워렐. 파멜라 리머 지음 김민예숙.강김문숙 옮김(2004) 한울아카데미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6판) 제롤드코리 원저/ 조현춘, 조현재 공역(2003) 시그마프레스
Feminist Theories and Feminist Psychotherapies , Carolyn Zerbe Enns (1997)

‘**권력과 임파워먼트**’ 이미혜 , 여성주의 상담 전문가 중급실습교육 서울여성의전화 (2007)

‘**여성주의 상담기법: 성역할분석**’ 정춘숙, 여성주의 상담 전문가 고급교육 서울여성의전화(2007)

<4강> 레즈비언 상담의 기초

이정연(원영)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 들어가며

상담이란 내담자에 요청에 상담자가 응하여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전체를 뜻한다. 상담자는 자신이 배운 상담 기술을 활용하여 내담자를 돕는데, 이때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태도는 상담의 내용과 내담자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맺기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규정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통적인 상담에서는 “돕다”의 뜻을 일방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상담원이 내담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이 경우, 내담자의 문제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담자에게 묶여 있다.

반면 여성주의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내는 역할만을 맡아야 한다고 믿는다. 상담 장면에서 다루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담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정체성이 있는 그대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원리는 여성주의 상담의 힘이다.

본 강의는 여성주의 상담에 기반을 둔 레즈비언 상담에 대해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상담에서 내담자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어떻게 부정해 왔는지 살핀 후, 내담자의 성정체성에 근거한 상담이 전문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안다. 또 구체적인 레즈비언 상담의 원리와 기법을 배운다.

1. 레즈비언 상담이란 무엇인가

1.1. 레즈비언 상담의 의미

레즈비언 상담은 레즈비언인 상담자가 레즈비언인 내담자를 다루는 당사자 상담만을 일컫지 않는다. 이 용어는 내용적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레즈비언 정체성을 둘러싼 개인의 문제를 정서적 혹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루는 상담을 뜻한다. 특히 여성주의 상담에서 개인적이고 특수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 및 소수자의 문제가 곧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처럼, 레즈비언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는 동성의 상대방에게 이끌리는 과정을 토대로 한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나눈다. 따라서 레즈비언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에게는 이성애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상담자의 역량이나 개성에 따라 상담 과정의 양상은 다양해질 수 있지만 레즈비언 상담에 있어 상담자가 필히 공유해야 하는 가치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반해 내담자가 안고 있는 고민의 모습은 그 다르기가 천차만별이다.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일은 누구에게 쉽지 않겠지만 이 어려움에 대한 레즈비언의 반응은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여성에게 이끌리는 감정 자체에 전적으로 거부감을 표하는 내담자도 있고 레즈비언 정체성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내담자 꺼내놓는 문제의 종류와 크기의 스펙트럼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레즈비언 상담이란 레즈비언 상담자가 레즈비언인 내담자를 다루는 지엽적인 차원을 넘어선, 레즈비언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 내담자와 레즈비언에 대한 바른 정보와 감수성을 갖춘 상담자가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① 내담자가 레즈비언으로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과정을 내담자와 상담자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다.

② 레즈비언이 자신이 겪는 사회생활의 제 국면(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교제관계 및 학업, 노동, 업무 등 각종 활동 속에서의 국면들)을 자기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며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모색해 나가는 활동이다.

③ 자신의 레즈비언 여부를 살피며 정체성을 탐색해 나가는 여성들이 그 과정을 지지와 격려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④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레즈비언 내담자 및 정체성 탐색기의 여성들이 레즈비언 정체성 및 동성애에 우호적인 상담자와의 연결을 통해 소외감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기 탐색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2008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자료집』, 「레즈비언 상담의 기초(김운서이)」)

1.2. 레즈비언 전문 상담이 필요한 이유.

오랫동안 상담의 실제 기술과 기법은 주로 심리학 연구자들과 전통적인 상담자들에 의해 다져져 왔다. 치료의 목적이나 과정, 내담자의 태도를 해석하는 방식, 상담자가 갖춰야 할 경험적 지식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상담 자료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목표 지향을 상담자가 돕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 특히 전통적인 상담에서의 상담 이론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상담자가 축적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작성되어 왔다. 상담자가 기존의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먼저 상담자가 사회가 강요한 규범들을 의심하지 않은 채로 상담에 임한다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내담자를 자신의 가치관대로 변화시키고 ‘교정’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상담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상담자의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담이 내담자에게 끼치는 일방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던 탓이다. 또 가치관의 문제는 변화의 가능성 보다는 반복되고 답습될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 익힌 상담 관련 지식과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담 이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여성과 남성 간의 이끌림과 교제, 결혼만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가치관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람들은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숨기고 감추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끌리는 감정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관계로 한정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고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인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교정의 대상이 되거나 지워져 버려 다시 동성애자라는 존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상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된다.

이성애중심적 가치관을 내재한 상담자는 레즈비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담에 임하게 된다. 그리하여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거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기 쉽다. 이것은 내담자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으며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태도에서도 비롯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중심주의에 관한 문제의식이 전무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한다. 이성애중심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상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래 제시된 상담 예시들은 동성애자 정체성을 전문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거나 동성애를 이성애자로 사회화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

표1. 상담 예시(1)

제목 : 이런 사랑은 안 해야 하는 건가요? 사랑은 맞나요?
내담: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민거리가 있어서입니다. 솔직히 전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건 남잔데 자꾸 생각나는 건 학교선배입니다. 즉 여자라는 뜻이죠. 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고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손에 안 잡히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에게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그 학교선배라는 점에서 전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제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스스로도 내가 그 언니를 좋아한다. 이렇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전 정말 그 언니를 너무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고, 그 선배가 절 싫어 할까봐 그게 걱정되니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게 있다면, 그건 정말로 그 언니를 좋아한다는 거죠.
상담: 안녕하세요? ____ 님! 좋아하는 이성이 있음에도 같은 동성의 선배언니가 자꾸만 생각나고 좋아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군요. 염려하시는 것은 아마도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아닐는지요.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측면에서 관대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쉽게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동성연애라고 하면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성의 어떤 사람이 좋고 그 감정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동성애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동성의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자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다소 풍부해질 때도 있겠

쥬.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____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선배언니가 가지고 있고 또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성애의 발생 원인으로 유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____님께서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단정 짓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비정상적인 성격발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원인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____님! 이성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좋아 하신다고도 하셨죠? 남자친구와의 갈등은 없는지요? 혹은 남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____님! 흠, 사회적인 면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좌악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한 취미활동이나 운동, 건전한 이성교제 등에 노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XX시 청소년 상담실>>

표2. 상담 예시(2)

제목 : 제가 동성애자인가요?
내담: 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저도 제 여자 친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떨 땐 껴안거나 하는 스킨십을 하면 너무 좋아요. 혹시 제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걱정이 되요
상담: **님 혹시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고 많이 걱정 하셨군요. 여자 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TV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나왔으니 '내 얘기가 아닌가?' 하구요 그런데 **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마치 아기가 처음엔 기다가 걷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동성이나 이성을 대하는 것도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요. **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초등학교 때에는 남자 친구들을 때로는 적대시하기도 하고 또 여자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어울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그런 마음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동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남자친구 보다는 여자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한 경우에는 **님처럼 껴안는 등의 스킨십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존재를 이상화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단계이지요. 이 단계가 지나 더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성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단계들이 일정한 시간간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니예요.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이런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은 나중에 **님이 커서 이성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되는 거지요. **님은 동성친구를 좋아하는 단계에 있는 것 뿐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친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님은 이제 중2 학생이고 다른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요 **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친구와 예쁜 우정을 만들어 갔으면 하네요.^~
<<XX시 청소년 상담실>>

상담이란 내담자의 현실을 내담자가 서술하는 바탕으로 들으며 이해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상담이란 내담자가 처한 현실을 상담자가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결정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레즈비언 상담에 적용해 볼 때 레즈비언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안고 있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정체성 규정이나 동성애혐오적인 가치관의 주입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를 닦는 일이다. 이에 따라 레즈비언 상담에서 상담자는 반드시 레즈비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내담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성애와 레즈비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성애중심적이고 동성애혐오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자세를 뜻한다.

따라서 레즈비언 상담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① 레즈비언 혹은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는 여성을 지인으로 둔 가족, 친지, 친구, 교사 등의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이해 및 레즈비언의 삶에 대한 앎의 정도를 깊게 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이들 스스로 이성애주의와 호모포비아와 관련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레즈비언 당사자와 관계를 맺을 때 레즈비언 당사자가 상처를 입거나 위협에 노출될 확률을 줄이는 활동이다.

② 그 자체로 적극적인 인권 운동이다. 상담 과정에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가치관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성애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서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대화, 이메일교환, 게시판에서의 글 교환 등 각기 다른 상담 통로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성애만이 옳다는 관념이 결코 당연한 사실이 아님을 배워 나가거나,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2008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자료집』, 「레즈비언 상담의 기초(김윤서이)」)

2. 레즈비언 상담의 구성 요소

2.1. 내담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담자의 경험이다. 내담자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담자 자신이며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귀 기울여야 한다. 내담자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을 때 상담자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지레 짐작하기보다는 이야기 자체를 듣는데 집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면, 상담자는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레즈비언이 사는 어려움을 먼저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건네는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상담자는 늘 내담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2.1.1. 레즈비언

레즈비언이란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로, 정서적으로 또 성적으로 이끌리는 상대가 여성인 여성 중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단일한 경험체계로 묶일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다. 왜냐하면 레즈비언 개인의 정체화 시기와 계기, 방법, 동성 교제 및 이성교제 여부,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 여부 등은 개인의 성격과 주변 환경(주변에 커밍아웃하고 지지받을 만한 지인이 있는지, 아는 레즈비언이 있는지,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내담자의 고민의 종류 또한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상담자는 이렇게 다양한 상담 내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다음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의 종류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3. 레즈비언 상담의 종류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2008년 현재)

성정체성	짝사랑	고백	교제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의 폭력	이별	친구관계	가족관계
성소수자 당사자의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증	기존 가족 내의 폭력	성(性)	종교
교제 관계 내의 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웃팅	섭식장애	스토킹
성폭력 (동성간, 이성간, 기타)	아웃팅매개범죄	커밍아웃	혐오범죄
성소수자 당사자의 가출 혹은 실종	차별사례	관련정보문의	기타

상담의 내용은 레즈비언 내담자의 개인적 차이와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담자의 현실을 이해한다는 것, 즉 레즈비언 내담자의 현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토록 다양한 현실이 내담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선입견을 삭제하는 작업이자 성찰의 과정이다.

2.1.2.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 중인 여성

레즈비언 내담자와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 중인 여성이 요청하는 상담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 또한 레즈비언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이나 여성과의 교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인 내담자와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는 내담자가 요청해 오는 상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향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서 혹시 내가 동성애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지만, 상담수가 여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느끼거나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 여성을 좋아하면서도 혹은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도 감정과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내담자가 여전히 이토록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존재를 강하게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여성이 여성과 만나 좋아하게 되고 사귀는 일 자체가 있기 힘든 일이라는 가정 속에서 내담자들은 자신의 고통이 매우 특수하며 이상한 것이라는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다. 혹은 다른 레즈비언과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자신은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상담자가 생각하는 레즈비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맞지만 사회가 혐오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부정적으로 말해지는 집단에 속해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긍정하는 일은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앞으로의 삶을 탐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는 내담자에게도 이러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레즈비언 경험을 하고 있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 놓았을 때 상담자는 무엇보다 동성애에 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과 교체하는 일이 절대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사항은 레즈비언 상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안인 동시에,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는 여성도 레즈비언인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입장과 상황에 처해 있다. 가령 십대인 내담자도 있고 결혼한 이후에 탐색에 임하는 내담자들도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레즈비언에 대한 바른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정체화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여유 있게 탐색할 수 있는 정신적 유대감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2.1.3. 지인 상담: 레즈비언 혹은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 중인 여성의 지인

지인 상담은 레즈비언, 혹은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 중인 여성을 지인으로 둔 내담자가 요청한 상담이다. 내담자는 레즈비언일 수도 있고 탐색 중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레즈비언이 아닌 사람들이 내담자일 경우이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레즈비언에 대한 호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지인과 관계를 맺는다면 서로가 겪어야 할 심리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내담자 중에는 지인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인정하며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지지 욕구를 받아들이되 당사자의 어려움을 대신 겪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시키며 내담자가 지인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어야 함을 피력한다. 반면 레즈비언인 지인을 참을 수 없어하며 혐오를 감추지 않는 내담자의 수도 상당하다. 또 지인에 대한 감정적 성적인 호기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담자가 이들과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레즈비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레즈비언 당사자에 대한 분노 보다는 지인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분노하고 동성애자는 창피거나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내담자에게 정

보를 주거나 독려하는 장면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전통적인 상담 방식의 연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혐오적인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2.2. 상담자

상담은 내담자의 현실을 토대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상담자의 배경이나 가치관 등 상담자의 현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수평적 구조를 지향하는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는 상담자의 말의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주지시키며 내담자의 자긍심을 북돋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익혀야 한다.

레즈비언 상담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질 중 하나가 상담자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레즈비언 상담자들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여의치 않은 사람도 많을뿐더러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단은 무리다. 레즈비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 자신의 동성애혐오증을 점검하고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우리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감수성이다. 다음의 분류는 상담자의 정체성에 따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2.2.1. 레즈비언

상담 기관의 종류나 분위기에 따라 레즈비언인 상담자는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레즈비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우호적인 상담을 드러내놓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레즈비언 상담자의 경우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상담자가 자신을 어떻게 위치지우며 상담에 임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어야 하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구체적 경험에 직면했을 때 당사자들의 유대감을 표현할 수 없어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

상담자는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커밍아웃을 한다면 레즈비언 경험을 한/하고 있는 내담자와 공유할 수 경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통으로 지닌 레즈비언 정체성을 기반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더욱 섬세한 감수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즈비언인 상담자라고 해도 내담자의 상황을 모두 알거나 전부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매맞는 여성인 상담자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인 내담자의 문제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레즈비언 정체성을 공유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도 다른 가치관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 자신의 문제로는 커밍아웃을 했을 때 해당 상담소에서 상담 활동 자체를 차단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커밍아웃 했을 때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동료 활동가들

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적대감과 거부감을 갖고 레즈비언 상담자를 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밍아웃을 원하는 상담자가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물색해 본 뒤에 천천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상담자 자신이 느끼는 고립감과 답답함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레즈비언 정체성을 드러내지 하지 못/안 하거나 보류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혐오적인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 레즈비언인 상담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드는 사회에 분노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며 상담에 임할 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내담자와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레즈비언 우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2.2. 비(非)레즈비언

비(非)레즈비언 상담자가 레즈비언 상담에 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성애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온 내담자가 레즈비언이 아닌 상담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또 다른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레즈비언 상담자 혹은 레즈비언 지인과 유대감을 나누는 일도 레즈비언 당사자의 격려를 복돋는 좋은 방법이지만, 레즈비언이 아닌 사람이 레즈비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자신을 이해한다고 여겨질 때 레즈비언 내담자는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지인 상담에서도 비슷하다. 레즈비언이 아닌 상담자가 레즈비언에 대한 우호적이며 올바른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시할 때, 내담자는 레즈비언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상담자도 자신처럼 레즈비언이 아님에도 동성애와 레즈비언에 대해 자신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담자로 하여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2.3. 내담자와 상담자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공유하는 제 3의 현실이 있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동안 내담자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 자체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 볼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술과 침묵의 사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담자의 고민을 자신의 기준으로 분석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수칙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균형 감각이 흐트러져, 상담자의 말이 내담자에게 절대적인 신호로 다가가거나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되기가 쉽다. 이러한 의존은 내담자에게도 상담자에게도 좋은 상담 과정과 결과를 낳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이 신이 아니며 대화의 주제

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담자라는 것을 숙지하고 주지시키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사이버 상담에서도 해당된다. 일방적으로 고민을 털어놓고 답변을 하는 상담 방식에 있어서도, 상담원은 내담자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3. 레즈비언 상담의 기본 전제 및 목표¹¹⁾

3.1. 레즈비언 상담의 전제

3.1.1. 여성주의

여성주의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침묵시키는 사회의 통념 및 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러모로 열등한 존재라거나 여성의 생리 현상은 부정을 초래한다거나 여성의 근본 역할은 재생산(출산)에 있다거나 하는 등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적 통념 및 고정된 성역할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며, 공고히 한다. 그러한 통념이 지배해 온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를 온당히 구제받기보다 그 성폭력을 자초한 부도덕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고, 해묵은 가정 폭력을 간신히 입 밖으로 꺼내었을 때조차 가정을 파탄 내는 주범으로 몰리기 십상이었으며, 조금이라도 영민하거나 지혜가 뛰어나면 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처단되기 일쑤였다. 이렇듯 과거형으로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의 예로, 화려한 화보와 광고로 매달 구매욕을 자극하는 여성 패션 잡지들이 비혼 여성들의 섹스 라이프와 관련된 난을 무척 ‘개방적’인 내용으로 꾸미고 있는 한편으로, 수많은 비혼 여성들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에 다름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기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생각의 틀을 쉽게 갖기가 어렵다. 자신에게 가해진 차별과 폭력에 분노하고 맞설 구체적인 대안들과 그러한 과정을 뒷받침해주는 지지 체계를 갖기도 만만치 않다. 레즈비언도 여성으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부딪쳐 이겨내기도 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간다. ‘여자답다’는 건 곧 남자에게 어필하는 소위 ‘여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이성애주의다. 여자는 당연히 남자에게, 남자는 당연히 여자에게 끌린다고 여겨지므로 ‘여자답다,’ ‘남자답다’는 표현 속에는 그러한 고정된 성역할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라도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하며 이성이 바라는 이미지와 행동거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통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사회의 거부감과 비난이 여성에 대한 편견 및 통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임을 확인케 해 주는 사실이다. 하기에 레즈비언 상담은 이와 같은 사회의 통념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작업일 수밖에 없다. 레즈비

11) 『2008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자료집』 중 「레즈비언 상담의 기초(김윤서이)」

언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이 바로 레즈비언 상담이기 때문이다.

3.1.2. 반이성애주의, 반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이성애주의란 사랑, 교제, 성관계, 혼인 등은 이성 간에 이루어질 때라야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관계의 형태라는 통념이다. 이 통념은 현재의 모든 도덕관념, 법체계, 제도에 당연하다는 듯 전제됨으로써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청소년기는 2차 성장이 생기고, 이성에 눈뜨는 때,’ 라는 교과서의 표현 속에서 동성애자의 정체성 발달 과정 같은 건 그 자리를 잃기도 전에 아예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것이며, 성인이 된 이가 ‘적령기’에 이성과 혼인하는 것이 예와 하나 다를 바 없이 ‘인륜지대사’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 ‘대사’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은 어딘가 안쓰럽거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일쑤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상의 대화 자체가 속속들이 이성애주의에 물들어 있다. 일례로, 너무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질문. 여자에게: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에게: “여자친구 있어요?” 또한, 지독히 만연한 짝짓기 문화. 여남이 섞여 놀거나 일하는 데에서는 웬만하면 섞어 앉히려는 등, 여남을 엮으러기에 바쁘다. 그런 분위기를 불편해하면, ‘내외를 한다’고 재단해 버리기도 부지기수.

이성애주의는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비가시화 한다. 나와 관계있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고, 이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동성애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 속에서 입을 닫거나, 거짓말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이 만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동성애자 정체성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애주의 속에서 분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피로와 갑갑함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성애주의는 곧 호모포비아라고도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보는 시각 속에서 동성애, 양성애 등은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성애주의는 즉, 이성애가 아닌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거부감을 조직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성애 자체가 차별을 만들어 낸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이성애주의는 호모포비아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볼 수 있다. 호모포비아는 실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상담소>의 인권정책팀이 발간한 『호모포비아 어록』(2007)의 목차는 그 다양한 형태를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1. 혐오, 역겨움 2. 정신병, 연민 3. 종교 4. 자연, 사회 질서에 역행 5. 연애와 섹스에 목매다는! 6. 원인설 7. 성병, 에이즈 8. 레스보포비아 9. 동성애는 한 때 10. 동성애자 당사자의 혐오 내면화 11. 외모 12. 이성애 중심주의 13. 레즈비언=페미니스트 14. 기타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동성애의 원인을 규명해 치료법을 찾으려 했던 기존의 정신의학적 접근, 전통심리치료적 접근 등도 모두 호모포비아가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사

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허나 레즈비언 상담은 이성애주의의 전제와 모든 호모포비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성애주의에 사로잡혀 온갖 호모포비아에 신음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레즈비언이 최대한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부당한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이성애주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호모포비아를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게 레즈비언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다.

3.2. 레즈비언 상담의 목표

①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는 정보 제공

최근 들어, 영화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되고, (주로 해외의) 동성애자들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표면적 지표만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담소>로 상담 요청을 해 오는 수많은 내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게 된 자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다. <상담소>는 1994년도에 생긴 단체이다. 십오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단체의 활동가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접해 왔다. 이로써, 지난 십오 년간 동성애자,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급격한 성장, 관련 단체의 활발한 활동, 관련 행사의 눈에 띄는 증가 등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동성애와 관련된 편견 없는 정보는 아직 굉장히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상담 과정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들을 내담자가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담 종료 이후에도 내담자가 동성애, 레즈비언 정체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독려하고 그 방법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이들이 정체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도, 더 무거워지기도 한다는 점 또한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관련 사이트, 친목 모임, 도서, 영화, 음악 등을 소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겠다.

② 레즈비언 자긍심 증진

이는 당연히도 레즈비언 상담의 기본 전제이자 최종 목표와도 같은 일이다. 레즈비언의 자긍심은, 간단히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레즈비언을 둘러싼 많은 상황과 조건이 레즈비언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숨게 하고, 자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 존재감을 소중하게 인식하기란 녹록치 않은 일이다. 레즈비언은 최악의 경우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다 고립될 수도 있다. 레즈비언 상담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레즈비언들로 하여금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고, 겁먹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드는 조건 자체를 문제 삼게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레즈비언이 힘들고 괴로운 게 레즈비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탓이라는 점을 내담자의 마음속에 또렷한 사실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작업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③ 레즈비언 네트워크 형성

레즈비언 활동가들과 레즈비언 커뮤니티 사람들이나 레즈비언 친구들을 여럿 알고 지내는 인권 단체 활동가들은 이따금씩 한 명의 레즈비언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잠시 망각하게 되기도 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내 주위 레즈비언들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지금에도, 어떤 레즈비언들은 이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이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만큼이나, 내담자들을 레즈비언들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격려하는 일 역시 레즈비언 상담의 주요한 역할이다. 가령, <상담소>로 이십년 넘게 자기 정체성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레즈비언이 연락을 취해 왔다고 하자. 그녀는 이제까지 단 한 명의 레즈비언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하였다. 그녀가 최초로 대화를 레즈비언은 <상담소>의 상담원이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지 않고 상담자-내담자 관계만을 형성할 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네트워크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긴 시간 고독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내담자에게 충분한 관계의 자원이 되기 어렵다. 그녀에게는 좀 더 많은 레즈비언들과 만나 그녀들로부터 지지받고 격려 받으며 그녀들과 어울리는 경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까지 보다 따스하게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 오랜 고립으로 오히려 홀로 지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하는 내담자도 많다. 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간곡하게 당부해야 한다. 같은 레즈비언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나의 심리적인 안정과 자유에 힘이 되는지를 말이다. 미유넷www.miunet.co.kr이나 티지넷www.tgnet.co.kr 등의 레즈비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보나 다음www.daum.net의 카페 등에서 이반 모임 검색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내담자와 나누자. 그리고 인터넷 접근도가 낮은 연령층이나, 인터넷상의 활동에 익숙지 않은 내담자들에게는 오프라인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친목 모임을 소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④ 레즈비언의 지인들의 레즈비언에 대한 이해 고취

당사자의 지인들도 레즈비언 당사자만큼이나 동성애에 대한 편견 없는 정보와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온 경우가 무수하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본인이 그러한 고민을 직접 할 계기조차 갖지 못했기에 동성애와 레즈비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계기 또한 특별히 가져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들이 내보이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우려, 왜곡된 상상 등은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잘못된 느낌들을 갖는 게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만 말이다. 레즈비언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지인들이 지닌 호모포비아를 지적하고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에 앞서 이들 내면에 호모포비아가 뿌리 내리게 된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들의 분노, 공포를 다독이며 이들로 하여금 레즈비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도록 상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호모포비아들을 만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말싸움을 벌여도 사실 무방하다. 그렇게 하고 나면 통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자. 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들

가까이 있는 레즈비언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⑤ 레즈비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 정보, 법률 정보 제공

손가락 콘돔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냐는 질문서부터,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의사가 진료하는 정신과가 혹시 있는냐는 질문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기혼 레즈비언의 질문에 이르기까지, 레즈비언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내용도 무궁무진하다. 어디에 가면 나와 같은 레즈비언을 만날 수 있는지, 하는 질문도 지금껏 상담의 단골 내용이다. 내담자가 얻길 원하는 정보 중에는 상담자가 그것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책임감 있게 관련 정보를 알아 본 뒤, 내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⑥ 각종 폭력의 피해자인 내담자의 경우 사건 지원

(*주제별 상담 3.의 강의안을 참고하자.)

4. 레즈비언 상담의 기법¹²⁾

4.1. 평상시에

-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 ①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 ②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국면들에 대해 학습한다.
- ③ 여성, 레즈비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국내외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는다.
- ④ 한국 사회의 레즈비언 커뮤니티, 레즈비언 권리 운동 및 전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 학습한다.
- ⑤ 여러 상황에 각각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담 기법 학습 및 응용을 일상화 한다.
- ⑥ 동성애 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한다.

- 레즈비언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

- ① 자기 자신이 내면화 한 채 어느새 자기 검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를 이성애주의와 호모포비아에 대해 항상 성찰한다.
- ② 여성으로서, 레즈비언으로서 겪은 차별의 피해와 폭력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 치유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아무리 나와 같은 레즈비언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또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12) 『2008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자료집』 중 「레즈비언 상담의 기초(김운서이)」

- ④ 자신과 같은 레즈비언인 상담원들과 함께 레즈비언 상담의 방법 및 기술에 대해 토의하고 연구한다.
- ⑤ 레즈비언 상담을 하고 있는 비(非)레즈비언 상담자들과 교류하며 고민을 나눈다.
- ⑥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 비(非)레즈비언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

- ① 다양한 레즈비언 및 레즈비언인 상담자와 폭넓게 교류하며 이들의 경험을 듣고, 배운다.
- ② 여성일 경우, 성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 역시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③ 남성일 경우, 남성 상담자가 여성과 레즈비언을 상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자각하고 여성과 레즈비언이 남성 상담자를 불편해하고 꺼릴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한다.
- ④ 본인 스스로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 중인 여성이라면, 자기 탐색 과정이 레즈비언 상담을 학습하는 과정과 맞물리도록 한다.
- ⑤ 게이일 경우, 레즈비언들과 게이들 간에 경험 상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차이의 지점들에 섬세하게 접근하는 시각을 기른다.

4.2. 상담 장면에서

-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 ① 내담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자가 대신 선택해주거나 결정 내려주기보다 내담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결정을 내리는 데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③ 지면으로나 통화 상으로 혹은 대면 상 내담자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고 해서 내담자에게 갑갑함을 표현하거나 재촉하지 말고 참을성을 가지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대한다.
- ④ 폭력의 피해자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어떠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내담자를 탓하지 말자.
- ⑤ 호모포비아를 철저히 내면화 한 내담자의 인식을 단박에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 ⑥ 지인 상담을 할 때 그 지인이 아무리 심하게 폭력적인 호모포비아를 드러내더라도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침착하게 대응한다.
- ⑦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밀함의 수위를 잘 조절한다.
- ⑧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드는 사례일 경우,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상담자에게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⑨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 줄 수 없는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지 말자.

- 레즈비언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

- ① 극심한 호모포비아 및 자기 학대의 모습을 보이는 레즈비언과 만나게 되더라도, 상처받기 보다는 그녀로 하여금 그토록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만든 사회의 편견에 분노하고 그녀와 함께 현실의 부당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상담자가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경험 혹은 내담자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실제로 겪어 보았다거나 내담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사례를 많이 접해 보았다는 이유로, 내담자의 고민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레즈비언 내담자와 상담 과정 중에 교제관계로 진입하거나 성적인 상호 작용을 하게 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 ④ 자신이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는 과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커밍아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바에 대해 내담자에게 적절하게 개방한다.

- 비(非)레즈비언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

- ① 상담자가 비(非)레즈비언이라 내담자와 신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담자가 동성애 및 레즈비언 정체성에 우호적인 비(非)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양 측면을 다 인식한 상태로 상담에 임한다.
- ② 내담자를 자칫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 본다.
- ③ 내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④ 호모포비아가 강한 지인 상담을 할 경우 그들의 논리에 휘둘려 그 상담의 내용에 등장하는 레즈비언 당사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의 상담이 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기울인다.

4.3. 상담 종료 후

-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 ① 상담을 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 ② 상담을 한 내용의 비밀 보장 원칙을 지킨다. (모니터링을 위해 상담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게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내담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 ③ 상담 중 미처 깊이 다루지 못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 심화시킨다.
- ④ 동료 상담원 혹은 ‘상급’ 상담원과 모니터링 및 슈퍼비전 작업을 하여 평가를 남긴다.
- ⑤ 향후 이와 유사한 내담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고 메모해 둔다.
- ⑥ 해당 상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레즈비언 권리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운동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

- 레즈비언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

①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힘들었던 점, 안타까웠던 점, 슬펐던 점, 기뻐던 점 등을 정리해 둔다.

② 본인 자신이 레즈비언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 아직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가 상담 과정을 통해 발견되었다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방법을 모색한다.

- 비(非)레즈비언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

①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 중인 상담자라면, 자신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을 내담자가 들고 와 상담이 어렵게 느껴진 부분은 없었는지 검토해 본다.

② 이성애자 상담자라면, 상담 과정에 방해가 될만한 호모포비아를 자신이 은연중에 드러낸 바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5강> 주제별 상담 1: 레즈비언 정체화 과정 (부제: 성정체성 상담하기)

김윤서이 (케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 들어가며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로 접수되는 내담 사례 중 상당수가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의 여러 가지 계기들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¹³⁾ 이미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 규정한 이들이 자신의 정체화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적기도 하고,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성정체성 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의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과 욕구들을 느끼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거나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레즈비언인가” 하고 묻거나 한다는 것. 이렇게 내담자들이 털어놓는 정체화 계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별로 달라지는 지점도 무수히 많다.

그리하여 <상담소>의 상담자들은 새로운 성정체성 고민 상담 사례를 마주할 때마다, 지난한 레즈비언 정체화 과정에 대한 또 하나의 인생사를 접하게 된다. 이메일과 게시판으로 들어 오는 상담일 경우에는, 내담자가 남긴 글이 그 자체로 귀한 정체화 기록이 되며, 전화나 면접으로 진행되는 상담일 경우에는 내담자가 하는 말이 그 자체로 구술사가 되는 셈이다. 물론, 비밀 상담의 원칙으로 인해 이 내담 사례들을 곧장 레즈비언 정체화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로 만들어 활용할 수는 없지만,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상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에 녹아 들며 같은 시대와 공간을 사는 비슷하면서 또 다른 이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이런 측면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리해 보지는 않았어도, 이쯤에서 “<상담소>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더불어 호흡하는 상담을 지향한다”는 말로 간추려 봐도 좋겠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경험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어떤 난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함께 호흡하기 위한 긴장감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 년간의 상담 활동을 통해 배워왔다.

정체화 과정 중에 있는 내담자들의 상당수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 그리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등을 긍정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나 레즈비언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이들은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패배자라고 여기며, 동성애자로 살고 싶지 않아하고, ‘평범함’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으며 절망한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는 단계까지의 자기 긍정은 해 낸 내담자들조차, 자기가 동성애 혐오적인 이 사회에서의 미래를 과연 버텨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한숨짓는다. 이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러내며 타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숨긴 이중 생활에 지쳐하며, 자신을 이해해 주는 이 아무도 없이 평생 고독하리란 생각에 암담해 한다.

그렇기에 정체성 상담은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기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한다. 고정된 성역할 구분과 이성애 규범을 벗어난 모든 성적 표현 및 정

13) <상담소>의 2008년도 전체 상담 건수 중 “성정체성”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9%(전체 460건 중 172건), 2007년도 전체 상담 건수 중 “성정체성”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39.26%(전체 517건 중 203건)으로 다른 어떤 상담보다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는 매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경향으로, 성정체성 고민을 시작한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 탐색의 과정을 홀로 거쳐 나가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한다. (현재 언급하고 있는 2007, 2008 통계는 두 해 상담 기록을 1차 집계한 결과로 오차 범위를 수정한 2차 집계 결과의 수치는 지금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체성에 대해 낙인을 찍으며 두려움과 혐오감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규범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 나가야 하는 이들이 겪을 고충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상담자의 몫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름 붙이고 -다른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길에,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조력자 노릇을 하는 존재일 수 있어야 한다.

1. 레즈비언 정체성 상담

1) 성정체성 상담

레즈비언 상담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정체성 상담을 잘 하려면, 당연히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터이다. 레즈비언 상담의 기타 여러 가지 주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성정체성 고민 문제를 깊이 편견 없이 이해하는 건 기본 과제와도 같다.

① 성정체성(sexual identity)

성정체성이란 내가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 끌리는가와 관련된 정체성이다. 크게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로 분류할 수 있다. 동성애가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성애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면 자기 안의 그러한 감정과 욕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이 동성애자이다. 동성의 상대에게도 끌릴 수 있고, 이성의 상대에게도 끌릴 수 있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양성애자이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각각의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려면 여느 사람들과 다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정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이성애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이성애자로 규정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학습되고 권장되는 유일한 성적 지향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성애자로 살아간다. 굳이 이성애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지도 않는다.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정체성과 지향이 단순히 ‘성애적’인 측면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 단락의 초반에 언급했듯,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성애적인 이끌림과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 행위’ 그 자체로 환원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이성애에 다채로운 형태의 감정과 욕구가 존재하듯, 동성애와 양성애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를 동성간의 ‘성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동성애를 문란한 성 행위쯤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인 편견과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내가 끌리는 상대방의 성별이 나와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라면, 성별 정체성은 내가 나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태어나서 부여 받은 성별과는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이들을 광범위 하게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하리수씨는 남성 성별을 부여 받고 남자로 길러졌지만, 본인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여자로 살아 온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그

너는 이성과 사랑하여 혼인해서 살고 있으므로 현재 그녀의 성정체성은 이성애자이거나 어쩌면 양성애자이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흔히 ‘남자 같은 여자’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이고 ‘여자 같은 남자’가 게이(남성 동성애자)라는 편견 때문에 더욱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똑같은 종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자신의 성별(하리수씨의 경우 여성으로서의 성별)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고정된 특징들을 특별히 눈에 띄게 부각시키고자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많다. 헌데 그렇다고 해서 레즈비언 중에 ‘남자 같은 여자’가 없고 게이 중에 ‘여자 같은 남자’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는 각각 레즈비언과 게이와 다양한 모습 중 일부이다. 다만, ‘여자 같음/남자 같음,’ ‘여자다움/남자다움,’ ‘여성성/남성성’ 등의 이분법이 이제까지 무척 자의적으로 규정되고 모두에게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억압적으로 작동해 왔다는 점은 늘 함께 고민돼야 할 지점이다.

이상은 성정체성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가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내담자는 왜곡된 정보 및 관련 정보량의 턱없는 부족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통념을 고스란히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자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잘 숙지한 상태에서 내담자를 대하여 내담자와 동성애(및 양성애)에 대한 편견없는 정보와 가치관을 나누는 게 좋다.

② 성정체성 상담의 기본 과제

내담자들은 정체화 단계에 따라 저마다 다른 종류의 고민을 털어놓곤 한다. 동성애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지곤 하나 그 방식들은 대체로 유사한 세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 자신이 동성의 상대에게 끌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으며 혼란을 느끼는 정체성 탐색 초기 단계를 지나,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체화를 하기는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단계를 거쳐, 동성애자로 정체화를 하고 자기 긍정을 하며 지내다가도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리한 삶의 조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단계에 이르는 구도로 말이다.

상담자가 내담자가 하고 있는 정체성 고민의 수위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게 되면 그 수위에 걸맞는 내용의 상담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는 성정체성 상담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가령, 자기 감정이나 욕구 또는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내담자에게는 동성애와 관련된 개념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감정과 욕구는 직면하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는 그 감정과 욕구가 있는 그대로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정체화를 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내담자와는 내담자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살펴보고 일상 생활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긍심을 지켜내는 방법을 더불어 모색하는 작업을 해야 할 터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가 털어놓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담자의 정체성 발달 단계를 기계적으로 나누기 위해 애쓰지는 않아도 괜찮다. 정체성 발달은 일직선으로 쭉 전진하는 것이라기보다 나아갔다 도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나아가기도 하는 되풀이의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내담자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가 불분명 하더라도 그 고민의 초점만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좋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수행해야 할 동성애자(및 양성애자) 성정체성 상담의 기본 과제이다.

- 내담자가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수치스러워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돕는다.
- 동성애를 경험하며 정체성 탐색 과정에 들어선 내담자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보살피게 한다.
- 정체성 탐색은 어느 누구도 내담자 대신 해 줄 수 없는 일이기에 내담자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고 그 과정을 돕는다.
- 정체성 탐색은 반드시 청소년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내담자가 자신의 나이 대가 주는 압박에 더욱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자신을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이름 붙이는 작업 자체가 시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어 내담자가 자기 페이스에 맞게 서둘지 않고 천천히 고민해 나갈 수 있게 돕는다.
- 내담자 자신이 동성애자(혹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을 괴롭게 만든다는 죄의식을 벗어나게 돕는다.
- 사회로부터 낙오될 것이라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 내담자는 혼자가 아니고 수많은 동성애자(혹은 양성애자)들과 언제든 교류하며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 내담자는 무시당하고 차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 받고 권리를 보장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믿도록 돕는다.
- 동성애(혹은 양성애)는 죄도 아니므로 처벌의 대상이나 비판의 대상일 수 없으며, 질병이 아니기에 치료나 교정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는 점을 내담자가 확실히 인식하게 돕는다.
- 내담자가 자기 정체화 계기를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게 독려하되, 결정적인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는 불필요함을 설득한다. (각종 유전적, 환경적 원인설은 동성애의 치료 가능성을 전제하는 호모포비아적 담론이다.)
- 내담자가 동성애자(혹은 양성애자)에 차별적인 사회 환경 및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이성애주의(heterosexism)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조건을 헤쳐 나갈 자기 나름의 요령과 대처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게 돕는다.
- 호모포비아(homophobia)로 인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상해 보고 그러한 일을 직접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며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본 과제들을 요약하면, 성정체성 상담의 기본 과제는 내담자가 자기 안의 내면화된 호모포비아를 깨고, 사회의 호모포비아에 맞설 내적 역량을 기르며,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정체성 탐색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돕는 데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

성정체성 내담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천차만별로 갈라져 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다. 자기 정체성을 상담자에게 묻고 확인하려 한다던가, 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싶어 조급해 한다던가, 오직 자기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 한다던가 하는 모습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해 오는 내담자 중 상당수가 보여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공히 시달리기 마련인 이러한 답답함과 불안함을 이해하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성정체성 고민의 특정한 장면들에 대한 이해 및 준비를 심화시키기는 것과 동시에 늘 성정체성 상담을 위한 기본 자세를 점검하고 다져나가야겠다. 다음 사항들은 성정체성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에게 전제돼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① 편견과 혐오를 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담은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데 실망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상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동성애자 및 여러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걷어 낸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내담자와의 기초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노력이라 하겠다. 피해야 할 낱말들로는, 호모, 변태,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등이 있다. 물론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 낱말들을 언급하게 되겠으나 실제로 이런 낱말들을 사용하여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등의 태도는 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간혹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로 편견이 섞인 낱말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낱말들 외에 내담자를 지칭할 수 있는 편견없는 낱말들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전달한다. 혼계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내담자가 미처 갖고 있지 못했을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내담자가 풀어내는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을 우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내담자의 정체화 이야기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의 서사일 수도 있고, 이성애에 대한 선망의 서사일 수도 있다. 이 때 상담자는 어서 내담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 조급한 심정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성정체성 상담을 요청해 온 내담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고민을 털어놓아보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하기에 내담자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들에게 이제까지와는 달리 존중 받고 이해 받는 경험을 하게 해 줄 수 있다. 내담자가 내면화 하고 있는 호모포비아를 줄여 나가는 작업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난 뒤 내담자의 고민과 갈등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줄이는 게 정체성 상담의 목표라는 점은 분명하나, 그러한 이유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중간에 자르거나 내담자를 가르치려 한다면 오히려 내담자는 위압적인 느낌을 받고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본인이 직접 레즈비언 정체성을 고민하는 중이면서도, 다른 레즈비언들이나 레즈비언 커뮤니티 일반을 싸잡아 혐오스러움을 표현하는 내담자 또한 존재하나, 이런 경우에도 내담자가 그토록 호모포비아를 내면화 할 수밖에 없었을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상담을 출발해야 한다.

③ 내담자의 성정체성을 규정하거나 진단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과 욕망을 해석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해 나가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내담자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그 문제의 해결을 돕는 조력자이어야 하지, 내담자 대신 내담자가 부딪친 난관을 해결해 주거나 내담자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주는 대리자여서는 곤란하다. 상담 활동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인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 강화는 성정체성 상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성정체성 고민을 시작하고 그만큼 다양한 경험의 곁을 타고 정체화 과정을 거쳐 간다.

이 때 상담원의 역할은 내담자가 그러한 자기 탐색 과정을 충실히 거치며 자기 내면을 면밀히 살피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저

는 레즈비언인가요?” 이처럼 명백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다면 당신은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 그보다는 내담자에게 그러한 문제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편이 더 유익한 상담 전략이다. 여자를 좋아하는 경험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지 등을 두루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다른 정체화 사례들을 소개해 주며 내담자로 하여금 참고하게 하는 것도 좋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면 내담자는 그 중 자신의 경우에 알맞은 사례를 골라 참고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특정 사례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여러 모델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자기 탐색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체체성 탐색이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건 새로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빨리 결론을 지으려고 서두르거나 굳이 나중에 미루거나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나 스스로 감당 가능한 만큼씩 고민하며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점도 알려주도록 하자.

④ 내담자가 기댈 수 있는 양질의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시작된 불과 15~6년 전까지만 해도 정체체성을 고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할 만한 정보들이 태부족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반 커뮤니티의 확장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얻을 경로가 다각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보는 부족하고 이는 수많은 정체체성 탐색자들을 자기 긍정이 아닌 절망으로 몬다. 그렇기에 정체체성 상담에서 절대로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정보 제공이다. 이성애에 대한 정보는 도처에 있는 반면 동성애(혹은 양성애)에 관한 정보는 아직도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정체체성 상담 장면은 이성애 중심의 기존 사회의 편향된 정보들에 대한 대안적 정보들을 나누는 새로운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평소에 정체체성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정보들을 시시때때로 갈무리해 두고 자신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내담마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내담자의 정체성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만한 커뮤니티,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들도 항상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다. 해외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동성애자 인권 운동, 동성혼 현황 등도 알아 두면 좋다. 이제 막 정체성 고민을 시작한 내담자들은 뭐든지 궁금하다.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부터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⑤ 정체체성,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자기 안의 편견, 통념, 차별 의식, 혐오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을 깨어 나가도록 노력한다.

상담자는 이성애주의, 가부장제를 비롯하여 호모포비아(homophobia동성애 혐오), 트랜스포비아(trans-phobia 트랜스젠더 혐오), 부치포비아(butch-phobia 부치 혐오), 바이포비아(bi-phobia 양성애자 혐오) 등 정체체성 상담이라는 주제와 직결되는 여러 ‘포비아(혐오)’들에 대한 성찰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동성애자건 양성애자건 이성애자건, 트랜스젠더건 비트랜스젠더건 간에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사회의 규범이 강제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 및 이성애주의에 물들어 살아간다. 그렇기에 정체체성을 고민하는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고통스럽고, 그러한 고민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규범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험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리고 가령 동성애자라는 이유만

으로 다른 동성애자들의 다층적인 경험을 폭넓게 알고 있다거나, 양성애자의 경험 혹은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깊이 이해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성정체성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내면화 돼 있을 편견, 통념, 차별 의식, 혐오를 부지런히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이 내면화 하고 있는 규범을 성찰하지 않는 상담자는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내담자에게 열린 선택지들을 제시하는 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급한 ‘포비아(혐오)’들을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호모포비아: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혐오감.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사랑, 교제, 섹스의 형태라는 편견과 맞닿아 있다.
- b. 트랜스포비아: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혐오감. 생물학적, 해부학적 성과 성별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는 통념 및 성별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생각하길 당연시하는 태도.
- c. 부치포비아: ‘남자 같은’ 레즈비언을 여성으로서의 자기 긍정을 못한 존재로 혹은 이성애적 관습에 얽매어 있는 반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편견.
- d. 바이포비아: 양성애자를, 언제든 이성애적 규범 안에 안전하게 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채 흥미 위주로만 동성과 교제하거나 섹스하는 존재, 즉, 문란한 기회주의자로 보는 편견.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 핵심적인 지점만 추려 언급했다. 상담자가 경계해야 할 편견들이 외에도 부지기수이겠으나 (예: 장애, 학력, 계층, 인종 등과 관련된 편견들) 성정체성 상담에 임할 경우 최소한 이 네 가지 ‘포비아(혐오)’에 대한 긴장감은 기본적으로 늦추지 말아야겠다. 성정체성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들이 털어놓는 경험의 폭은 굉장히 넓으며 그 내용 또한 무척 방대하고 복잡적이다. “나는 여자로 길러진 사람인데 여자가 좋다”는 고민을 둘러싼 개개인의 구체적인 괴로움과 갈등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상담자가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들 사이에서 어떤 걸 취해 어떻게 정체화 해 나갈지는 온전히 이들의 몫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원은 여러 갈래의 정체화 방식들을 내담자에게 일러 줌과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정체화를 하든, 그 자체로 지지 받고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레즈비언 정체성 상담의 내용

레즈비언 정체성 상담의 내용은 아마도 내담자의 수 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양하게 변주되면서도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상담 주제 몇 가지를 짚어 본다. 이하 제시되는 사례들은 실제 내담 사례에 포함돼 있는 말들을 각색하고 다듬어 신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내담글을 각색만 거쳐 신기도 하고, 여러 내담글을 섞어 새로운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내담글에 담긴 원래의 표현들은 글쓴이의 개성이나 글 쓰던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채 정돈되지 않았거나 훨씬 적나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기에 내담자가 사용하는 어투나 특정한 낱말들로부터 내담자의 마음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래 사례들은 각색된 것이다 보니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① 연령별, 비혼/(이성과의) 기혼 여부별 정체성 고민

성정체성 고민을 털어놓는 내담자의 범위는 초등학생부터 중장년 층에 이르기까지 그 범

위가 무척 넓다. 한 사람이 겪는 시간으로 치자면 거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범위이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십대들은 십대대로, 사회 초년생들은 그들대로, 삼십 대를 거쳐 사십 대로 접어드는 이들은 이들대로, 노년을 바라보는 이들은 또 이들대로 제각기 현재 처한 삶의 단계 및 일상의 조건에 따라 다른 식으로 정체성 고민을 하게 된다. 제도 결혼 상의 기혼자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들은 이성혼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던 와중에 자기 안의 변화를 깨닫고 지금의 삶을 다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힘들어 한다.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상담소를 찾는 이들의 넓은 연령별 범위와 비혼•기혼•이혼 등 결코 똑같지 않은 상태는, 성정체성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정해진 뒤 평생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계기로든 변화의 국면을 겪을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 준다.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기 일쑤인 십대 이반의 사례와 기혼자로서 성정체성을 새삼 탐색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의 사례를 살펴 본다.

a. 십대 이반

사례

- 친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사춘기라 한 때 이러는 걸까요?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아니면 내가 진짜 이반이라서 이러는 걸까요?
- 제가 이반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십대의 철없는 고민이라 여기지 마시고 정성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제 열아홉 살. 곧 성인이 됩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데, 빨리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반인지 아닌지.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살 지 계획도 세우고 하지요.
- 저는 이반이에요. 저도 여자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여자고. 제 자신을 부정하진 않아요. 나름 만족하니까요. 그렇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으면, 겁도 나요. 아직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니까..
- 여중을 나와 여고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닌가 싶어요. 성인이 돼서 남자들과도 섞여 살면 괜찮아질까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십대라고 해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사춘기라고 해서 그 때 느끼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려주어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 십대도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충분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내담자 스스로 믿게 돕는다. 이 때 상담원부터가 십대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해 믿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호기심 때문에 동성의 상대에게 끌렸다면 그 호기심을 채우고 키워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될 일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져도 괜찮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무언가가 아니라면 호기심을 갖건 진지하게 탐색하건 문

제될 게 없다.

- 레즈비언인지 양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일이 아님을 알려주어 내담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정체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작업부터 하나 하나 해 나가게 돕는다. 성정체성은 인생의 어떤 시기에건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그것을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확정지어야 할 이유란 없다는 점 역시 알려준다.

- 진짜 이반 정체성 또는 진짜 레즈비언 정체성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며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살피고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알려준다.

- 이반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내담자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는 무수한 레즈비언들의 다양한 삶과 끈질기게 이어져 가고 있는 레즈비언 운동, 동성애자 운동, 성소수자 운동에 관한 정보를 준다. 이반으로서의 삶이 어렵기만 하고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례들을 들며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 여자들만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이반이 된 것 같다는 내담자들에게는, 예를 들어,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도 줄곧 이성에게만 끌리는 사람도 있다는 반례를 통해, 여자들만 있는 환경이 레즈비언을 만들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공학만 다닌 사람들 중에도 레즈비언이 많다는 반례를 통해서, 단순히 이성과 어울려 생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사람의 성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

b. 기혼 여성

사례

-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녀도 내게 관심을 보입니다. 제가 여자와 사랑에 빠지다니..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아줌마인 제가 지금 이러는 게 정상입니까?

- 그녀와 온전히 삶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은 나무랄 데 없이 선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리며 위태롭게 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옳은 선택일까요. 이혼이 가능하기나 할 지..

- 저는 결코 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 태어나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두근거리는 감정도 처음이고요.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고 싶은데, 어렵기만 합니다..

- 전 제가 이반인데도 저 자신을 속이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 뒤로 그냥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디기 힘들군요. 간간히 마음이 간 여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는 거려니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이제는 특별히 누가 좋아져서라기 보다, 내가 나 아닌 채로 사는 느낌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고 싶습니다.

상담을 위한 도움말

- 성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 없이 누구나 하게 될 수 있

으며, 누군가의 부인이자 누군가의 어머니인 상태라고 하여 그러한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로 알려진 십대 시절에만 이러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이란 없다는 것.

- 법적 배우자인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랑에 빠져 교제 중이라면 그것은 현재의 규범, 통념 상 ‘외도’나 ‘불륜’ (법적으로는 ‘간통’)에 속하기 마련이고 이는 상대가 이성이건 동성이건 공히 적용되는 바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감정, 욕구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 성정체성 탐색 과정을 거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내담자의 몫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지금 이루고 있는 파트너십과 가정을 해소하고 자립하여 새로이 정체화 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새로이 정체화는 하더라도 지금의 파트너십과 가정을 유지하며 지낼지, 정체화 자체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의 일상을 살아갈지 결정하는 건 내담자 본인이어야 한다. 물론 어떤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감수해야 할 상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

- 내담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가치 판단 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부인 노릇, 어머니 노릇 등에 대한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관념들로 내담자를 재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②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들 사이에서 갈피잡기

내담자들은 한 번이라도 남자와 사귀어 봤으면 레즈비언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해 한다. 여자가 좋긴 한데 웬지 남자를 좋아하게 될 여지도 갖고 있다면 자신을 무어라 봐야 하는지 아리송해 한다. 자신이 ‘남자 같아’서 부치인지 트랜스젠더인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지극히 ‘여성스럽’고 좋아하는 상대도 자기와 비슷하다며 자기가 정말 레즈비언인지 헷갈려 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비(非)트랜스젠더 여성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정체성 문제는 성역할 규범이나 성별정체성 문제와 구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어떤 개인이 규범적인 여성성/여성다움이나 남성성/남성다움을 어떻게 얼마나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개인의 몸(생물학적, 해부학적 성)과 성별과 성적 지향이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느냐에 따라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일까, 레즈비언(동성애자)일까

사례

- 실은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줄곧 남자들을 좋아했고, 사귀면서도 썩 나쁘진 않았어요. 좋은 경험도 많죠. 그렇지만 여자에게 끌리는 강렬함의 정도가 남자들을 좋아할 때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내가 레즈비언인 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과거에 나를 좋았던 이성 교제 경험이 아예 지워지는 건 아니다 보니 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 좀 거꾸로 된 거 같긴 하지만.. 저는 십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자만 좋아했는데, 그래서 힘들게 이반으로 정체화 한 경험도 있는데, 이성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하지도

않았건만 최근 남자가 좋아졌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제게 바이 기질이 있는 것일까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어떤 사람이 바이섹슈얼이나 레즈비언이나를 판단하는 고정된 판단 기준이란 없으므로 결국 내담자 자신이 본인의 경험을 되짚어 보며 스스로 정체화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남자를 사귀어 본 경험 그 자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다. 아무리 남자를 여럿 사귀어 보았더라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할 수 있으며, 특정 인물로서의 남자를 좋아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더라도 바이섹슈얼로 정체화 할 수 있다. 자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갈무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

- 이반으로 힘들게 정체화 하는 경험을 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이성에게 끌리는 경험을 하게 된 내담자의 경우 그 혼란스러운 심정을 상담자가 같이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끌리는 감정 자체를 솔직하게 들여다 보며 새로이 자기 정체성 탐색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는 처음으로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는 경험을 하는 내담자를 도울 때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원인부터 찾으려 들기보다 감정과 욕구를 먼저 보살필 수 있도록 돕는다.

b. ‘남성성 혹은 남성다움 혹은 남자 같음’과 관련된 레즈비언 정체성 고민

사례

- 언제부터인가 여자를 좋아하는 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여자를 좋아할 자격이나 있는지.. 스스로 모자란 느낌에 시달립니다. 앞으로 사랑이나 해 볼 수 있을지. 남자가 아닌 내가, 남자가 될 수 없는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 저는 어릴 때부터 치마 입길 무엇보다 싫어했고, 머리도 항상 짧게 깎으려 했으며, 장난감도 남자애들처럼 총, 자동차, 로봇 뭐 이런 걸 갖고 놀았더랬지요... 그러다 좋아하게 된 사람도 여자. 내가 무슨 남자인 양, 여자 친구들에게 빠진 겁니다. 이런 게 레즈비언인 거 맞죠?

- 여자가 좋아요. 그런데 저도 여성스럽다면 여성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도 특별히 보이시하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이거나 비정상이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여자를 사랑할 자격이 남자에게만 있다거나 남자를 사랑할 자격은 여자에게만 있다거나 하는 것은 이성애주의와 호모포비아를 전제로 한 생각이다. 여자와 여자의 사랑, 남자와 남자의 사랑은 그 자체로 가능하며 그것이 이성애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내담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내담자가 풀어놓는 자신의 성장담과 정체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어떤 여성의 ‘남성적’인 면모와 그녀가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끌림 사이에는 생각만큼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짚어 줄 필요가 있다. ‘남성성/남자다움/남자 같음’을 지

닌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레즈비언인 것은 아니며 레즈비언들이 모두 ‘남성성/남자다움/남자 같음’을 자신의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내가 ‘남자 같은’ 여자인거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 같아’야지만 내가 레즈비언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려준다. 손에 꼽을 수 없이 다양한 여자들이 역시 그만큼 다양한 여자들에게 제각기 끌린다. 그 중에는 ‘남자 같은’ 여자와 ‘여성스러운’ 여자의 커플도 분명 존재하나 결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 여성성/여성다움/여자 같음과 남성성/남자다움/남자 같음 사이의 이분법은 그 자체로 자의적이고 억지스러운 구분이라는 점을 내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그 누구도 규범적 여성성이나 규범적 남성성에 정확히 들어맞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다.

c. 레즈비언(동성애자)일까, 트랜스젠더일까

사례

- 내 몸의 여성적인 특징들이 불편합니다. 가슴도 싫고, 생리하는 것도 싫고... 영 번거롭기만 하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생긴 몸을 갖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들곤 합니다. 남자의 몸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자신을 남자라고,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혼란스럽네요.

- 저는 제가 여자 몸을 잘못 타고 태어난 남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울리는 옷도 남자애들 옷, 좋아하는 것도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끌린 상대도 여자였지요. 제 자신이 남자나 다름 없다고 생각했기에 여자를 좋아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고민도 거의 안 했습니다. 트랜스젠더란 말은 몰랐지만 그 개념이 제 안에 없어서였을 뿐, 아마 그 말을 알았다면 그렇게 저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도 헛갈립니다. 이제까지 어울려 온 레즈비언 친구들은 제게 넌 그냥 부치라고 하지요. 저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 싶고요. 제가 부치인지 트랜스젠더인지 뭔지...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레즈비언인 걸까요, 이성애자 남자인 걸까요? 저는 대체 뭘까요? 답답하네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내 몸의 성적인 특징들을 불편하게 느끼는 양상을 내담자 스스로 찬찬히 관찰할 수 있게 돕는다. 상담자는 누군가가 자신이 지닌 여성 신체의 특징을 거북해 하는 이유는 무척 다양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남성 신체의 경우에 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내담자의 몇 마디 말만 가지고 이 사람이 ‘남성성’ 강한 레즈비언(부치)인지 아니면 FTM 트랜스젠더인지 구분해 내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정체화는 내담자 스스로 해 나가게 도와야 마땅하다. 타고난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도록 독려하는 편향이나 여성 신체에 대한 혐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편향 모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몸의 부대낌을 간과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후자는 여성 신체 및 여성 신체 특징에 대한 남성중심적 비하와 혐오의 요소를 묵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 b. 번에서 제시한 도움말들이 이 c. 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의 상대와의 성관계 시, 페니스가 없다는 점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페니스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고 만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신체기관이 아니며, 페니스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쾌락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함을 알려준다.

- 다양한 부치 정체화의 사례와 트랜스젠더 남성 정체화의 사례를 제시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 탐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확고한 정체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일러주며 혼란스러움을 찬찬히 풀어나갈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당부한다. 이 때, 트랜스젠더 당사자 모임이나 단체를 소개하며 내담자가 보다 많은 관련 정보를 접하게 독려한다. (예: 다음daum.net의 트랜스젠더 카페, 트랜스젠더 김비씨의 홈페이지<http://kimbee.net/>,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http://gendering.tistory.com/> 등등)

d. MTF 레즈비언

사례

- 보통 MTF면 당연히 남자를 좋아하는 줄로만 알죠.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꿈꾸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자가 좋아요. 트랜스인데다가 레즈이기까지...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 저는 수술을 안 한 MTF입니다. 여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완벽한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온전한 레즈비언일 수 없을 거란 생각,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 그러나 저는 몸을 바꾸기가 겁이 납니다. 진짜 바꾸길 원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성애로 표현하고자 성별을 바꾸는 존재라는 식으로만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당하다. 그러한 부당함을 내담자와 함께 나눈다.

- 내담자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트랜스젠더들이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격려한다.

- 온전한 레즈비언과 온전하지 않은 레즈비언, 진짜 레즈비언과 진짜가 아닌 레즈비언을 구분할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누군가가 레즈비언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성별과 성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

- 수술을 할 지 말 지의 문제는 본인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잘 모르겠을 때는 억지로 생각을 밀고 나가기보다 조금씩 생각해 나가고자 하는 여유를 가져도 좋다는 점을 알려준다.

- 왜 그런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느끼는 것과 좋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느낌을 우선 존중하도록 돕는다. 내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권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수술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이 자신의 성별에 완벽히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지 않아도 괜찮음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몸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꺼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③ 성애적 욕구와 정체성 탐색

동성의 상대에 대한 성애적 욕구는 성정체성 탐색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정체성 규정에 그것 자체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이들은 동성의 상대와의 성관계로 가득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성애자로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기도 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성의 상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의 상대에게만 끌리나 성욕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도 하다.

a. 동성의 상대에 대한 성적 판타지, 섹스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딱히 정체성 문제로는 접근하지 않는 경우

사례

-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이십 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 사람과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쪼끄러운 문제가 있어 상담 요청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자꾸만 여성을 떠올리며 흥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떠올리는 성적 판타지는 여성과의 섹스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해 보고 싶다는 욕구도 꽤 강한 편이고요... 이런 것도 동성애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좀 이상한 경우인 건 아닌지요?

- 여성과 특별히 사랑에 빠지거나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우연히 어떤 여성 분과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됐고, 썩 나쁘지 않았습니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자와 잘 때와는 또 다른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때 일을 떠올리면 자극을 받습니니다. 한 번 더 그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극히 성적인 호기심입니다. 여자와 본격적으로 교제해 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니다만 이따금씩 섹스는 하고 싶네요... 이런 식의 호기심만으로도 레즈비언일 수 있는 건지? 여쭙봅니다.

상담을 위한 도움말

- 수많은 이성애자들이 동성간 성관계를 성적 판타지로 갖고 있고 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성간 성관계를 성적 판타지로 갖고 있으며, 일상 생활의 성정체성과 성적 판타지는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려 준다.

- 여자와 섹스하는 것을 성적 판타지로 지니고 있는 것이나 남자를 사귀면서 여자와 섹스해 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일 역시 아님을 이야기해 준다.

- 성적인 욕망이 동성의 상대를 향해 있고 그 욕망이 나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사람에게 따라 그 이유만으로도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상당수의 동

성애자들은 비단 성욕이나 섹스 때문만이 아니라, 동성의 상대를 향한 좀 더 총체적인 이끌림 및 그러한 이끌림의 반복 혹은 지속을 경험하며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한 경험을 갖고 있음을 일러 준다.

- 섹스에 대한 관심은 높는데 교제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는 내담자의 경우 뿌리 깊은 호모포비아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부분이 눈에 띄면 완곡하게 지적한다. 자기 검열로 인해 성적체성 탐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좋다.

b.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기는 하나 교제 경험이나 성욕이 전무하고 별로 그러한 걸 원하지도 않는 경우

사례

- 여자가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자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동성애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남자한테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여자한테 반하고 여자가 좋은 것만으로 스스로를 동성애자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님 그냥 인간적으로 여자한테 더 끌릴 뿐이므로 그런 감정을 갖고 동성애니 뭐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 저는 스스로 이반이라고 생각해요. 여자한테 끌리니까요. 그렇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도, 사귀어 본 적도, 섹스를 해 본 적도 없거든요? 이러면 제가 이반이라는 게 확실치 않은 건가요? 사귀어 보고 성관계도 해 보고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고서야 확실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건지 그러지 않고도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동성의 상대를 향한 성애적인 욕망이나 동성 상대와의 교제 및 성관계 여부가 동성애자로서의 정체화에 꼭 수반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준다.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양성애자건 성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 동성의 상대를 향한 성애적 욕망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 비정상적인 것, 변태적인 것으로 여기며 금기시하는 편견이 문제인 만큼이나 성적체성을 성애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려 하는 태도 또한 문제이다.

- 이성애자들은 이성인 누군가에게 끌리는 경험, 교제 경험, 섹스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성애자가 아닌 다른 어떤 성적체성을 가진 존재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험들 없이도 이성애자일 수 있으며 진짜 이성애자냐 아니냐 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고 해서 이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려 준다.

④ 트라우마(trauma)와 정체성 탐색

개인이 겪은 성폭력 피해 경험과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그 사람의 성적체성 탐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폭력 피해 경험을 입은 내담자들의 상당수는 그 경험을 자신이 동성애자가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며 피해의 경험이나 동성애 경험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에 시달리곤 한다. 피해자로서 존중 받으며 치유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내담자일수록 힘들어 하는 정도가 더 크기도 하다.

a.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체성 탐색

사례

- 어릴 적 집안의 남자 어른으로부터 수 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창피하고 무섭고 싫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말하면 혼 내겠다는 그 사람 말에 겁에 질려 저부터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 일들을 겪으며 저는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였는지 사춘기를 지나며 사랑에 빠진 상대는 다 여자 친구들이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나요. 어릴 때는 몸을 버리고, 이제는 동성애자라니... 어째서 삶이 이토록 가혹하기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삶...

- 저는 남자에 의한 유아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사춘오빠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또 신뢰했던 친구에게 줄줄이 당했습니다. 그런 저이기에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자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좋아하게 된 사람도 여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여자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피해를 제대로 치유했어도 과연 여자를 좋아하게 됐을까...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이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 상담과 성정체성 상담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함을 상담자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생각지 않도록 돕는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사람으로, 비난당하지 않으며 피해를 치유하고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기 혐오의 감정을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내담자 탓이 아니며, 동성애자로 살아가게 된 것도 결코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내담자에게는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존중 받고 치유의 과정을 거쳐갈 권리를 지니며, 지지와 격려 속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마땅함을 알려준다.

- 동성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 본인이 생각하는 정체화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동성애자로서 정체화 하고 살아가는 삶을 떠밀린 삶으로, 배척된 삶으로, 불운한 삶으로 여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을 알려준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없는 정보 제공이 최대한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래 b. 가정폭력 피해 사례들에도 유사하게 적용)

- 피해 경험이 동성애자로서의 정체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더라도 그

것을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 중 상당수는 이성애자로 살아가며, 동성애자들 중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동시에 존재한다. 피해 경험이 없었다면 동성애자가 안 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정답에 가까울 따름이다. (아래 b. 가정폭력 피해 사례들에도 유사하게 적용)

b.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정체성 탐색

사례

- 폭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성인 남자에 대한 이상을 가질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다정하게 사이 좋게 지내는 다른 여자애들을 보면 경이롭다고 할까 경악스럽다고 할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깐요. 그런 친구들도 저처럼 남자를 두려워하고 끔찍해 하며 여자를 좋아하게 될까요? 어쩐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이 저를 일탈자로 만든 것 같습니다.

- 아버지는 심지어 집 안에서까지 수없이 바람을 피웠고,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평화롭게 돌보지 못하고 생계의 책임마저 부인에게 떠넘긴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좋은 기억이라고는 없네요. 분노에 치를 떨었거나,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던 경험 등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전부입니다.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있다 보니 저 자신 역시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이반으로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자라면 학을 떼게 만들어서... 남성 혐오로, 사회생활마저 힘들니다.

- 저는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동생이 태어난 뒤로 어머니는 저란 존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어쩔 나도 당신이 낳은 자식인데 저렇까... 싫을 만큼 지독했습니다. 무관심과 싸늘함이 지나쳤습니다. 저는 늘 따돌려졌습니다. 손을 대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학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바라다 언젠가 포기했어도 아마 제게 큰 상처로 남은 듯 합니다. 어느새 어머니 같은 사랑을 줄 사람을 찾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유로도 이반이 되는구나 싶어 씁쓸하네요.

상담을 위한 도움말

- 가령, 내담자가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성인 남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상만을 보고 자랐거나, 애정을 주지 않는 어머니를 늘 아쉬워하며 자란 경우, 스스로 자기가 그 동안 누리지 못한 바의 영향으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표현한다.

- 가정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들에 대해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 남성 일반에 대한 혐오나 공포를 자기 안에서 잘 다루며 사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며, 참고할만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내담자 각각이 자기만의 요령을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a.의 사례들에도 적용)

- 내담자 개개인의 사례에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내담자의 동성애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역시 성폭력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정체성 형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경험으로서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준다.

2. 주제별 내담-상담 사례 분석

(*다음 내담 사례와 상담 사례는 모두 <상담소>로 접수된 내담과 그에 대한 상담의 실제 사례를 많이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1)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고민 사례

[내담] 내담자A

고1 여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제 친구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자를 사랑해 본 적도 없답니다. 그렇지만 여자에게 성욕은 느낍니다. 입 맞추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허리에 손을 두르고 다니기도 해요. 섹시한 느낌의 여자들을 보면 성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대여섯 살 무렵에는 옆집 친구 (여자였죠)와 둘만 놀 때는 둘 다 옷을 벗고 서로 성기를 만지며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땐 아무것도 몰랐지만 돌이켜 보면 이상한 일이죠. 인형놀이를 하면서도 여자 인형끼리 서로 가슴 만지게 하고 그랬어요. 성정체성은 취학 연령 이전에 결정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뭘까요? 제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상담]

단계1: 들어가는 인사

A님,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려요. 다소 늦게 답변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리면서 상담 시작할게요.

단계2: 문제 초점의 명료화

고1 학생이시고, 이제껏 주로 남자들을 많이 좋아해 왔고,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성욕은 여자에게도 느낀다고 적어주셨네요.

어릴 때 동성친구와 같이 성기를 만지며 놀았던 경험도 있으시고 여자 인형들끼리 서로 가슴을 만지게 하며 놀았던 경험도 있다고 적어 주셨어요. 자신이 이성애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자꾸 여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시는 상태인가 봅니다.

단계: 공감과 격려를 통한 라포 형성

나쁜 일 아니니까, 걱정 놓으시고,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단계: (편견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및 직면

일단 A님, 상담원은 A님이 어릴 때 친구와 같이 옷을 벗고 각자 자위를 하며 놀았던 서로 성기를 만

저 보며 놀았건 그걸 ‘이상한 행위’ 라고 생각하시며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내 몸에 대한 관심의 일환에서 성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성기를 만져 보면 몸의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게 신기해서 친구와 같이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논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건 청소년기에건 성인이 되어서건 여성이 자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의 성적 욕구를 스스로 만족시키는 것인데 이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 점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형 놀이 하며 여자 인형들끼리 가슴을 만지게 했다는 것도 그래요. 여자 남자 인형을 서로 만지게 하건 여자 여자 인형을 서로 만지게 하건 남자 남자 인형을 서로 만지게 하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귀고 성관계 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하고 교제하고 성관계 하는 것은 이성간의 호감, 교제, 성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만큼 그냥 그 자체로 자연스런 거랍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사랑도, 사귄도, 성관계도, 혼인도 모두 이성간에만 존재 가능하고 이성간에 이루어질 때만 정상적인 거라는 통념을 강하게 갖고 있어 동성애가 이상한 거라는 편견이 여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있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게 마련이라고 해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워낙 이성애만을 배우며 살아가다보니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따름이고요. 그러니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건 오히려 이성애만이 옳다고 하는 통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자가 여자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건, 성적인 욕구를 느끼건, 사귀고 싶건, 아무 문제될 게 없답니다. 실제로 교제하고 성관계 하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될 게 없고요.

그런데 이성간의 사랑도 딱히 성욕만을 매개로 규정되는 게 아닌 것처럼 동성 간의 사랑도 그와 같아요. 동성의 상대에게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곧 동성애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동성의 상대에 대한 이끌림에는 감정적 끌림, 정서적 끌림, 에로틱한 성적 끌림 등이 다 포괄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끌림을 순차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겪을 수도 있으며 성욕 자체도 타인에 대한 이끌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엔 분명하나 그렇다 해도 동성애의 핵심이 동성의 상대에 대한 ‘성욕’ 이라고 하긴 어렵죠.

이성애자로 살아가며 동성애자로 정체화하지 않는 수많은 여성들이 성욕이나 성적 판타지는 여성에게 주로 느낀다고 하기도 하고 역시 자기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체화 하고 동성애자로 살아가지 않는 상당수의 남성들도 성적인 자극은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통해 얻을 때가 많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주로 끌리는가, 이제까지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떤 것 같은가, 등의 자기 고민을 토대로 본인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남이 진단해 주거나 규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정체성 탐색과정에서 중요한 건 총체적인 이끌림의 상대들이 어떤 이들인가를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적체성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 어떤 계기들을 통해 변화 가능한 것이지 여섯 살 이전에 결정되거나 하는 게 결코 아니랍니다. 일례로 오랜 시간 남성과 혼인 관계로 살아온 오십대의 여성분이 자신은 사실 레즈비언인 것 같고 그걸 중장년기에 이르러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지며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십대 때는 남자친구를 사귀며 지내다가 이십대가 되면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하게 된 분들도 있고요.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동성의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도 동성의 상대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잘못되었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나 수치스러워 해야 할 일이 아니므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정체성 탐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성과 동성에게 다 끌린다면(성적인 부분에서건 전반적인 부분에서건) 그리고 앞으로 이성도 동성도 다 만나보고 싶다면 자신을 양성애자로 규정할 수도 있겠고요. 여자에게 성욕을 느끼긴 하지만 교체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 건 이성 쪽이 많다면 그저 이성애자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성에게 성욕을 느끼기도 하거나 남성보다는 여성과 사랑하고 사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면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정체화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한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정체화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이름을 얼른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들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단계: 끝인사

아무쪼록 A님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정체성 탐색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용기와 격려를 전하고 싶어요. 궁금한 게 더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 요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상담을 마칠게요.

2) 두 번째: ‘남성성 혹은 남성다움 혹은 남자 같음’과 레즈비언 정체성 고민 사례

[내담] 내담자B

저는 갓 스물이 되었습니다. 성적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무척 답답하네요. 저는 동성 친구들에게 관심이 막 많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여자애들처럼, 저도 남자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막연하게나마 여자와 사귀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은 저한테 잘생겼다, 남자답다, 남자로 태어 났음 좋았을 걸, 네가 남자였음 너랑 사귀고 싶었을 거야, 하는 식의 말도 꽤 들어왔습니다. 여자에게 고백 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내 겉모습 상의 특징 때문이겠거니 싶어서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았어요. 헌데 그 뒤로 무슨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점점 작고 예쁘고 귀여운 타입의 여자들을 보면 좀 좋고 사귀고 싶고 그러네요. 최근 자꾸 그런 마음이 심해지고요. 제가 남자 같아서인지 저는 이십 년을 살면서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 없어 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저 스스로 여자를 좋아하면 어떨지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복잡한 거 딱 질색이라 여자 좋아하면 뭐 어때 싶긴 한데, 은연중에 망설여지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혹시라도 다시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동성애자였다는 게 내 약점 내지는 오점이 될 것 같고...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뭐. 동성애자라기 보단 양성애자인 걸까요? 왜 저는 평범하게 그냥 이성애자일 수 없는 건지. 여성스러움이라곤 지니지 못하고, 꾸미기, 생각하는 방식, 말투 등도 남성스럽게 하려고만 하고. 스무 살이니 이제 성인이고 사회인인데 이를 어쩔 좋죠? 이런 생각들이 뒤죽박죽 정리 안 된 상태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속풀이 될까 싶어 하소연을 해 볼

니다.

[상담]

단계: 들어가는 인사 + 문제 초점의 명료화

B님,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려요.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양성애자인지 고민 중이시네요. 왜 그냥 이성 애자일 순 없는 건지,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정체성 고민을 적어 주셨어요. B님의 고민을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만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런 감정, 경험이 인생의 오점이 될 수도 있다 싶어 염려와 두려움 역시 갖고 계시는군요. 남자 같은 외모, 스타일을 지닌 채 자라왔고 여자 친구들로부터 수없이 고백을 받았고 남자 친구와 사귀어 본 경험이 없고 이제는 자기 자신도 여자에게 관심이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계: 공감과 격려를 통한 라포 형성

상담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B님이 경험하고 계실 혼란과 두려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계: (편견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및 직면

우리 사회는 워낙에 여자는 여자답길, 남자는 남자답길 강요하지요. 게다가 그 ‘여자다움/남자다움’에는 ‘사랑은 이성과 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사랑, 교제, 성관계, 혼인과 같은 게 모두 이성간에만 존재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여겨지다 보니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는 경험을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애만이 옳다고 간주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무섭고, 거북한 것,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러므로 무척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경험을 스스로 긍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B님, 상담원은 B님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하는 것, 등은 그 자체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이죠. 동성 간의 두근거리는 이끌림, 애틋한 그리움, 그 누구와 보다는 친밀해지고픈 욕구, 만지고 싶고,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 등은 비정상도, 죄악도 아니어요. 그것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의 감정이자 욕구이지요. 감정과 욕구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교제 관계나 성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동성의 상대에게 끌릴 수 있는 가능성과 이성의 상대에게 끌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고 해요. 다만 앞서 쪽 말씀드렸듯 우리 사회가 워낙 이성애만 주입시키다보니 동성의 상대에게 끌릴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조차 자기안의 그러한 가능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그저 이성애자인줄로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뿐인 것이고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상한 게 동성애가 아니라 바로 자연스럽기 그지없는 동성애를 억압하는 태도라고 하겠어요.

B님, 자신이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도 끌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정체성 고민을 시작한 B님은

자기 탐색을 무척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까지 겁나고 두려웠던 게 있었다면 그러한 감정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감정을 살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남자 같은’ 것과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 연결되는지도 모르겠다, 는 요지의 이야기도 글에
담아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여자들이 다 ‘남자 같은’ 것도 아니고 ‘남자 같은’ 여자들이 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리고 무엇이 ‘남자 같은 것’이고 또 무엇이 ‘여자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여자인 내가 선이 굵은 외모를 가졌고 목소리도 중성적인 데다 바지에 재킷을 주로 입고
자세는 다소 건들거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고 해 볼까요. 그럼 이 ‘나’는 남자 같은 걸까요? 사회
적인 통념 상 ‘남자 같다’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그저 이 사람의 ‘개성’이라고 보면 어
떨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들은 모두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비슷한 것 같아도 저마다 스타일도 다
다르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미묘하게 혹은 적나라하게 서로 다 다른데 그 엄청나게 복잡한 차이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남자다운 것’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여자다운 것’이란 식으로 갈라 규정
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 상 주로 ‘남자답다’고 여겨지는 모습을 하고 있건 또 다른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그게 B님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이라면 그 자체로 족하리라고 생각해요.
굳이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결핍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아껴주는 게 제일 좋답니다. B님. 여성에게 고정된 여성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면서 내 고유의 성격과 스타일을 방해받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는지 몰
라도 자기 페이스를 지키며 살아나가는 게 본인의 자존감과 자긍심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
니다.

단계: 결론

상담원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1)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는 건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감정
이다, 2) 자기 스타일 그대로 스스로 인정하고 아껴주는 게 가장 좋다, 를 마음에 꼭 담아 기억하시면
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탐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고민하는
과정이 힘겹더라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최소한의 손길을 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레즈비언인가 양성애자인가를 결정하는 건 서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상태, 내 감정이 향하는 곳 등을 섬세하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나의 내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가
는 과정 그 자체일 터이니깐요. 그러니 아무쪼록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정체성을 탐색해 나가시
길 바라요.

동성에게도, 이성에게도 끌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경험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정체화 하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자신을 그저 이성애자로만 여기고자 하며 살아가지
요.

단계: 끝인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언지 내가 주로 더 매력을 느끼는 상대는 어떤 사람들인지 등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고민해 나가세요, B님. 그 고민의 과정에서 의문점에 부딪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지거나 할 때면 언제든 다시 상담소를 찾아주시고요. 이번 상담이 B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 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만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격려를 보내요, B님.

3) 세 번째: 성적 판타지, 성욕 등과 관련된 사례

[내담] 내담자C

약혼자가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긴 하나, 성에 눈을 뜰 무렵부터 종종 여성에게 끌리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약혼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생활 중 어느 순간엔가는 여성에게 설레는 저를 발견합니다. 모든 여자한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연히 스친 사람 중에 간혹 끌리는 이가 있기도 하고, 가까워진 사람 중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끌리는 사람들 간에는 일관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친밀해지고 싶고, 내가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저 아닌 다른 사람과 친하거나 남자를 사귀는 걸 보면 질투가 나고 싫기도 합니다. 이런 맘을 표현하진 않으니, 적당한 사이로 잘 지내지요. 그런데 2년 전쯤 친하던 언니와 술김에 성관계를 갖게 된 뒤로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자에게 몸과 마음이 다 끌리다니...싫어요. 확실히 성적으로 여자에게 많이 끌립니다. 물론,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성적인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결혼생활 도중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지금의 약혼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까 겁이 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 남편을 괴롭히는 무책임함은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상담]

단계: 들어가는 인사

C님, 어서 오세요. 상담소입니다.

단계: 문제 초점의 명료화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여성에게 이끌린다고 하셨어요. 2년 전 한 언니와 관계를 맺은 뒤로 그 점이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네요.

단계: 공감과 격려를 통한 라포 형성

C님의 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순 없더라도 지금 C님이 겪을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굉장히 크리라 짐작이 됩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갈등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단계: (편견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및 직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성에게 이끌릴 가능성과 이성에게 이끌릴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안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축복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상대가 동성이건 이성이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주의적인 우리 사회는 많은 이들이 이런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조차 애초에 차단하고 혹은 그러한 이끌림이 있더라도 부정하고 숨기게 만들지요. 이끌림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런 감정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어렵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보니 C님께도 이끌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나 자신이 이상하게 비춰지면 어쩔까 하는 걱정 자체뿐만 아니라 약혼자가 있는 몸이라는 자신의 상태 또한 약혼자 외의 다른 이에게 끌리는 감정을 활발히 펼쳐 놓는 데 걸림돌이라면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감정을 옳은 것-그른 것으로 이분화 시키지 않았다면, C님은 여러 가지 선택지들 사이에서 좀 덜 힘들게 탐색하실 수 있었으리라 싶어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어떤지 확신이 안 서다보니 결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우신 것인데요. 상담원은 C님이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토대로 생각하려 하지마시고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내면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과 여성을 향한 욕구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훨씬 더 핵심적인 경험으로 느껴진다면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결혼할 상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성과 남성을 모두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라고 하지요.

C님은 레즈비언이 성적인 것만 가지고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안다고 적으셨는데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글을 읽어보면 C님은 여성에게 단지 성적으로만 끌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맘에 드는 여성을 보면 좀 더 친밀해지고 싶고, 내가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C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친하거나 남자를 사귀는 걸 보면 질투가 나고 싫기도 하다고 적고 계시니까요. 관계에 대한 욕구, 감정적 교류에 대한 욕구가 성적인 욕구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재 C님의 상태 같습니다.

C님, 상담소에는 C님처럼 남성과 교제 중이신 분뿐만이 아니라, 기혼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와서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는 고민을 남겨주십니다. 심사숙고 끝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찾자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나 이른 시기란 건 없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때 그 때가 바로 고민을 위한 적기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성정체성이란 평생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에 따라서건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체성의 변화 가능성을 늘 지니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이 고민을 어느 정도 매듭짓고 싶다면 약혼 사실을 재고할 수도 있고 약혼 상태는 그대로 두되 결혼 일정을 조금 늦춰 생각할 시간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혼 사실에 변화를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겠으나 그 사실이 C님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용감하게 일정 변경을 타진해 보는 것도 C님 자신을 위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벌어 고민을 하다가 만일 이성과의 혼인을 선택하

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영 아닌 것 같다면 과감히 결혼을 접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변 상황과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그 단계가 되면 또 새로이 마음을 다지고 헤쳐나가야 하겠지요.

레즈비언(여성 이반) 포털 사이트인 미유넷 <http://miunet.co.kr>이나 티지넷 <http://tgnet.co.kr/>, 그리고 싸이월드나 다음 카페의 레즈비언 관련 친목 모임 등에서 C님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단계: 끝인사

고민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자기 삶의 행로를 재탐색하는 과정에서 늘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힘 내세요, C님.

<6강> 주제별 상담 2: 십대 레즈비언: '십대' 레즈비언/ 십대 '레즈비언'

이정인 (아자)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 들어가면서

본 강의 제목은 십대 레즈비언: '십대' 레즈비언/ 십대 '레즈비언'입니다. 십대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고 레즈비언에 찍힐 수 있습니다. 레즈비언에 대해서 이십대 혹은 삼십대 레즈비언 등과 같이 세대별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십대 레즈비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세대 레즈비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그룹화 되어 있습니다. 즉, 이십대 이상의 성인 레즈비언과 청소년인 십대 레즈비언 즉, 성인인가 아닌가의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십대 이상 소위 성인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십대 레즈비언들 역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세대 중에서도 특히 십대 레즈비언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성인 레즈비언에 비해서 덜 주목받았거나 혹은 더 왜곡되어 표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 (1) 내가 생각하는 십대는 어떤 이들인가요?
- (2) 내가 생각하는 레즈비언은 어떤 이들인가요?
- (3) 내가 생각하는 십대 레즈비언은 어떤 이들인가요?

자, 위의 3가지 질문들에 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과 (2)번 물음을 합한 것이 곧 (3)번의 답이 되나요?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요? 십대들에 대해서 저는 대학 진학 때문에 힘들어 할 것이므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신보수화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면 더 힘들겠지요. 반면 그 때만 가질 수 있는 추억들을 생각하면 발랄하고 장난기 많은 십대들이 떠오르고요. 양가적입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그냥 평범한 여자의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저 자체가 평범하고 특이할 게 없으니깐, 제 경험이 투영되어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합할 때는 십대 레즈비언이라고 했을 때는 신촌공원에서의 십대들이 떠오릅니다. (1)번과 (2)번의 제 답이 곧 (3)번이 되지는 않았지요?

정답이라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답들 속에서 십대, 레즈비언, 십대 레즈비언에 대한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십대 레즈비언 현실이나 처한 상황들은 십대가 아닌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거나 단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에 대한 정의 및 접근이 어렵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십대라는 세대가 이 고민에 결합될 때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십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성인 레즈비언이나 레즈비언이 아닌 십대와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십대'라는 세대가 받을 수밖에 없는 압박과 그 역할 그리고 '어리다'는 관점에서 무시하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고정관념이 문제일 것입니다.

십대 레즈비언과 상담을 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은 내 머리 속 고정관념을 지우는

일입니다. 레즈비언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동시에 십대라는 세대의 문화적 특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잘못 덧씌워진 십대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버려야만, 십대 레즈비언을 만났을 때 단 1분이라도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십대 레즈비언과 그 현실

2007년 1월~2008년 12월까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사례 통계를 보면, 2007년 내담 전체(517명) 중에서 십대 내담자는 약 30%(149명)을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전체(460명) 중에서 25%(115명)가 십대 내담자였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 중 십대가 거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즈비언 중에서 십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나 레즈비언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으로서 ‘십대’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09년 2월의 현재 시점에서 십대 레즈비언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사례1) 안녕하세요. 아직은 6학년인 여학생입니다. 좀 보이시한 애가 있는데요. 원랜 안 친했는데 어찌다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 친구가 장난으로 절 안았거든요? 원래 막 싫구 징그럽게 왜 이러냐구 할 줄 알았는데 빅뱅팬픽 자주 봐서 그런지 그래서 친구가 안아주고 장난으로 스킨십하는 게 좋아지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애를 피했는데요. 그 애가 저한테 와서 ‘너 왜 나 피해’ 라고 말하는 순간 얼굴 빨개지고... 저두 좋아하는 남자는 있었는데 그렇게 호감이 간 애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애한테 더 끌리구요. 초등학교생이라고 그냥 사춘기때 겪는 거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주시진 않았으면 해요. 아. 진짜 제가 레즈비언인가요?

사례2) 안녕하세요, 10대초반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족들이 전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어서 커밍아웃도 힘들뿐더러 동성애 말만 꺼내도 화를 내십니다. 정말로 친한 친구 두 명만 알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친구 중 하나는 저한테 ‘동성애 바이러스라는데 있는데, 그건 265일만 있으면 사라진대’라면서 기운까지 주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는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모님 문제가. 딱 집어서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조언만 해주세요. 귀찮으시다면 그냥 힘내라는 말만이라도 적어주세요.

사례3) 올해 중 2가 된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쪽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초 그 아이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이가 제게 쓴 편지를 발견하고는 저를 죽이려 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지라, 살인은 용서해도 동성애만은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같이 죽자고 하시더군요. 저에게만 그러면 될 것을, 그 아이 집에도 전화를 해 일은 무척이나 커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학을 시키겠다는 등, 유학을 보내겠다는 등. 각종 협박을 늘어놓으며 그 아이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꺾끗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젠 학교에 소문이 돌더군요. 레즈년이다, 변태다, 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키스하는 걸 목격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가장 친했던 4년지기 친구도 저희더러 역겹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도니 선생님들마저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며 떼어놓으려 하고 계십니다. 제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아이 뿐입니다. 의지할만한 친구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진지 오래입니다. 그 아이의 곁에 있을 땐 괜찮지만, 그 아이와 헤어지고 나면 깊은 우울의 수렁에 빠져들니다. 심지어 손에 대지 않았던 칼을 다시 손에 쥐고는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제 자신을 제가 못 견딜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위 사례1부터 사례3까지의 사례는 실제 2008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내담 사례들입니다. 주요 골자는 그대로 하되, 중간 중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십대 레즈비언의 혼란스러운

성정체감에 대한 고민, 집안 내 혹은 학교 내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엄혹한 상황 속에서의 내적 갈등과 괴로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 강의에 들어서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십대 레즈비언 안에도 경험과 삶의 스펙트럼은 무척 다양합니다. 일례로 팬픽¹⁴⁾을 보거나 창작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십대도 있을 것이고, 그냥 동성 친구가 이성 친구보다 더 좋고 마음 두근거리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십대도 있을 수 있고, 레즈비언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보는 십대가 있기도 하며, 이성 친구가 좋지만 동성 친구 둘 다 좋아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십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이유는 다양하기도 하며 혹은 특별히 언어화 되지 않는 정체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십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한 십대, 친한 친구에게만 얘기한 십대, 모두에게 숨기며 지내고 있는 십대가 있을 수 있으며 학내 차별 경험이 있는 십대, 전무한 십대 그리고 집안 내에서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받는 십대, 부모님의 이해로 결국 인정받고 지내는 십대, 모른척 아닌척 그냥 지내고 있는 십대 등 무척 다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이든지 이러한 이유, 이들의 정체화 역사와 일상의 고민[고통]들을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또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2. 십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 어린 시각들

우리 사회에서 십대 레즈비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레즈비언을 포함한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들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 가장 널리 폭넓게 편견을 유포시키는 방송 매체를 비롯한 언론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난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방송 매체에서 동성애를 다루거나 동성애자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게이 성의 두 얼굴(1992)>, <그것이 알고 싶다 : 제 3의 성(1995)>, <송지나의 취재 파일 :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레즈비언(1996)>, <추적 사건과 사람 : 화장실 속의 함정들(1997)> 이 방송들의 공통점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게이 즉, 남성 동성애자와 성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로 방송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해서 과잉 성애화 된 ‘집단’으로 묘사했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묘사들로 인해 게이뿐 아니라 레즈비언이나 십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 : 10대 동성애의 두 얼굴(2002)>편은 십대 레즈비언을 중심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신춘공원에 모여 있던 십대들에게 촬영한다는 등 사전 양해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몰래 인터뷰를 한데다 영성한 모자이크 처리로 아우팅을 당한 일

14) 팬픽은 팬(fan)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팬픽이란, 좋아하는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사랑 이야기를 직접 만들며 팬픽을 읽으면서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좋아하는 가수들의 외모 등을 따라하는 십대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팬픽이란’에 대한 비하/ 왜곡된 관점의 기사는 별첨2 참고)

도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 업소인 레즈비언 바(Bar)에 잠입취재 촬영한 뒤 다른 공간에 있던 침대들이 이곳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짜집기 편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침대 레즈비언 더 나아가 레즈비언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했기에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침대 레즈비언이 이 같은 문화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실제 고민과 어려움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일부 침대들의 겉모습에만 주목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아우팅과 같은 인권침해가 자연스레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침대’ ‘레즈비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i) 레즈비언에 대한 기존의 편견

침대 레즈비언의 경우, 침대라는 세대적 특성을 제하면 레즈비언에게 덧씌워진 기존의 편견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레즈비언에 대한 기존의 편견 중에서 첫째, 레즈비언을 무성적인 존재 혹은 과잉 성애화 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 두 번째, 위험한 ‘일탈자’로 보는 것입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서 남성과 결혼하지도 아이를 낳지도 않는 레즈비언은 비정상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틀에서 벗어난 ‘일탈자’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외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사례(2005년 4월~2006년 3월) 중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들을 추려보았습니다.

- ① 동생이 여자와 사귀다고 합니다. 그냥 외롭던 와중에 좋은 친구를 만난 건 아닌지요. 동생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동성애자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지. (P101)
- ② 저는 이집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레즈비언 포르노를 즐겨보고, 실제로 레즈비언 커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끼리의 동성애는 너무 싫고 더럽게 느껴지는데, 레즈비언 커플을 보면 너무 좋고 흥분됩니다. (P95)
- ③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처럼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떳떳하고 싶대요. 저도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길러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저의 결심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더군요. (P84)
- ④ 사촌언니가 제 일기장을 보고 제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언니는 저보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엄마 역시 저에게 더럽다고, 창피하다고 하십니다. (P68)

먼저, 외로워서 여자와 사귀는 건 아니냐는 사례① 레즈비언을 성적 대상화하여 보는 사례② 종교적으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사례③ 더럽고, 창피한 것으로 보는 사례④ 등이 있습니다. 레즈비언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날 경우, 이러한 언행들을 듣거나 경험하는 레즈비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큰 상처, 트라우마를 남길지 생각 혹은 정 안된다면 상상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위와 같은 인식 사례들에서 레즈비언 부분을 가리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연애하는 이에게 ‘혹시 외로워서 그 애 만나는 거 아냐’라며 누군가와의 소중한 관계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건 불쾌한 일일 수 있죠, 또한 나의 한 특성으로 인해 나 자체가 성적 대상, 죄악이나 더러움, 창피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들의 문제는 레즈비언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 의심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ii) 십대(세대)에 대한 기존의 편견

‘나이 어림’을 판단력 부족의 근거로 인식¹⁵⁾하기도 하는 사회 속에서 십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례로 2003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터넷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강제 폐쇄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포털 사이트들에서 성인 키워드로 분류돼 성인인증을 해야만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¹⁶⁾도 있었습니다.

동성애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운, 커밍아웃을 마음먹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통신을 비롯한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은 동성애자 개인이나 동성애자 인권 운동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해방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이지만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신의 속내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와 같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동성애자에 대한 보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들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보권(알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검열된 것, 성인인증 후 검색 가능토록 한 것은 동성애 정체성을 고민하는 십대 청소년의 정보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정체성을 고민하거나 갈팡질팡 하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한 때’ 그럴 수 있다거나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겪는 치기어린 행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중, 여고를 다니는 십대 레즈비언에게 더 그러한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소 거칠게 비교해본다면) 남녀공학을 다니는 십대 레즈비언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15) 정보통신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의한 동성애자 커뮤니티 ‘검열’이 시작되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의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 항목 제 7조 4호 즉,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조항에 의한 것이었다. 이 검열로 인해서 게이 인터넷 커뮤니티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건이 발생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문제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 권고한 후,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권고를 받아들여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를 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이러한 호모포비아적 현실에 비판하여 청소년 게이 활동가(육우당)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육우당은 당시 활동을 했던 인권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자살을 했다. (『신문의 레즈비언 보도경향과 그 재현방식에 관한 연구 : 종합일간지 기사(1990년~2006년)를 중심으로』 p31참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6)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넷 세계일보’, 그리고 인터넷 포털 ‘벅스’의 경우 검색 서비스에서 ‘동성애’ 키워드가 성인 키워드로 분류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해야만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 ‘야후! 코리아’, ‘애플스’는 ‘이반’ 키워드가 성인키워드로 분류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해야만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한편, ‘다음’ 카페 서비스와 ‘엔티카’ 엔피 자료실 서비스에서는 ‘이반’ 키워드가 금칙어로 분류돼, 검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각 업체들에 동성애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6월 13일 현재,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넷 세계일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벅스’, ‘애플스’, ‘다음’, ‘엔티카’ 측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인 키워드 및 금칙어에서 “이반”, “동성애”를 삭제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 활동 게시판 2005년 6월 13일 게시물 중에서)

어느 한 성(性)과 오래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자신의 성적체성이 이 같은 환경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성별분업이 확고한 우리 사회와 같은 경우, 동성애자의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괜한 의구심, 괜한 의심, 괜한 추측 등 청소년 이성애자들에게는 묻지 않는 질문들을 십대 레즈비언들에게는 왜 하는 것일까요. 다시 돌아와서 십대 레즈비언에 대해 ‘한 때’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경험과 고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 이들과의 대화가 끊어질 첫 걸음입니다.

iii) 보호 혹은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 근거 없는 객체화

레즈비언/동성애자 그리고 십대 레즈비언에 대한 왜곡된 언론 보도나 사회 인식의 문제는 단순히 편견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및 폭력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공간인 학교나 청소년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우리 사회 속에서 십대 레즈비언은 마땅히 설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우팅으로 매개로 한 (혐오) 범죄의 피해를 받더라도 도움을 얻기란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부모님, 친구, 학교에도 말하지 못하고 계속 2차, 3차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팅을 당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하루 거의 온종일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경우는 어떠할까요. 혹은 레즈비언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자살시도를 하거나 끊임없이 자살충동을 경험하다가 겨우 용기 내어 정신과 병원이나 일반 청소년 상담소에 갔다가 의사나 상담원의 호모포비아적 이야기로 인해 오히려 더 상처받고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십대 레즈비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단체나 개인 활동가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십대 레즈비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닌 십대 레즈비언의 권리(협박받지 않을 권리,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법적·사회적 지지를 얻을 권리 등)를 존중함에서 오는 도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대 청소년을 바라볼 때 가졌던 기존의 ‘보호’ 혹은 ‘계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십대 레즈비언의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상담원으로서 주게 되는 도움들이 보다 잘 전달될 것입니다.

3. 십대 레즈비언과 상담 그리고 상담원

십대 레즈비언을 생각했을 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머리 속에서는 신촌공원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소위 불량 청소년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십대 이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신촌공원의 십대 레즈비언들을 정작 만나보니 ‘불량’하거나 ‘나쁜’ 청소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당한 놀이문화가 없어서, 내 고민을 이해하고 쉬이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또래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친구들과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신촌공원에 다들 모여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실태조사 결과 맨 마지막 문항에서 인권단체가 십대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는 물음을 던졌던 것에 다수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들만의 공간을 원했습니다. 이는 결국 외부 시선에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생각보다 소소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십대를 거쳤으면서 십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십대의 현실을 모른 적하거

나 어려워하고 심지어 무서워했다는 점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내 경험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어놓고 십대에 대해서 지레짐작 한 것 또한 적잖이 미안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십대 레즈비언들의 자조모임, 자조모임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만의 단단한 커뮤니티(공동체)¹⁷⁾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십대 레즈비언의 현실이 까마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재기발랄한 모임들, 자신들의 상상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재미있고도 진중하게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다가도 상담소 인권정책팀원들이 다가가 달고나를 전해주며 때때로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설문지 응답을 부탁할 때 기꺼이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설문지에 표시하고 털어내어 준 십대 레즈비언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장난기 많은 영락없이 젊은이들이지만 자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할 때 순간 변하던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이미 스스로의 문화, 존재에 대해서 속 깊은 철학을 가진 그들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솔직하고 진지한 속내를 듣고 싶다면 다가가는 이 역시 똑같은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십대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들어줄 전문 상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 1의 태도일 것입니다.

17) 검색해보면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등 여러 사이트에 십대 레즈비언 커뮤니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틴Rateen (<http://cafe.daum.net/Rateen>) 같은 경우 “Rainbow Teenager 의 줄임말로, 성소수자 청소년 그 자신의 gay pride고취와 정보 공유,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와 다양한 문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틴의 활동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라틴 카페 소개 글 중) “크게 월례정모(스터디모임), 퀴어퍼레이드 참가(6월), 매년 한번 개최되는 이반놀이터(8월 15일)입니다. 스터디 모임은 08년 1월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safe sex, 약오이와 동성애 문화, 올바른 용어알기 등의 주제로 진행 되어왔습니다. 또한 08년 퀴어퍼레이드에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동성애자 따위가 이성애자에게 - 우리들의 호모포빅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학교 및 가정에서 겪는 호모포비아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성소수자로서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참고 기사 1]

10대들의 부모 상대로 영터리 ‘성정체감’ 강의
EBS <생방송 60분-부모>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정인

EBS <생방송 60분-부모> 프로그램의 1월 18일자와 25일자 방송을 보면서, 올바른 정보를 접할 통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동성애가 뭔지 모르는 ‘전문가’

18일 방송된 “성정체감 바로 갖기-10대 딸을 둔 부모들께” 편에서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부모부터 깨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인터뷰와 함께 주로 김미라 박사(심리학)의 강의로 진행됐다.

방송을 보면서 그 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들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유래를 살펴보기 위해 서구의 역사 예를 들었는데, 일반인들도 쉽게 알고 있는 한국의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역사와 현실대신 서양의 고대를 논하는 것도 의아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 모두 “동성연애자”라고 지칭한 것부터 이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라는 말을 ‘동성애자’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즘인데, 왜 저런 용어를 방송에서 사용했을까.

그런데 김 박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심리적인 성정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동성연애자”는 심리적인 성정체감에는 문제가 없지만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동성인 것이라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규정이다. ‘동성애자’와 ‘동성연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지칭이다.

청소년 동성애는 이성간 사랑연습?

이어 25일 방송된 “성정체감 바로 갖기-10대 아들을 둔 부모들께” 편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다. 먼저 아들의 자위행위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할’ 일이라는 이야기에서, 자위행위와 성정체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더구나 딸 편에서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던 자위행위를 비롯한 성적인 문제들이 아들 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방송에선 계속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무성적 존재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 방송이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흥미로운 부분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것이었다. 거리를 걸을 때 팔짱을 끼고 가는 남자-남자, 여자-여자, 남자-여자 중에서 불편한 모습은 어느 것인가를 묻는 인터뷰에서 대부분 남자-남자인 경우로 답했다. 그 이유로는 ‘어색하고 이상하다, 꼴 보기 싫다, 남자끼리는 잘 안 그러니까, 남자는 어깨동무가 일반화되어 있고 변태나 게이 같다, 남녀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남자-남자 커플은 부조화스럽다’ 등으로 답했다.

이런 인터뷰는 동성애, 특히 남성들의 동성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의도였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없이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

였다. 게다가 스스로의 동성애 성향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여자는 16.3% 남자는 6.5%로 나온 결과에 대해, 여자아나운서는 그렇다면 ‘딸들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미라 박사는 한술 더 떠서 동성애에 대해, ‘사춘기 시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성간의 사랑연습을 동성간에 하는 것’이라면서 ‘(동성애자로) 낙인 찍지 않으면 다 나중에 이성애로 옮겨가며, 자라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호모포비아 가치관을 가진 분이 ‘성정체감’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나와 발언을 하다니, EBS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가. 딸 편에 이어 아들 편을 마치면서 김 박사는 ‘큰 입보다 큰 귀를 가지라’고 부모들에게 조언을 했다. 하지만 방송을 보면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큰 입이나 큰 귀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 통로가 진실로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2006/01/31

20대 레즈비언이 10대의 현실과 만나다

‘10대 이반과 학교’ 강좌 후기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정인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10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머리 속엔 당시의 기억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쉽게 말리 떨어지지 않는다. 성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초조했던 기억이나, 동성친구를 좋아하면서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가요를 자주 불렀던 것, 그리고 감옥 같은 학교 안에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야 했던 일상들이 사진처럼 펼쳐질 뿐이다. 생각해보니 같은 반 여자친구를 좋아하면서 꽤나 애를 끓였다.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게 되다니, 이상한 일인 것 같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무작정 고백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속으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겉으로는 친한 친구로만 보이도록 속마음을 포장해야 했다. 못 견딜 정도로 감옥 같은 학교였지만, 좋아하는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친구도 만날 수 없는 ‘이반검열’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주최한 2회 레즈비언 자긍심 찾기 강좌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프로그램의 네 번째 강좌 “너 이반이지? - 십대 이반과 학교”에 참여하면서, 중고등학교에 다녔을 때의 생각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10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 예전 나의 중고등학교 생활과 현재 십대들의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반”이나 “레즈비언”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커뮤니티가 뜨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퍼져있는 반면, 편견과 차별이 깨지기를 기대할 만큼의 변화 역시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 중고등학교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강좌는 여성영상집단 ‘옴’에서 제작한 비디오 다이어리 형식의 <이반검열>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반검열>을 통해 현재 중고등학교의 십대 레즈비언이 겪는 힘든 일상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촬영 당시 중학생이던 “천재”라는 이반 소녀는 학교에서 이반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반’처럼 보이는 학생들을 데려다 찍어놓고 감시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술, 담배를 하는 것보다 ‘이반’인 것이 알려지면 처벌을 더 심하게 받아야 하고, 심지어 하교 후에 ‘이반’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한단다. 영상에서 천재가 말한 대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고, 도덕 시간에 배운 ‘인간 존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 좋아한다는 말도 건네지 못했는데 좋아하던 친구가 전학 가는 날 천재는 친구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백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되풀이하던 천재의 마음에 웬지 감정이입이 되어 내 마음까지 아렸다.

“이제야 나 자신을 찾은 것 같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공지현 활동가는 ‘10대 이반 학교 내 차별사례 수집’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반을 문제아처럼 묘사한 가정통신문 내용, 이반친구들끼리 만든 인터넷 모임이 학교에 걸려서 부모님까지 학교에 모셔가야 했던 사례, 커트 머리인 학생들에게 긴 머리를 강요한 사례, 사귀던 사이를 떼어놓고 정학처리와 함께 억지로 전학을 가야 했다는 사례, 그리고 수업 중에 선생님이 동성애자를 “더럽고 역겹다”고 말했다는 사례 등. 과연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차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십대 이반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십대 이반들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측은 십대들과 꾸준히 만나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기획 중이라고 한다. 강좌에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 다른 십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꼬마 HJ”는 긴 머리 스타일에 소위 이반의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학교에서 이반이 겪을 수 있는 시달림으로부터 다소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겉으로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마음의 고통까지 덜어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눈치 빠른 친구들 때문에 꼬마 HJ는 종종 의심을 사기도 하는데, 예전과 달리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주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심장이 쿵쿵 뛸 만큼 당황스럽다고 한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반검열’을 당하면서 받는 억압이나 차별말고도 선생님의 호모포비아적 발언 역시 상당히 문제라고 했다. 꼬마 HJ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인상적인 발언을 했다. “이성애자라고 생각했을 때 혼란스러웠고, 이제야 나 자신을 찾은 것 같다. 내가 10대라는 이유만으로 내 정체성이 일시적이라고, ‘가짜’라고 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2006/02/14

10대 ‘동성애’ 자체가 고통은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정인

몇 년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십대 레즈비언 이야기를 다룰 때, 취재과정에서 몰래 카메라 문제와 아우팅(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성적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이 최근 또다시 십대 동성애자 관련한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다행히 이번 방송에선 모자이크 처리도 확실히 했고 이반 바(bar) 잠입취재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도 보이지 않았다. 방송은 또한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친절히 바로 잡아주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예상보다 진일보한 내용에,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에 만연된 동성애 혐오증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한 동성애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필수적인 일 아닌가.

잊어버릴만하면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함부로 다루는 방송들이 곧잘 기획되고 방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금지된 고민 10대 동성애-나는 동성애자인가요?”는 점수를 줄 만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십대 게이커플 사례에서 다른 (남녀)커플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애정표현에 대해 “과감한” 애정표현을 한다는 진행자의 멘트같은 게 그것이다. 이어 진행자는 ‘이상할 줄 알았는데 우리(이성애자)와 다르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동성커플”을 재차 지칭하면서 데이트 장면을 설명했다. 또 성인의 동성애와 십대 청소년의 동성애를 구분한 것도 걸렸다. 십대의 동성애에 대해 인정하기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십대들이 성적체성 “혼란”과 편견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심각하다 정도의 보도에 그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십대의 이성애에 대해선 그렇게 바라보지 않지 않은가.

사실 동성애자에게 동성애가 바로 고통인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이유로 자해나 자살시도를 하는 것, 혹은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은 동성애자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동성애자에 대해 비난과 혐오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일 뿐, 동성애 자체는 고통을 동반한 “문제적” 행동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동성애적” 행동이나 표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존재(being)에 주목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동성애자가 사회적 차별과 비난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십대 청소년의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고민을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걸 이 사회가 언제쯤 알게 될까.

2006/04/03

[참고 기사 2]

청소년 폭력… 동성애… 원조교제 일본만화 해악 이미 퍼져18)

폭력·동성애·원조교제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일본 만화들이 국내 만화시장을 점령하면서 10대들이 이를 흉내 내는 등 청소년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문화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 여중 3학년 김아무개(15)양은 한 친구와 특별히 ‘사귀고’ 있다. 김양은 학교에서 보통 체육복 바지 차림에 거친 말을 쓰지만 사귀는 친구는 예쁘장하고 여성적이다. 교실에서 누가 보든 아랑곳 않고 무릎 위에 올라앉아 끼안거나 입을 맞춘 적도 있다. 이 학교 박아무개(15)양은 “요즘 들어 여자애들끼리 깊이 사귀는 경우가 꽤 있다”며 “한 학교에 한 두 쌍씩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10대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이런 동성애적 관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 만화의 영향이 크다. S미술고등학교 3학년 정아무개(18)양은 “동성애 만화는 내가 본 것만 해도 <이브가 없는 세상>, <얼음요괴의 전설> 등 아주 많다”며 “학교에서 애들이 가져오는 만화를 많이 보게 되면 주인공들의 행위양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담은 일본 만화는 학교 주변 대여점에서 쉽게 빌려볼 수 있다. 일본 만화의 10~20%는 동성애를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장 남민우(46)씨는 “청소년들이 원조교제, 동성애, 학교폭력 등에 익숙해진 배경의 하나가 일본 만화”라며 “만화의 표현력은 현실에서 꺾그러울 수 있는 것들을 아름다운 그림체에 물어버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여과없이 그런 문화들을 흡수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겨레]1998-10-22

[참고 기사 3]

교육청이 동성애 청소년을 지지한다

학부모를 위한 ‘질문과 답’ 펴낸 밴쿠버 교육청

[여성주의 저널 일다] 케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지난 21일 캐나다 밴쿠버 교육청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상담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자료 하나를 보낸다는 짝막한 인사와 함께, <동성애자 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구성원을 위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돼있었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세요”

<동성애자 청소년의 부모~> 문서는 십대 동성애자를 자녀로 두었거나 십대 동성애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18) 위 기사 같은 경우 ‘폭력’, ‘동성애’, ‘원조교제’와 같이 ‘자극적인’ 주제가 담겨진 일본 문화[만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고 모방하는 현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폭력’, ‘원조교제’들과 동일선상에 있는 ‘동성애’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청소년들이 일본 만화를 보고 동성애를 ‘철없이’ 흉내 내고 ‘판단력’ 없이 수용하는 것처럼 기사화 했다는 데 관점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나?”, “우리 아이와 가족이 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 열 가지와 그에 대한 밴쿠버 교육청 ‘반동성애공포증 컨설턴트-사회 책임 및 다양성 팀’의 답변이 그것이다.

“어린이와 십대 모두는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문서가, 십대 동성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구성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용기를 낼 것.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할 것. 동성애의 원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동성애자의 권리가 침해 받는 상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 것에 대해 당신 스스로를 탓하지 말 것. 타인에게 당신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 드러내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과 자녀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이와 더불어 동성애자의 권리와 관련된 법 제도를 소개한다.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이 성 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동성 간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것.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새 교과과정인 K-7 ‘건강과 진로’, ‘사회’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형태 및 동성애공포증 등을 다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동성애자 권리 문제에 친숙하게 접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까지 관련 교육을 이어간다는 것. 이어 <동성애자 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질문과 답변>은 동성애자 당사자 및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 정보 목록을 담고 있다.

공교육 의무로써 동성애자 권리 증진

<질문과 답변> 자료는 무척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 기관인 교육청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아마도 토대가 되는 관련법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일 수 있다. 공교육이 어린이와 십대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동성애자 권리 문제를 중요히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동성애자 권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캐나다 내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십대 동성애자의 가족구성원이 각자에게 편한 언어로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 또한 감동적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발송된 자료는 같은 내용을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제작한 것이다. 수신처가 한국단체인 것을 고려한 것이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문서의 한국어판이 있기에 한국단체를 검색해 송신했을 것이고 말이다. 어쩌면 밴쿠버 교육청이 제작한 자료는 위 세 가지 언어보다 더 다양한 언어의 판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밴쿠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동성애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교육청이 레즈비언과 게이 당사자를 직접 돕는 활동만큼이나 이들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성애자 정체성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가족구성원들에게도 낯설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가기 쉽다.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섬세하게 알려주는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와 지식이 늘면 언짢은 느낌도 바뀝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밴쿠버 교육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십대 동성애자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이해와 안심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한국 교육청도 아이디어 얻길

이 자료는 한국 교육현장의 척박한 현실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오늘도 무수한 한국의 십대 이반(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학습하고 있다. 한국의 동성애자 십대들은 가정과 또래집단과 학교에서 끊임없는 감시의 눈초리에 시달리고 있고, 도움 청할 마땅한 곳도 없이 괴로워하고 있다. 소수의 동성애자 권리운동단체나 몇몇 인권운동 진영

만이 십대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동성애 혐오'를 없애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한국 사회의 제도와 교육과정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와 십대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교육청이 발간해 주기를 기대하기란 우리로서는 꿈같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십대 이반들은 자신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교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과 과정에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편견 없이 그려내는 내용이 담겨야 하며,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성애자라서 차별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거나, 가족으로부터 내몰리거나,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해도 어떻게든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한국 십대이반들의 현실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현장도 캐나다 밴쿠버 교육청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2007/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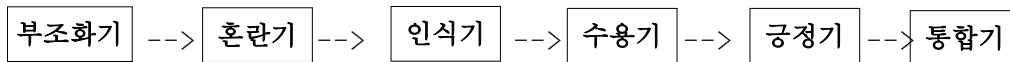
<7강> 주제별 상담 3: 커밍아웃과 아웃팅

박김수진 (박통)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the closet)'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긍정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뜻한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긍정하는 그 순간을 커밍아웃의 1차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긍정한 동성애자는 가까운 지인과 가족 그리고 조직원 등에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데, 이를 커밍아웃이라고 한다.

2. 레즈비언 정체성 정체화 과정 :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 6단계



1) 부조화 및 혼란 단계

레즈비언 구성 초기 과정에서 레즈비언은 여성으로 향하는 특별한 감정 상태를 ‘집착’, ‘동경’, ‘우정’, ‘있을 수 없는 이상 감정 상태’ 등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내면화 하고 있는 레즈비언 자신에 의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수용된다. 부정적인 방식의 수용은 혼란, 거부 반응, 회피, 자기 비하, 자기혐오, 자기부정 등의 부정적인 전략을 레즈비언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전략의 수용은 자신의 정체성을 비정상화 하거나 왜곡된 정체성을 정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성된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방식과 전략의 선택 및 실천은 레즈비언 스스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정체성 및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자학이나 자살 시도의 욕구를 가지게 한다.

2) 인식 및 수용 단계

레즈비언 정체성은 교제와 이별 등의 구체적인 관계 문제, 부조화 및 혼란 상태의 반복적인 경험 등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인식과 수용의 내용은 긍정적인일 수도, 부정적인일 수도 있다. 레즈비언 정체성의 긍정적인 인식 및 수용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정보의 접근과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에 의해 가능하다.

3) 긍정 및 통합 단계

부조화, 혼란, 인식, 수용의 단계를 거친 레즈비언들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련 정보의 접근을 통해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고, 통합했다는 사실이 곧 레즈비언들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의 문제, 이성애 중심주의, 가족주의, 정상 이데올로기 등은 온존하기 때문이다.

3. 커밍아웃 4단계

[1단계] 나 자신에게 말하기 => [2단계] 지인들에게 말하기 => [3단계] 일상적으로 말하기 => [4단계] 대사회적인 커밍아웃

네 개의 커밍아웃¹⁹⁾

커밍아웃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을지는 나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 커밍아웃의 제 1단계는 “나 자신에게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동/성/애/자/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커밍아웃입니다.

같은 성을 가진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정체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레즈비언이라는 낱말 자체를 떠올리지 않기 때문인지, 그냥 “누구누구애자”라고만 정체화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그 이상한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처해있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실제 맺고 있던 교제 관계를 끊기도, 잃기도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이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음에 대해 끊임 없이 의심하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동성애에 관해 쓰여 있는 책을 찾아 읽기도 하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동성애에 관한 홈페이지를 찾아 오랜 시간 탐색합니다.

그런 과정을 오래 겪다보면, 점점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구나’에서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 세상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언젠가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다’ *^_^* 라고 말입니다.

2단계 커밍아웃은 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혹은 도움을 받고자하는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등. 나 아닌, 나의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동성애자”라고요. 그리고 나면 별의별 반응을 다 겪게 되어 있죠. “헉! 징그러워”, “교회가자”, “나는 어때?”, “.....(완전 침묵)”

별의별 반응을 다 겪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 후회로 점철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커밍아웃 이후에, “언니, 나는 어때?”라고 묻는 아는 동생에게 “레즈비언도 눈이 있단다”라며 우스갯소리로 넘기기도 했고, 레즈비언이라고 하니, 집단섹스 즐기는 여자 정도로 생각을 해서인지, 제 몸에 발기하는 성기를 느끼게 했던 나쁜 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타인에게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간의 체증이 다~날아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앗싸! 암 걸릴 확률은 이제 좀 줄겠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3단계 커밍아웃은 집단적인 커밍아웃이 가능한 정도의, 일상적 커밍아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끼리끼리> 내 ‘동성애 바로알기’ 강사팀 강사들이 학교나 여성단체에 가서 ‘동성애 바로알기’ 강의를 하는 것. 이것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레즈비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강의를 통해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상적인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상황을 잠재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커밍아웃은 이런 식인 것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물으면, “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답변하는 정도의 커밍아웃이 3단계 커밍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커밍아웃은 소위 “대사회적인 커밍아웃”이라고 불리 우는 커밍아웃입니다. 뉴스나 신문에 레즈비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커밍아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도 모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제가 커밍아웃을 4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그 “단계”라는 것이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반드시 넘어가야하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다음이라고 간주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도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 이겁니다. 나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지인들에게 커밍아웃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그 날까지 가슴에 묻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커밍아웃을 “단계별”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더욱 아니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4개의 커밍아웃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단계 커밍아웃인 “나 자신에 대한 커밍아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더 이상 학대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나 스스로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커밍아웃이니깐요.

커밍아웃은, 나 자신에 대한 커밍아웃은 정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도, 조급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탐색해야 합니다. 없는 정보이지만, 굽어모으고, 굽어모으고, 겁이 나지만, 들어가 보고, 말 걸어 보고....그렇게, 탐색하다보면..언젠가 무엇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뻥!”하고 무엇인가가 뚫리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쟁투!

* ^ ^ *

19)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2005.11, 레즈비언권리연구소

4.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이유

	빈도(명)	비율(%)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사회 인식	211	37.6
‘변태’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21	3.7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두려움	167	29.8
커밍아웃 이후에 발생할 학교에서의 징계·직장에서의 퇴직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125	22.3
무응답	11	2.0
기타	26	4.6
계	561	100.0

커밍아웃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사회 인식’ 37.6%(211명),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두려움’ 29.8%(167명), ‘커밍아웃 이후에 발생할 학교에서의 징계·직장에서의 퇴직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22.3%(125명), ‘변태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3.7%(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

6. 커밍아웃 준비

7. 커밍아웃을 준비하는 내담자를 위해 상담소가 할 일

8. 아우팅

아우팅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가 동성애자임을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외부에 알리는 과정과 행위를 아우팅이라고 한다.

9. 성적체성을 원인으로 한 차별 및 피해 내용

	심리 불안정	인간 관계 갈등	조직 불이익	아우팅	성폭력 피해	금품 갈취	기타	계
빈도(명)	59	67	35	35	16	2	8	222
비율(%)	26.6	30.2	15.8	15.8	7.2	0.9	3.7	100.0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레즈비언 126명 중 124명이 응답하였다. 124명이 1인당 평균 1.8개 항목을 선택, 총 222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 및 피해를 경험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 갈등’ 30.2%(67명), ‘심리·정서적 불안정’ 26.6%(59명), ‘아웃팅 위협 및 협박’ 15.8%(35명), ‘학교·회사 등 조직 내 불이익’ 15.8%(35명), ‘성폭력 피해’ 7.2%(16명), ‘금품 갈취 피해’ 0.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끼리끼리>에 따르면, 레즈비언 정체성을 타인에게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강간을 하는 사례, 직장 동료에 의한 아웃팅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례 등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10. 피해 상황에서의 도움 요청 유무

	있다	없다	계
빈도(명)	11	115	126
비율(%)	9.2	90.8	100.0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단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없다’ 90.8%(115명), ‘있다’ 9.2%(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115명 중 87명이 응답하였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3.3%(29명),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31.0%(27명),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17.2%(15명),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이 두려워서’ 12.6%(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피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아웃팅 두려움	기관의 존재 모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혼자 해결 가능	기타	계
빈도(명)	11	15	29	27	5	87
비율(%)	12.6	17.2	33.3	31.0	5.5	100.0

레즈비언임을 이유로 심리 불안정·조직 내 불이익·아웃팅 피해·성폭력 피해·금품 갈취 피해 등을 경험한 레즈비언 10명 중 9명 이상이 타인이나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정체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에 노출 된 경험이 있는 레즈비언들은 피해 당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정체성 혼란 시기부터 교체

과정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개인·사회적인 혼란과 고통을 감당하듯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서 역시 혼자의 힘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상황에 놓인 레즈비언들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그러한 기관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 과정상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원인으로 한 범죄의 피해 여성들은 사건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두려워한다. 피해 상황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혼자의 힘으로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해결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 피해 상황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의 문제에 대해 무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레즈비언들에게는 박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금품 갈취 피해, 성폭력 피해, 아웃팅 피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역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어 버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감추어 사건을 덮어 버리고 마는 현실은 한국 사회 레즈비언들의 참혹한 인권 박탈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²⁰⁾

아우팅이란 동성애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성정체성을 폭로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우팅은 동성애자 스스로 커밍아웃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동성애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내몰리고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따돌림과 괴롭힘 피해를 입는다.

이처럼 동성애자에게 성정체성이 노출되는 것이 삶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성정체성을 알려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를 아우팅 매개 범죄라 한다.

특히 최근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사례를 통해 보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아우팅 매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보고되었다. 즉 이성애자 등 비(非)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을 향해 아우팅 협박과 그를 매개로 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에게 아우팅 매개범죄를 가하는 것이다.

1. 내담을 통해 보고되는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

1-1.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애인에게 아우팅 매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헤어지려고 하는 애인에게 '나랑 헤어지면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

헤어진 애인에게 '나랑 다시 사귀지 않으면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

다시 사귀자는 등의 명확한 요구 사항은 없으나, 헤어진 애인에게 남아 있는 분한 마음으로 아우팅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헤어진 애인과의 사이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재산관계가 있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20) 출처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1년 상담통계

쪽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전 애인에게 아우팅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

1-2. 레즈비언 간 갈등이 아우팅 매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레즈비언 간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우팅 시키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진다.

다툼이 일었던 상대를 향한 분한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아우팅 협박을 통해 지속적인 괴로움을 주고자 한다.

1-3. 금품 갈취 등 애초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우팅 매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아우팅 매개 범죄를 통해 금품 갈취, 성폭력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 아우팅 매개 범죄의 발생 배경 분석

2-1. 레즈비언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

많은 레즈비언들이 정체성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는 것은, 레즈비언을 향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도 많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긍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레즈비언 커뮤니티 밖으로 벗어나면, 이성애자인 척 가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알리고 나서 올 수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 변화, 해고, 퇴학 등의 피해가 두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레즈비언 존재 자체가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레즈비언은 범죄 노출에 있어 취약집단일 수밖에 없다.

2-2. 커뮤니티 내 개인정보 악용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대부분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의 익명성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자신을 긍정하며 다른 레즈비언과 교류하려는 레즈비언의 욕구가 확대되면서 익명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들이 존재한다. 레즈비언들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사는 지역 등을 공개하거나 게시물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레즈비언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최소한 레즈비언 사이에서 자신을 알리고 개방하는 것은 자기 긍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디에나 상대의 약점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노리는 범죄들이 있는 것처럼,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 정보의 노출을 악용해 아우팅 매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2-3. 조력자, 지지집단의 부족

레즈비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나 지지집단은 매우 부족하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커밍아웃한 친구들이 없는 레즈비언도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갈등 당사자는 대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기 어렵다. 때문에 아우팅 매개 폭력을 가함으로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노출된다.

3. 아우팅 매개 범죄 피해자의 취약성

3-1.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벌이 어려움.

동성애자의 삶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아우팅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아우팅 매개 범죄는 기존의 다른 범죄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경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사 절차 상에서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지면서 신고를 하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3-2. 형사 절차 중, 커밍아웃으로 인해 겪게 되는 2차, 3차 피해.

레즈비언 정체성을 밝히면 경찰로부터 욕을 듣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강요받는 등의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정체성이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점 역시, 레즈비언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이다.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가해자가 사건 경위와는 상관없는 레즈비언 정체성 관련 질문을 받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매개로 부당한 수사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어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3-3. 조력자, 지지집단의 부족.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가는 등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겁이 나는 일일 수 있다. 특히 레즈비언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무척 두렵고 괴로운 일이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커뮤니티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밝힐 수 없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찰, 검찰 등에 공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일이 무척 힘이 들 수 있다. 때문에 조력자, 지지집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에서의 지원은 전무하고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수도 매우 적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4. 아우팅 매개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장치

4-1. 아우팅 매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프랑스는 2005년부터 동성애 혐오 불법화 법안을 시행하여, 성정체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차별, 증오, 폭력 등을 선동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성별, 장애, 인종, 성정체성 등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기반으로 한 범죄를 혐오범죄(Hate Crime)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혐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내고 있으며,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가한다.

아우팅은 동성애자의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아우팅을 매개로 한 협박 등의 폭력은 동성애자의 취약한 위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을 단순 협박 등의 폭력과 동일하게 보고 경한 범죄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범죄를 악질인 것으로 보며 중한 처벌을 가한다면,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잦아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이 확산될 것이다. 한국도 아우팅 매개 범죄에 대

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4-2. 검·경찰의 편견과 혐오 시정

경찰과 검찰이 동성애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것, 혐오적인 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에게 아우팅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중 가족이나 언론 등에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 경찰에서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혐오와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4-3.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의식 향상 필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인권 의식이 향상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같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서로의 취약한 위치를, 범죄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국 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무지개빛 이반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표Ⅶ> 상담 내용²¹⁾

<표Ⅶ-1> 2006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146	30.61			
짝사랑	68	14.26			
고백	14	2.94			
교제	112	23.90			
이별	55	11.53			
커밍아웃	11	2.31			
친구관계	44	9.22			
가족관계	47	9.85			
성	32	6.71			
우울증	14	2.94			
섭식장애	2	0.40			
종교	5	1.05	기독교	4	80.00
			기타	1	20.00
스토킹	4	0.84			
성폭력	14	2.94	동성 간 성폭력	3	21.43
			이성 간 성폭력	11	78.57
교제관계 내 폭력	13	2.73	가정 폭력	5	38.46
			데이트 폭력	8	61.54
기존 가족 내 폭력	8	1.68			
아우팅	15	3.14	고의적 아우팅	5	33.33
			무고의적 아우팅	1	36.67
			기타	9	60.00
아우팅 매개범죄	13	2.73	협박	10	76.93
			폭행	1	6.67
			금품갈취	1	6.67
			기타	1	6.67
커뮤니티 내 폭력	8	1.68	사기	2	25.0
			명예훼손	2	25.0
			기타	4	50.0
혐오범죄	10	2.10	폭언	1	10.0
			폭행	1	10.0
			따돌림	5	50.0
			괴롭힘	2	20.0
			기타	1	10.0
차별사례	0	0.00			
가출 혹은 실종	0	0.00			
관련정보문의	61	12.79			
기타	97	20.34			
계	793/477	166.71			

21) 출처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1년 상담통계

<표Ⅶ-2> 2007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59	41.55			
짝사랑	27	19.01			
고백	14	9.86			
교제	42	29.58			
이별	23	16.20			
커밍아웃	5	3.52			
친구관계	24	16.90			
가족관계	14	9.86			
내면화된 혐오	20	14.08			
결혼 압력	1	0.70			
성	13	9.15			
우울증	13	9.15			
섭식장애	1	0.70			
종교	2	1.40	기독교	2	100.0
스토킹	2	1.40			
성폭력	4	2.80	동성 간 성폭력	3	75.00
			이성 간 성폭력	1	25.00
교제관계 내 폭력	5	3.52	가정 폭력	4	80.00
			데이트 폭력	1	20.00
기존 가족 내 폭력	1	0.70			
아우팅	5	3.52	교의적 아우팅	1	20.00
			무교의적 아우팅	1	20.00
			기타	3	60.00
아우팅 매개범죄	2	1.40	협박	1	50.00
			폭행	1	50.00
커뮤니티 내 폭력	5	3.52	폭행	4	80.00
			사기	1	20.00
혐오범죄	1	0.70	폭언	1	100.0
차별사례	0	0			
가출 혹은 실종	0	0			
관련정보문의	16	11.27			
기타	26	18.31			
계	320/142	228.80			

14. 아우팅 관련 범죄 사건 지원 방안

<8강> 주제별 상담 4: 지지집단의 형성: 가족 및 지인

정은지 (라와디)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 레즈비언의 지지집단 형성의 중요성과 상담의 특수성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입장인 레즈비언에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 바라는 레즈비언에게 이러한 지지는 그들이 사회가 가하는 폭력과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족과 지인 역시 사회에서 호모포비아를 학습했을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이들 역시 레즈비언에게 온전한 지지를 주는 역할을 하기 보단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기 쉽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겪는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상대의 내면화된 호모포비아가 원인이다.

이에 관해 레즈비언이 요청한 상담은 다른 유형의 상담과 달리 내담자가 아닌 제 3의 인물의 호모포비아를 진단하고 다루어야 하는 점에서 까다로울 수 있다. 또한 상대의 호모포비아를 대하는 내담자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담원은 항상 숙지해야 한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는 레즈비언 본인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지인에게서도 적지 않은 수의 상담요청을 받는다. 상담을 요청하는 지인들의 고민 역시 다양하나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 부족은 대부분의 내담에서 발견되는 점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지집단의 형성을 돕는 상담기법, 아울러 일상에서 정체성 때문에 지인들과 겪는 마찰 해결 상담과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했을 때의 상담 기법을 알려준다.

1. 레즈비언의 가족 (원 가족)

레즈비언은 이성애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상 가족에게 비밀을 만들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레즈비언은 이러한 사실에 매우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오랜 시간동안 갈등을 거쳐야만 가까스로 가족의 이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아무리 오랜 시간 갈등이 계속된다 해도 끝 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자체가 레즈비언에게 강박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검열 때문이다. 감시와 검열은 특히 십대레즈비언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그의 부모가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으로 정체성을 알게 된 경우 폭력을 가하거나 감금하는 경우 등 이 그 예이다.

이러한 감금이나, 협박, 폭력 등에 있어 가족에게서는 즉각적인 분리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겪는 레즈비언이 매우 힘들 수 있다. 내적인 자긍심이 충분치 못한 경우, 폭력상황에 처한 레즈비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과 의지를 잃기 쉽다.

상담을 요청하는 레즈비언의 가족의 경우 내담자는 매우 감정적인 상태일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족이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동성애에서 구해낼 수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동성애자가 된 것 인지를 물어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내담자의 포비아를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A.

1) 내담 유형 - 본인의 상담요청

- ① 가족에게 비밀이 있어 힘이 드는 경우
- ②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 ③ 결혼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
- ④ 감금, 협박, 폭력 상황에 처한 경우

2) 내담사례

- 본 내담은 여러 상담사례를 모아 각색한 것입니다.

①+ ②

어머니께 커밍아웃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둘입니다. 어머니와 저 뿐 이구요. 어머니와 저는 마치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자매 같기도 하고요.

매일 하루 일과를 일기 쓰듯 서로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녀의 유일한 취미지요. 우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만 빼고요....

형제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데, 어머니에게 비밀을 갖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꾸만 생깁니다.

손자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의 꿈을 이뤄드릴 수 없는 저는 불효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냥 솔직히 다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③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스물아홉이 된 레즈비언이구요. 1년간 사귄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과 저는 너무나 행복하구요. 먼 훗날까지도 서로 돌보며 살자는 이야기를 늘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집에서 부쩍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십대 초, 중반 때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저의 말에 그러려면 성공해라라고 말하던 부모님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결혼 할 거냐는 식으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서른 살 넘기지 말라고요.

어제는 선 자리가 들어왔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④

저와 애인의 교제사실을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애인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그 집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와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또, 저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불안하신지 제게 유학을 가라고 종용합니다. 어찌면 좋을까요?

3)상담 팁

내담자가 겪고 있는 갈등이 가족과 관련된 경우 단순히 끊어 내거나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전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이나 전적으로 부정적인 결론만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이해해줄 것’이라든가 ‘지금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식의 상담은 피한다.

커밍아웃하려는 내담자의 경우, 세심하게 주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충분히 지지해 준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에 의해 폭력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사건 지원이 불가능 할 경우, 상담자는 스스로 자책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살핀다.

① 가족에게 비밀이 있어 힘이 드는 경우

- 친밀한 관계인 가족에게 비밀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갑갑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다.

- 사실 비밀이 전혀 없는 관계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비록 레즈비언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 준다. 어떤 관계든 작은 비밀에서부터 큰 비밀까지 있을 수 있으며 정체성에 관한 비밀이 유독 다르거나 무거운 비밀이 아니다.

- 또한, 비밀을 만들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담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인식의 잘못이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인지하게 해준다.

- 그래도 힘이 든다면 커밍아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 준다. 하지만 이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며, 쉽지 않을 수 있다.

-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내담자에게는 이보든 갈등이 내담자의 잘못이 아니며 잘못된 사회의 탓이라는 걸 알려주고 자책하지 않도록 돕는다.

②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 가까운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하는 내담자님의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라고 공감과 지지를 전해준다.
-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가족들은 커밍아웃을 무시해버리거나 스스로를 매우 자책할 수 도 있다. 심각한 경우 내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가족들은 내담자의 정체성을 거부한다 하여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지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상기한다. 때문에 더 섬세한 사전 작업과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그러나 위의 말들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라는 것일 뿐이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꼭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커밍아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경우 성소수자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소수자란 걸 눈치 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팁을 준다.
- 경계하다.
- 한 번의 커밍아웃으로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으며, 커밍아웃 이후에도 상대의 포비아를 다루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 지금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하지 못하는 게 아니며, 인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라 는 것을 알려준다.

③ 결혼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

- 가족에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혼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갑갑할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해준다.
-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사회의 이성애중심적인 가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지 함께 생각해본다.
- 굳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더라도 ‘결혼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비혼으로 살겠다’ 라는 의지를 밝힐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족에게 잘 짜여진 인생설계를 들려준다거나 경제적으로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 좋다.
- 보통 가족의 결혼압력이 단기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음으로 힘들 때마다 털어놓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관련정보를 알려준다.
- 내담자가 가족의 요구 (소개를 받거나 선을 볼 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요령껏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④ 감금, 협박, 폭력 상황에 처한 경우

- 가족관계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냉대와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내담자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를 생각해본다.
- 내담자와 함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독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독립을 권유한다.
- 지금의 고통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마

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해보기를 권유한다.

- 혹시 가족 중에 내담자의 고통을 털어놓고,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 내담자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단체를 소개한다. (예: 여성폭력 관련 긴급전화 1366)

B.

1)내담유형- 부모, 자매, 형제 기타 친인척의 상담 요청

① 딸이나 자매가 레즈비언인 것 같다, 혹은 커밍아웃을 해왔다는 경우

② 배우자가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경우

2)사례

- 본 내담은 여러 상담사례를 모아 각색한 것입니다.

①

우연히 여동생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아니, 사실 평소에 그 아이를 조금 의심하고 있었기에, 우연한 기회에 일기장을 볼 기회가 생겨 들여다 본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제 여동생은 동성친구와 우정이상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동성애를 한다는데 한창 공부해야할 나이에 이상한 것에 빠져서 너무 걱정입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날까봐 부모님께는 일단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도 제가 일기를 본 것을 아직 모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동성애자로 남으면 어찌죠? 동생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②

저는 결혼생활 6년째인 기혼 남성입니다. 제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 전부터 아내가 외출이 잦아지고, 집에 돌아와 말수가 줄고...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5년이 넘어가니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저는 아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로부터 제가 아닌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여자를 사랑하게 될 줄은 자신도 몰랐다면 통곡을 하지만,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현재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에 대해선 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합의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라고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3)상담 팁

상담소에 문의하는 가족 내담자의 경우, 많은 수가 가족이 동성애자인 것을 최근에 알게 된 이들로, 이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배신감, 당혹감, 절망과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있다. 상담자는 이들이 평상심을 찾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가족들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하는 지에서부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물어온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절망적인 심정으로 상담소를 찾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동성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그들의 가족이 전혀 다른 낯선 레즈비언이 아니라 이제까지 알아왔던 바로 그 가족이란 것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레즈비언인 가족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담자가 매우 호모포비아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는데, 내담자와 싸우려 하지말자. 내담자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이라는 마음으로 끈기를 갖고 대한다.

① 딸이나 자매가 레즈비언인 것 같다, 혹은 커밍아웃을 해왔다는 경우

- 내담자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황임을 생각한다. 내담자에게는 그 사실이 매우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
- 내담자는 자신의 가족 중 일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 내담자가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세세히 알려준다.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인사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다.
- 만일 내담자가 딸이나 자매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해하여 그 사람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경우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짚어준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레즈비언 본인이 내담자에게 커밍아웃을 해온 경우, 그 의미에 대하여 알려 준다. 커밍아웃을 한 사람은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혹은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많은 시간을 준비해왔을 것이고, 큰 용기를 낸 것 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커밍아웃은 더욱 멀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 내담자의 딸 혹은 동생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적, 심리적, 성적인 이끌림 등은 전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자 욕구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여성과 남성 간의 애정과 성관계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다보니 동성 간의 애정과 성관계 등이 이상하고 더러운 것처럼 여겨져 왔을 뿐이다.

- 그러므로 내담자가 딸이나 자매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놔야 하는가에 대해 물어왔다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태도는 딸이나 자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 동성애자인 가족이 낯선 사람이 아닌 이제까지 알아왔던 바로 그 가족임을 알려준다.
- 내담자가 그 가족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안 좋은 사회의 편견의 벽을 뚫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의 녹록치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하지만 레즈비언도 충분히 매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에 내담자의 이해와 지지가 큰 도움이 되 줄 것 이라는 걸 알려준다.

부모 일 경우

- 내담자가 혹시 자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레즈비언이 된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왜냐하면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것은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계속된 자책은 오히려 그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딸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마치 나쁜 길로 빠지는 가족을 미리 돕지 못한 나쁜 사람처럼 스스로를 생각 하면 그런 내담자의 생각 속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 가족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기 어렵게 된다.

자매 일 경우

- 자매의 경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야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 수 있다. 내담자가 가족의 일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를 고민하는 경우 그것은 당사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내담자가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가족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을 결국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만 끼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누군가에게 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다.

② 배우자가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경우

- 내담자가 부인의 외도 사실로 인해 무척 힘들고 충격적인 상황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부인과 부인의 외도 상대에 대한 염려를 덧붙인다.
- 내담자가 부인에게 느끼고 있을 분노와 배신감을 미루어 짐작해본다.
- 현재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내담자의 부인이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담자의 부인이 교제한 상대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점 자체는 엄밀히 말하자면 논외사항이 된다. 동성 간의 교제라는 점에 내담자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내담자의 부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성 간의 교제라고 해서 외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동성 간의 교제라고 해서 여느 외도 이상으로 내담자의 부인이 이중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강조한다.
- 동성 간의 교제도 이성 간의 교제와 다름없이 서로에 대한 정서적 이끌림과 성적 욕구를 동반하는 교제라는 사실과 동성 간의 교제가 그 자체만으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숙지시킨다.
- 앞으로의 당면 과제는 ‘내담자, 내담자의 부인, 부인의 교제상대’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 부부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맺은 연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깨끗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상담하지 않는다.

- 먼저 부부가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심정을 털어놓고, 서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의 부부 관계 전반에 대해 함께 찬찬히 돌이켜보면서 최근 있었던 부인의 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나가길 바란다고 이야기 한다.

- 대화를 하면서 내담자가 느끼는 당혹감, 배신감, 분노에 대해서도 부인에게 말하기를 권한다.

-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폭력은 절대 금할 것을 강조한다. 욕설과 물리적 폭행은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임과 동시에 순조로운 대화를 막아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 만일 부인이 더 이상의 외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길 원한다고 할 때, 그리고 내담자가 그런 부인의 다짐을 믿기로 결심한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부부 관계를 만들어 나가셔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후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노력해 나가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 상담 실제

- 본 내담은 여러 상담사례를 모아 각색한 것입니다.

어머니께 커밍아웃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둘입니다. 어머니와 저 뿐 이구요. 어머니와 저는 마치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자매 같기도 하고요. 매일 하루 일과를 일기 쓰듯 서로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녀의 유일한 취미지요. 우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만 빼고요....

형제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데, 어머니에게 비밀을 갖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꾸만 생깁니다.

손자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의 꿈을 이뤄드릴 수 없는 저는 불효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냥 솔직히 다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환영

② 문제 초점의 명료화 - 어머니께 커밍아웃하고 싶음. 거짓말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힘들.

- ③ 공감과 격려를 통한 라포 형성 - 친밀한 사이인 어머니께 비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공감.
- ④ 목표 설정 -
- ⑤ 정보 제공 - 1.커밍아웃 2.
- ⑥ 결론
- ⑦ 끝인사

2. 레즈비언의 지인

레즈비언은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내적, 외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10대 또래집단에서는 기존 사회에서 보다는 더 노골적이고, 심한 호모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은 또래로부터 폭력과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십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 한때의 탈선, 교정해야할 정체성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대 이반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십대 이후라 해서 레즈비언이 이러한 편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많은 이성애자 지인들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넌 언제 결혼 할래?”라는 식으로 결혼에 대한 은근한 압력을 준다. 또 남자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한다. 대화의 주제가 엇갈리게 되고 여기에 자신의 교체 이야기를 터놓을 수 없다는 점까지 더해져 관계가 점점 피상적으로 흘러가기 쉽다.

속해있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 또한 다 다르다. 직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와 연결 돼있을 때,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상황이 된다 해도 그 곳에서 자신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 종교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집단의 경우에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이 집단에서 믿고 있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

A.

1)내담유형-본인의 상담요청

- ①커밍아웃 혹은 아웃팅 이후 갈등
- ②이반친구가 없어 힘들
- ③이반 커뮤니티가 싫음
- ④레즈비언 정체성과 신앙생활 문제

2)내담사례

- 본 내담은 여러 상담사례를 모아 각색한 것입니다.

①

전 지금껏 줄곧 이성애자인 친구를 짝사랑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반이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일반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포비아가 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신 정신에 견디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고백해 버렸습니다. 나는 여자만 좋아해 왔고 그 상대는 너라고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는 좀 당황하더니 그럭저럭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네요. 학교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술김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게 후회됩니다. 그냥 친구로라도 좋으니 잘 지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안녕하세요. 전 제가 동성애자임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힘든 건 주위에 저 같은 동성애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수로 알고 있는 동성애자친구와의 관계도 그냥 친구들과 달리 어색하기만 합니다. 좁은데서 관계가 부딪히다보니 원래 이반친구와의 관계들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더 다른 곳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 보고 싶어요.

③

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싫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익명으로 만나는 것도 싫고, 번개나 정모 등의 모임도 너무 인위적이라 싫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친구 전 애인이랑 사귀기도 하고.... 너무 좁고 갑갑합니다. 역시 일반처럼 자연스러운 모임은 불가능 하겠죠?

④

저의 아버님은 목사입니다. 때문에 저도 많은 시간을 교회활동을 하며 보냅니다. 친구들도 거의 다 교회에서 사귀는 아이들이구요. 다들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커밍아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이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차마 제앞에선 말을 하진 못하지만요. 작은 교회라 소문이 날까봐, 게다가 아버님이 목사인데 딸이 동성애자라니...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상담 팁

상담자는 내담자가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가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를 유의하며 상담해야한다. 내담자와 상대가 단순히 친교위주의 관계이고 생활에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상대의 극심한 호모포비아가 내담자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면, 내담자에게 그 관계를 과감히 끊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 학교에서, 직장에서, 종교 집단에서 등 -,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

기 쉽다.

내담자가 이러한 집단과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긍심이 포비아적인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져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지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반커뮤니티가 그 자체로 타 커뮤니티와 다르다고 생각 하는 내담자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이반커뮤니티의 특수성이고 어떤 것이 선입견이 작용한 부분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①커밍아웃 혹은 아웃팅 이후 갈등

- 커밍아웃이나 아웃팅 이후 내담자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은 무시, 혐오표현, 폭력 같은 개인차원의 갈등부터 소문, 아웃팅, 따돌림, 차별, 집단폭력 등 집단차원으로 이어진 경우 까지 다양하다.
- 내담자가 주변사람(들)의 포비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임을 기억한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공감을 표한다.
- 내담자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자긍심을 잃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부탁한다. 용기를 내기를, 상담원과 함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 내담자에게 동성애자라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동성애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해준다. 내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동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은 남에게 비난받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가장 급한 것은 내담자의 정체성을 알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고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고, “아웃팅은 엄연한 범죄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는 것을 알려야 할 경우도 있다.
- 여러 레즈비언 단체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런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레즈비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 차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준다.

학교생활

- 또래집단에서 자행되는 차별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극단적인지를 이해한다.
- 학교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십대의 경우, 비우호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해본다.
- 지금 내담자를 괴롭히고 있는 다른 학생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 한다.
- 또래뿐 아니라 그들의 괴롭힘을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교사가 있다면 이 또한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짚는다.
- 내담자와 소통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또래 레즈비언(집단)이 있는 것이 내담자에게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 싸이월드 클럽이나 다음 카페에 ‘이반’으로 검색하면 커뮤니티를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라틴 (<http://cafe.daum.net/Rateen>)을 들 수

있다.

직장생활

- 경제적 문제가 관여된 직장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는 내담자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
- 내담자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이 사내 피해로 연결될 때, 내담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잘못된 사회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요령일 뿐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않도록 돕는다. 약간의 거짓말은 누구나 필요할 수 있다.
- 내담자가 그 직장을 떠나려 한다면 용기에 지지를 표현하며, 차후를 위한 계획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이러한 차별이나 손해가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②이반친구가 없어 힘들

- 자신의 성정체성을 이성애자에게 이해받기 힘든 호모포비아적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반친구가 없을 때 겪게 될 고립감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감을 표현한다.
- 이러한 고민에 있어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돕고, 동성애자를 비가시화 시키고,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의 잘못임을 짚는다.
- 내담자 뿐 만아니라 많은 레즈비언들이 이러한 고민을 안고 상담소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 티지넷 www.tgnet.co.kr / 미유넷 www.miunet.co.kr 등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소개시켜 준다.(20세 이상 가입가능) 또는 다음넷 카페에 ‘레즈비언, 여성이반’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친목 커뮤니티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회원가입을 권유할 수 도 있다. 한국레즈비언 상담소의 회원이 되면 상담소에서 주최하는 정기, 비정기적인 각종 회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회원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응원해준다.

③이반 커뮤니티가 싫음

-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도 같은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관이나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 만약 내담자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이반’커뮤니티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면 이는 편견일 수 있다고 지적해준다.
- 커뮤니티는 레즈비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이유 없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

벼울 것이라는 편견을 들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며, 커뮤니티도 각각의 성격이 있으며 매우 다양한 곳이 있다고 말해준다.

-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특성상, 온라인을 통하거나 온라인 활동 위주인 곳이 많은데 내담자가 이를 인위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비 이반 커뮤니티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활동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일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

-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레즈비언인 자신을 지지해주는 좋은 지지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상처를 주는 곳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상담원이 숙지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④레즈비언 정체성과 신앙생활 문제

- 많은 종교 활동에서 내담자의 레즈비언 정체성은 집단 내의 가치와 충돌하기 쉽다는 것을 이해한다.

- 종교 활동을 구성하는 다른 이들 뿐 아니라 내담자 자신도, 이러한 가치를 접하며 활동해왔을 것을 이해한다.

- 동성애는 절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입시키는 사회가 잘못된 것

인데 종교 역시 사회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짚는다.

- 내담자가 선택하고 받아들인 종교인만큼 종교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그 종교 자체를 상담자가 부정해선 안된다. 그 종교 내에서도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내담자에게 종교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담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본질적이기 보다는 사회통념 속에서 재구성된 가치라고 말해준다.

- 내담자의 고민이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상담자가** <http://www.nuruk.net/>(한국기독교총학생연합회)의 정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담자에게 들어가 볼 것을 권할 수도 있다.

- 미유티나 티지넷 혹은 여러 이반 커뮤니티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내담자가 극단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곳에서 빠져나올 것을 권유할 수도 있다.

B.

1)내담유형-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의 상담요청

①친구 혹은 동료가 커밍아웃을 했다 혹은 레즈비언인 것 같다

②동성 친구로부터 고백을 받음

2)내담 사례

- 본 내담은 여러 상담사례를 모아 각색한 것입니다.

① + ②

유치원 때부터 친하던 여자 친구가 저에게 좋아한다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질투가 나서 참을 수 없어 고백했다는 친구를 더 이상 장난이라고 생각 할 수 없었지요. 구구절절 지나온 시간들을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친구를 보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정말 난감했습니다. 솔직하게 널 친구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지만 무너지는 그 애 모습을 보고만 있기도 힘이 듭니다. 내버려두면 큰일이 날 것만 같고, 그렇다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못할 거 같고.

게다가 친구는 자기가 동생애자라서 싫어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구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동성애자가 될 수는 노릇인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상담 팁

커밍아웃이나 아웃팅으로 지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의심을 품고 있는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해오게 된다. ‘레즈비언 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문의해오는 내담자부터, 호기심에, 혹은 두려움이나 혐오감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까지 다양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가 스스로의 호모포비아를 돌아보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동성애와 이성애를 치환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①친구 혹은 동료가 커밍아웃을 했다 혹은 레즈비언인 것 같다

- 레즈비언은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레즈비언에 대해 이유 없는 혐오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준다.

- 어떻게 해서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동성애를 어떻게 고칠 수 있나, 라고 질문한다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꿔서 생각해볼길 권한다. 동성애나 이성애나 자연스럽게 존중받아야 할 감정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 그 친구 혹은 동료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친구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친구가 레즈비언이든, 그렇지 않은 내담자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외로울까봐 걱정하는 경우 꼭 그렇지 않은 않다는 것, 스스로를 긍정해나가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

친구 곁에 내담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준다.

-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내담자를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과 그 친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내담자에게 커밍아웃을 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커밍아웃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동성의 지인이 커밍아웃을 해왔다고 해서 그 자체를 스스로에 대한 호감의 표현이라 생각하는 내담자가 있다면, 커밍아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커밍아웃이 바로 호감의 표현인 것은 아니라고 말해준다.

- 아직 친구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친구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갑작스럽게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권유한다.

② 동성 친구로부터 고백을 받음

- 동성에게 고백 받은 경험이 동성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을 내담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공감해준다.

- 하지만 이는 동성애가 이상한 것이거나 비정상 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성애주의와 가부장주의에 물든 사회 때문임을 알려준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 상대의 성정체성을 동의없이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것을 꼭 주지시킨다.

- 성별을 떠나 고백해온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를 권한다.

- 고백해온 사람과 대화나누기를 권한다. 앞으로의 둘의 관계에 관해,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 고백을 받아들이건, 친구로 남건, 끊어내건 확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내담자 혼자 결정을 유보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일관하는 것은 상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 고백을 거절한다면, 이를 전할 때 ‘상대가 동성이어서, 혹은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어서’등의 표현은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을 논하는데 성별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고백한 사실을 자책하게 만들 수 있다.

-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상대는 고백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수 있다. 내담자가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c. 상담실제

유치원 때부터 친하던 여자 친구가 저에게 좋아한다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질투가 나서 참을 수 없어 고백했다는 친구를 더 이상 장난이라고 생각 할 수 없었지요. 구구절절 지나온 시간들을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친구를 보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정말 난감했습

니다. 솔직하게 널 친구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지만 무너지는 그 애 모습을 보고만 있기도 힘이 듭니다. 내버려두면 큰일이 날 것만 같고, 그렇다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못할 거 같고.

게다가 친구는 자기가 동생애자라서 싫어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구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동성애자가 될 수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 ① 환영
- ② 문제 초점의 명료화
- ③ 공감과 격려를 통한 라포 형성
- ④ 목표 설정
- ⑤ 정보 제공
- ⑥ 결론
- ⑦ 끝인사

인용: 데조로/주제별 상담2; 관계속의 레즈비언/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 자료집/2008

인용: 참고: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2004

<9강> 주제별 상담 5: 교제 및 가족 구성

정은지 (라와디)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 교제 및 가족구성 상담의 필요성

연애에 관련한 상담이나 수다는 대부분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과 대화로 풀게 되지만 레즈비언의 경우 지지집단 없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동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극히 적다. 동거를 계획하거나 가족을 꾸리는 꿈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생각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이다.

때문에 상담소에는 교제와 가족구성에 관한 상담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상담의 경우 내담자는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1. 교제

레즈비언 교제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예를 들면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아 걱정이라든지, 애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든지, 헤어진 애인에 대한 배심감이라든지)은 사실 이성애자 커플 사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레즈비언 커플이기 때문에 이성애자 커플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도 둘이 사귀는 걸 말하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된 커플 관계를 가져가며 위태로워지는 문제, 교제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겨도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상담할 수 없는 문제, 마땅한 상담 기관이 많지 않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이러한 특수성과 편견을 구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레즈비언 교제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들

① 친구들 간의 깊은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동료애'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정인지 사랑인지 감정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동성의 상대방에게 끌리는 감정에 대해서만은 유독 '우정'이 아닌지를 의심한다. 이런 의심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감정을 이성에게 느낄 경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성에게 느끼는 경우 '우정'이 아닐까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어린 말들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묻고 답하는 것이 좋다.

② 레즈비언의 교제는 성적인 이끌림으로만 이루어져있다?

-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인 이끌림을 말한다. 동성애자는 동성의 상대방에게 감정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으로 이끌리

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동성애를 ‘연애’ 또는 ‘성적’인 감정에 국한시켜 생각하지만 이것은 편견일 뿐이다.

③ 레즈비언 커플은 남자역할, 여자역할을 나눈다?

- 레즈비언들이 사귀는 관계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것을 굳이 남자역할, 여자역할로 나누어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에 깔린 생각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성애자 커플 중에도 관계를 이끌어가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챙겨주기 좋아하는 남성도 많이 있듯 남자역할, 여자역할에 대한 규정은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고 만들어놓은 것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레즈비언 커플 간의 관계에서 성 역할이 구분된 경우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특히 1970년대 레즈비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남자역할, 여자역할과 같은 구분이나 규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 그러나 당시엔 한국에 레즈비언 역할 모델이 전혀 없었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레즈비언 권리운동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온라인, 오프라인 레즈비언 커뮤니티 수도 급속도로 증가한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삶의 변화와 더불어 레즈비언 커플의 관계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레즈비언 커플 간에 굳이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하는 구분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랑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 그런 식의 역할 구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④ 레즈비언 커플은 오래 교제하지 않는다?

- 이런 식의 편견은 위 ③의 편견과 비슷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섹스에 탐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성애자들 중 많은 이들이 오래 지속되는 교제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사실 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섹스에 탐닉하는 인구는 동성애자들보다 이성애자들의 인구가 훨씬 많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위 질문은 이성애자들 시각에서 동성애자들을 ‘성적 탐닉’ 등으로 비하하는 것을 전제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 커플은 오래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질문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비하를 담고 있다.

A.

1) 교제관계 속의 레즈비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담유형

- ① 고백, 교제의 시작
- ② 애인이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불안함
- ③ 애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감
- ④ 헤어진 애인에 대한 배신감
- ⑤ 청산되지 않은 금전적 관계
- ⑥ 이별의 아픔
- ⑦ 성관계

2)상담 팁

① 고백, 교제의 시작

- 누군가에 대한 이끌림이나 사랑, 함께 있고 싶다는 욕구, 안아주거나 안기고 싶다는 마음, 이런 감정과 생각들은 상대방이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 소중한 것이다. 내담자님이 현재 느끼는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관계가 어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담이 많다. 감정을 고백하느냐 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성격,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원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기가 무척 어렵다.
- 일단은 내담자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 누군가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그것은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떠나서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아낄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아껴주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 고백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은 자신의 감정, 경험, 삶에 대해 차분히 깊이 있게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 만약 내담자가 고백하기로 결정했다면 솔직하고 차분하게 정리된 얘기를 할 것을 권하며, 상대방이 'NO'라고 할 경우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또 상대방이 너무 당혹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을지를 고려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② 애인이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불안함

-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내담자의 애인을 연애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여느 동성 친구와는 다소 다른 느낌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런 분위기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 게다가 내담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커플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을 생각한다.
- 내담자가 '동성과 교제하면 원래 이런 것인가'하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은 이반 커플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만은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내담자가 이반 관계란 원래 이런 것인가 하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사귀기 시작한 소중한 만남인 만큼 관계를 잘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도 관계에 꼭 필요하다. 이 문제를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애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해보길 권한다. 이런 힘든 상태를 혼자 감당하면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내담자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일이다.

③ 애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감

- 사실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끌릴 수 있다. 애

인이 채워주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과 만나고 싶을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체는 사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쁘다, 나쁘지 않다’로 가치 평가를 내리기도 힘든 문제이다.

-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는 좀 더 나은 선택과 그렇지 못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애인은 뒷전으로 한 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애인에게 돌아와서는 기대려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굳이 만나고 다니지는 않지만 애인과 같이 있을 때 불만족스러운 듯한 태도를 늘 취하고 있는다던가 하는 식이면 본인도 힘들고 애인도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내담자의 태도를 애인도 분명 느낄 것이다. 그런 애인의 모습을 보며 본인도 점점 더 괴로워진다.

- 다른 생각이 드는 정도는 내담자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살짝 흔들렸던 마음을 금세 다잡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다. 본인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실행에 옮겼을 뿐이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갈팡질팡 하고 있거나 하면서 관련된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결단력 있게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

- 더 이상 애인만 바라보고 있게 되지 않은 상태,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 보고 싶은 상태라면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본인의 마음을 한 번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권한다.

-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마음도 많이 아플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중에 후회를 덜 하도록, 기쁨이 더 크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담자에게 더 좋다.

- 애인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내담자님의 생각을 전달할 때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다가가야 한다는 점이다.

④ 헤어진 애인에 대한 배신감

- 내담자와 교제하던 시기부터 이미 다른 애인을 사귀고 있었다고 하며 헤어진 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슬퍼하고, 분노하는 경우 그 당혹감과 절망감에 공감해준다.

- 하지만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갚아주는 식의 행동을 한다던지 아우팅을 하는 것은 내담자 자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로를 상처 입히는 방식의 복수가 돌고 돌면 둘 다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시간이 지나 분노와 배신감이 잦아들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누며 사과를 받거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추스를 수 있는 것은 본인뿐이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문제는 강제로 그 방향을 틀 수 없는 것이기에 전 애인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잘 풀어 설명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붙들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한들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닐 것이다.

- 정말 쉽지 않겠지만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해보기를 권한다.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는다면가는 방식으로 그 분노를 생산적으로 발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⑤ 청산되지 않은 금전적 관계

- 내담자는 전 애인과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린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태라는 것을 생각한다.

- 현재까지 동성 간 교제관계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명(예: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전 애인이 자신이 빌린 돈이나 물건을 꼭 갚겠다고 했으면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준다.

- 내담자가 그 때문에 빚을 지고, 현재 큰 부담감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이 괴롭고, 힘들 것이라는 것에 공감과 위로를 표한다.

⑥ 이별의 아픔

- 언제까지고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담자는 큰 상실감으로 인해 극단의 경우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내담자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표한다.

-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푹 빠져 있고는 한다. 이런 상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활이 통제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 시간을 가지고 내담자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유부터 찾기를 권한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헤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담자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 것이다.

⑦ 성관계

- 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가 유달리 이상한 사람이라는 자책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스킨십에 대해서 여러 다른 느낌과 욕구,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안에서도 성관계에 관한 감정들이 시기나 상황, 상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스킨십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 지금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느낌들이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다. 자존심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앓을수록 상대방의 오해와 불신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애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길 권한다. 또 애인과 대화를 나누어나가며 내담자 자신에게도 ‘내가 왜 스킨십을 피하고 싶은지, 무섭고,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

을 던지기를 권한다.

- 반대로 애인은 그렇지 않은데 내담자만 성관계를 원하고 성욕을 느낀다는 상담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성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며 내담자가 이상하거나 더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사랑은 서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눈빛만으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어쩌면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식에는 성관계도 당연히 있고, 몸으로 교감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일보다 나쁜 것이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상대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만들어가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은 둘이 함께 있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서로의 느낌이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해결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애인이 혹시 동성 간 성관계가 더럽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전달하기를 권한다.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거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서로가 원하는 관계의 상이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조심스레 말해준다.

⑧ 이별 뒤 스토킹 및 아우팅 협박

- 현재 내담자가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임을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담자가 우선 마음을 굳게 먹고,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권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내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떠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 지금 그 사람이 내담자에게 퍼붓고 있는 각종 욕들과 함부로 내뱉는 공격성 말들 그리고 협박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이다. 이런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 상대방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협박’인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구타를 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없는 상태로 전화, 문자 등이 빈도 높게 오고 있는 것이라면 별반 위험한 게 아니라는 정도로 경찰은 인식하기 쉽다.

- 그렇지만 전 애인으로부터 오는 협박성 문자는 지우지 말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고, 걸려왔다가 이쪽에서 받으면 끊기는 전화 등은 증거로 보관해 두면 좋다. 녹음이 되는 전화라면 전화가 걸려왔다 끊기는 것들을 다 녹음해두고 걸려온 시간을 기록해두고 하면 증거로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가능하면 그러한 자료들을 없애지 말고 남겨두기를 조언한다.

-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러지 말라고 애원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이것은 불가능할 확률이 높을 경우가 많지만), 겁을 줄 수도 있다(예: “계속 이러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내가 이미 관련기관에 다 알아봤다. 너 이거 후회할 일이다. 나 우습게보지 마라.” 등). 내담자가 상대방의 평소 스타일을 알고 있을 터이기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무슨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대체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한다. 사실 상담원은 이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정확하게 말해주기가 힘들다.

⑨ 애인(혹은 본인)이 이성교제를 시도하고자 할 때

-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동성교제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이다. 다만 동성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무런 이끌림도 없이 이성을 만나기로 결심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것은 본인과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점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준다.

- 내담자가 지금까지 동성과 교제를 하다가 이성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이래도 되는 건가’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준다.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힘들게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느 순간 자신이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동성애자로 정체화했을 때와 비슷한 충격과 고민을 겪을 수 있다. 어쨌든 인생이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은 것이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할지 모두 자신이 행복한 쪽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세상은 한 쪽만이 정상이고, 옳은 것이라고 하지만 동성애, 이성애는 모두 자연스러운 성정체성의 하나이다.

2. 가족구성

A. 동거

교제를 하며 느낄 수 있는 ‘함께 있고 싶다’ ‘생활을 공유하고 싶다’는 욕구에 많은 커플들이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 동거를 하게 되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커지게 된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분담해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다. 여성들의 동거를 커플간 동거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 시선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덜하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거를 하며 성격의 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이나 현실적인 가사분담 갈등 등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각자의 사적인 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분리된 공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 규칙과 약속을 만들고 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커플 중 한사람이 권위나 힘을 앞세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동거관계에 있어서는 특히나 위협적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격려하면서도 동거는 현실적인 문제며, 많은 대화와, 준비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1) 내담유형

① 파트너와의 동거를 고민하고 있음

② 동거 중 이별하게 됨

2)내담 예시

①안녕하세요 ^^*

저는 24살이고 아직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인과 동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사귀기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뜻이 잘 맞고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싶어서 동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구요.

같이 살 준비를 한다하니 주변에서 걱정이 많이 되나 봅니다. 절대 좋지 않다고요. 이래저래 고민도 됩니다. 동거를 하는 것이 좋을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②저와 제 파트너는 교제한지 3년 정도 되었고, 같이 산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연인 같은 사이라기보다 친 언니 동생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는 언니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더군요. 놀랐지만 저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2년간 함께 지내오다가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집 문제도 있구요. 동거하지 않았더라면 더 이전에 헤어졌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3)상담팁

내담자가 동거는 현실임을 잊지 않도록, 파트너와의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로 이성애자부부 모델을 내담자에게 강요해선 안된다.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커플이 고립되지 않도록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외부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① 파트너와의 동거를 고민하고 있음

- 파트너와 동거를 하고 싶어 하는 내담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응원해준다.

- 동거의 장단점을 짚어준다.

- 상대가 내담자와 다른 환경에서 이제껏 살아왔으며,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내담자와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화를 하며 많은 부분을 서로에게 맞춰가야 할 것이다. 대화 없이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 동거를 한다고 해서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자신의 영역도 지켜 나갈 줄 아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양쪽이 공동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명이 정제활동을 맡고 한명이 가사 활동을 맡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 가능한 경우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다.
- 어떠한 상황이라 해도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② 동거 중 이별하게 됨

- 이별의 슬픔과 이제까지 유지해오던 생활이 바뀐다는 두려움을 함께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본다. 내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 상대방과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살던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구매한 것들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B. 동성혼, 파트너십, 입양

현재 우리나라에 동성간 커플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해 주는 법적 조항은 전무하다. 이는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 탓이 크다. 하지만 동반자 관계를 원하는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같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다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법적 조항을 제정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식 혼인 관계는 아니기에 입양 등의 제약이 있는 파트너십(프랑스, 독일 등)과 동성 결혼 합법화(네덜란드, 캐나다 등)가 그것이다.

많은 내담자가 이러한 다른 나라의 가족 구성권 정보를 접한 후, 국내법상의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에 대해 문의해왔다.

B.

1)내담유형

- ① 동성결혼, 파트너 쉽 문의
- ② 사실혼관계에 대한 문의,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
- ③ 입양에 관한 문의

2)내담 예시

- ①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레즈비언 입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점점 안정된 파트너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해외에서는 파트너십이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리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에서의 동성결혼합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안녕하세요. 저와 제 파트너는 약 3년간 동거해왔으며,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결혼이나 파트너십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재산을 반반 나누어서 각자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참 싫네요. 법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공동
명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③ 저희는 5년째 같이 살고 있는 커플입니다.
서로 무척 아끼고, 물론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갖고 싶어요. 이제 슬슬 자리도 잡혀가고, 한 2-3년만 더 있으면 여건이
가능해 질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저희 둘의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3)상담팁

동성혼, 파트너십, 입양 등이 현행법상이나 현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
의에서 상담자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고, 동성혼이나 파트너십을 인정한 해외소식이나 국내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왔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나가는 방향으로 상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이러한 정보들의 수집하고 나누는 것에 상담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
는 부분이다.

내담자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가족을 만들어 나가거나 아이를 양육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는 방향으로 상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동성결혼, 파트너십 문의

- 제도에 편입하여 받을 수 있는 안정감과 보호에서 소외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
인지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 (1)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네덜란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한 것에 이어, 2000년 1월 1일부터 자녀 입양까지 인정하
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 "부부"는 법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증
명하면 누구든지 자녀(네덜란드 아동으로만 제한)를 입양할 수 있다.

>>벨기에

2003년 2월 13일에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2003년에 동성애 관계를 금지한 모든 법률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결혼과 입양 등 동성 부부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2003년, 온타리오 주, 오타와 주, 퀘벡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노바스코샤 주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연방정부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한 상태이고, 특히 오타와 주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동성 커플도 오타와 주에서 결혼하면 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미국

1996년 하와이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2004년 5월부터 동성 부부들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와 결혼증명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9년 현재 다시 동성혼 불법화)

>>스페인

2005년 7월 동성결혼법이 제정되어 동성 부부들은 상속권과 연금수급권, 자녀입양권 등 이성 부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2) 동성애자 커플의 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동성애자의 커플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평생 동반자법', 사회연대협약(PACS), 시민결합(Civil Union)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미국의 버몬트 주와 코네티컷 주, 그리고 영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간 결합과 동거로 이루어지는 사실혼에 대해 세금, 연금, 가족수당, 병원 면회권, 상속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법적인 (이성애자) 부부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다만 입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도 동성결혼과 파트너쉽 제도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② 사실혼관계에 대한 문의,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

- 한국사회에서는 동성간 사실혼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 이에 따르는 문제 중 헤어짐이나 한쪽의 죽음을 겪을 때의 재산분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타인과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중 대부분은행에서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세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월세 임대차계약 시에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주택 공동소유 역시 가능하다. 관련정보

를 찾아보길 권한다.)

- 의료위임장이나 유언장에 파트너의 권리를 명시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확실한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입양에 관한 문의

-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내담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1월부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에 들어있던 `혼인 중일 것'이라는 규정을 전격 삭제, 현행법상의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은 이들도 입양이 가능해졌다.

- 커플이 입양을 문의해 왔을 경우 파트너 공동의 친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커플 중 한명의 친권만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 실정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들의 엄격한 내부 규정을 통과해야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35세를 넘었어야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성)기혼자와 달리 자녀양육계획서와 입양적격추천서가 필요하다.)

- 입양이라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멀리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간다면 불가능한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내담자의 원하는 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응원해준다.

인용:데조로/주제별 상담2; 관계속의 레즈비언/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 자료집/2008

참고: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2004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 위한 기초자료집/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임/2008

<10강> 주제별 상담 6: 우울 다루기

루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 우울의 모습들

정서 증상:

슬픔, 좌절감, 불행감, 죄책감, 공허감, 고독감, 무가치감, 허무감, 절망감

삶에 대한 동기와 욕구의 저하

만족감과 즐거움의 감소

둔감한 정서상태

분노감정이나 불안정하고 과민한 기분

인지적 증상:

낮은 자존감: 자신의 무능력하고 열등하고 부적절하다는 왜곡된 생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견해, 비관적 사고

주의집중, 기억력, 사고력 문제, 우유부단함

자살사고

정신증적 증상: 피해 망상, 우울망상

행동 증상:

일을 시작하지 못함

활력의 저하: 쉽게 지치고 피곤함

사회적 활동의 회피. 위축된 생활

수면 문제

행동과 사고가 느려지고 활기가 감소

초조, 좌불안석

자살시도

생리적 증상:

식욕저하 혹은 식욕 감소

성욕이나 성에 대한 흥미의 감소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신체 증상에 집착

우울삽화(DSM-IV-TR)

- 1)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에서 드러난다
- 2)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
- 3) 현저한 체중감소나 체중증가 혹은 현저한 식욕감소나 증가

- 4) 불면 혹은 과다 수면
- 5)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 6) 피로 혹은 활력상실
- 7) 무가치감 혹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 8)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함
- 9)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

- 주요 우울장애: 5개 이상의 증상이 연속 2주 동안 지속. 1) 혹은 2)를 반드시 만족
- 기분부전 장애: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고, 우울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다
- 우울성격장애
- 양극성 장애

2. 레즈비언의 심리적 어려움

자기-부정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나의 잘못,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

고립감, 소외감, 대인관계 회피

자기파괴적 행동

극단적인 정서적 기복

‘정직함’과 ‘거짓됨’

주요우울장애, 자살 시도, 불안 장애, 약물남용

약물치료 외에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거나 자조집단에 참여

(Cochran,Sullivan,&Mays,2003)

3. 어려움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경험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별

사회적 스트레스, 낙인

정체성에 적대적인 가족, 친구, 주변환경

가족, 친구의 거부, 상실

사회적 공격과 폭력

사회적 지지의 부재

이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압

알려지는 것, 아웃팅에 대한 위협감

인생의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경험

레즈비언의 심리장애의 위험요인으로서는 사회적 낙인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비롯
(Fife&Wright,2000;Mays,&Cochran,2001)

피해와 차별의 과거력 (Herek,Gillis,&Cogan1999;Krieger&Sidney,1997)

4. 레즈비언의 심리적 건강

- 파트너의 존재, 사회적 지지는 레즈비언 여성의 우울을 감소(Ayala & Coleman, 2000)
- 대안적인 가족 (Cooperman et al., 2003)
- 가족이나 동료보다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획득(Bradford et al., 1997)

내면의 뿌리깊은 편견과 전형을 제거

다른 사람과 진실된 상호작용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신념과 오해를 수정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갖기

자기 수용의 과정을 촉진

‘정직함’과 ‘자기보호’: 한계를 정하기, 도움을 청하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함’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우고 자기 혐오를 감소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외부의 혐오에 거리를 두어 가는 과정

부정을 우리의 자기개념이나 자아상에 적용시키지 않고 버텨내기

5. ‘건강한 레즈비언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활동가의 견해

6. 레즈비언 인권 활동가의 역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 마련

지원체계의 선택

치료자의 선택

<11강> 주제별 상담 7: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이문자(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I.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이해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족 구성원간에 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족 구성원:

여기에서 가족구성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배우자, 이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동거관계에 있는 배우자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양자, 양녀
-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배우자와 혼외 관계에 있는 자녀의 관계
- *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의 종류

폭력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 **신체적 학대** : 폭행, 구타 등 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
- * **정서적 학대** :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 * **성적 학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집착을 강요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입히는 것
- * **경제적 학대** : 돈을 벌거나 쓰거나 혹은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

2. 원인

아내에 대한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한편에서는 구타당한 남편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내구타’가 워낙 보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구타당하는 여성 문제의 성격을 우선 규명할 필요가 있다.

1) ‘아내구타’와 여성주의 이론

① 여성에 대한 권력과 통제

아내에 대한 폭력을 ‘결혼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남편이 ‘자기’의 여자에 대한 일반적 통제를 행사하려는 욕망이라고 볼수 있으며, 그것이 가부장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가부장적 테러리즘(Johnson, 1995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재인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아내구타는 꼭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만 아니다. 가부장적 남성의 통제의 근본적인 동기가 상대방 통제의 필요성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제 전략을 구사한다. '아내구타'가 시대와 지역을 넘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은 이문제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 분석 방법으로는 이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내구타'는 명확히 성별화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의 문제는 가장 쉽게 간과 된다. 가정폭력적 접근 방식은 왜 언제나 때리는 사람은 '남성'이고 맞는 사람을 '여성'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남편이 스트레스 때문에 때린다면 왜 직장상사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안 때리는지, 술 때문에 때린다면 왜 아내들은 술을 먹고도 남편을 때리지 않는지, 종교와 성격 차이 질투 등 부부 갈등 때문에 때린다면 왜 남편들은 이혼한 이후에도 전 부인을 때리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② 공/사 분리 관념과 여성인권

남편의 폭력은 권력을 가진(가지려는) 자의 의도적인 통제 행위지만, 단지 가족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왔다. 인간의 활동세계를 공/사로 구분하는 관념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폭력을 분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을 가부장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공/사 영역 분리는 여성을 개인의 위치로 승격시키는 것과 가부장에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전략이었다.(Fox-Genovese, 1977, 하트만, 1988 재인용). 가족은 사회로부터 제외시켜 사적인 영역으로 만듦으로서, 남성 가장을 사회에 대해 가족의 이해를 대표하게 되었다. 여성은 사회적 주체/개인이 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보다 '누구의 아내'일 때 정상성을 획득하고 보다 많은 자원을 갖게 된다. 가정적인 여성이 된다는 것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외부의 도움과 대가로 한 남성과 결혼하는데, 바로 그 남성으로부터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사회도 당사자도 인정하기 힘들다. 즉 공/사경계는 남녀의 '생물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여 비역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남성 권력의 산물로, 여성의 저항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된다.

이처럼 공/사경계는 남녀의 '생물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여 비역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남성 권력의 산물로, 여성의 저항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된다.

이처럼 공/사 분리 관념을 여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데 결림돌이었다. 여성폭력이 인간이 안전과 존엄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적 영역의 사소한 문제라는 인식을, 여성을 보편적인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구타하는 남편들은 곧잘 이런 말을 한다. '내 마누가 내가 때리는데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여자가 말을 안들으면 때려서라도 고치고 살아야지..' 사회가 남성만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고 남성의 폭력을 방조,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여성폭력이 인권의 문제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공적 영역 중심, 남성 중심의 인권 개념을 물론 '아내구타' 자체가 다른 시각에서 비판,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여성폭력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근대적 인권 개념의 한계가 지적되고, 이제까지 비정치적인 공간이라고 간주되었던 집안에서 개인들간의 억압 관계에도 인권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3) 요인

(1) 성역할에 내재한 폭력

일상적인 가족 생활은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각자 성별화된 역할(gender role)에 충실함으로서 유지, 지속된다. 개인인 남성과 여성은 가족 가족제도를 통해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를 갖게 되고, 그 지위는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노동과 규범을 요구한다. 결혼과 가족은 각 개인들에서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확고하게 부여하는 핵심적인 사회 장치이자 성별관계를 생산하는 공장(gender factory)과 같다.

‘아내구타’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다. 개인으로서,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여성을 남성에게 그렇게 당연하게 오랫동안 폭력을 당할 이유가 없다. 즉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내의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

① 아내교육의 ‘권리와 의무’

‘아내구타’가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만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은 폭력남편이 ‘정신병자’이거나 ‘성격파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남성의 자연적인 행위(본능적인 공격성)로 인식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이들을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자로 보았으나 이후 여성주의자, 사회학자에 의해 반박되었다. 폭력남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아내들은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존경받거나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호소한다. 아내를 때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편을 물론 아내도 어느정도 수긍하게 된다. 남자는 가정 안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서야 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는데는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겨서 남편에게 임시조치, 보호처분, 상담명령,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잘못했으므로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이 여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경찰이 가해자로 조작해서, 억울하고 분한마음을 호소한다.

② 남편 소유로서의 아내의 성(sexuality)

대부분의 아내들에게 남편의 폭력과 성관계는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의 성적 요구를 수용하고 ‘건뎐’하는 것은 아내의 의무로 간주된다. ‘아내구타’는 남성의 폭력이 얼마나 섹슈얼리티와 뒤섞여 있는지, 그리고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지는 권력의 근본적 성격임을 보여준다. 가장인 남편은 집안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아내의 몸은 그의 소유물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남성이 여성의 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가능하다. 구타당하는 많은 여성들의 호소 중에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외도를 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폭력남성들은 자신의 성 활동 경험을 근거로 아내의 성 활동을 구성한다. 그래서 대체로 외도 경험이 많은 남편일수록 의처증도 심하다.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나쁘지만, 아내가 외도했을 경우에는 예외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아내의 현재 뿐 만 아니라 과거 까지도 소유하려고 한다. 아내의 혼전 관계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남편은 언제나 같

은 이유로 부인을 구타할 수 있고, 부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

③ 남편의 착취

폭력 남편 중에는 무직이나, 같이 식당을 한다하더라도 무위도식하며, 모든 책임을 여자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폭력남편은 결혼 초부터 가정의 ‘가장’이 누구인가를 아내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폭력에 시달린 아내는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모든 경제권을 남편에게 맡긴다. 아내가 재산을 주장하거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인다. 남편들의 ‘가장’ 노릇을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사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은 책임지는 자리기 아니라 생색내고, 감독하고, 명령하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3. 피해자의 심리

1) 폭력의 수용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폭력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다양한 문화적 구조들을 생산해 왔다. 특히 ‘아내구타’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수 천 년 동안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폭력을 남성의 정당한 자원으로 인정하는 우리사회에서 피해여성들은, 남편들은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폭력을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몸이 경험하는 유체적 고통을 상대화하고 다른 종류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폭력을 수용한다.

2) 폭력의 사소화

폭력 당하는 아내가 가족을 떠나지 않으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하는 폭력을 남들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상대화, 사소화 해야 한다. 피해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이 자신을 위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줄 알지만, 그러한 인식이 탈출 모색드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폭력은 폭력이다. 아내로서는 참아야 하는 폭력인 것이다. 이미 ‘견디기로’마음먹은 이상 아내는 폭력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스스로에게 설득하거나, 혼란, 상태에서 갈등한다.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학습된 희망으로 폭력 상황을 견딘다. 아내는 자신이 당한 폭력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폭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도 없지만,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남편/가족을 떠나야 하는 더 큰 문제와 마주해야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은 분열과 혼란, 끝없는 고민과 질문 속으로 밀어 넣는다.

3) 남편과 가족에게 수치

폭력 당하는 아내에게, 피해 사실은 나의 고통, 나의 피해 이전에 집안의 비밀이다. 가해 남편이 아내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남편의 명예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피해 사실을 숨긴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려 할 때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경찰은 합의하라고 종용하고, 주변 사람들은 ‘사소한 일 가지고 사내 앞길 가로막는다’고 비난한다.

4. 아내구타의 통념

- 1) 아내구타는 부부싸움이다.
- 2) 우리나라에는 심한 아내구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 3) 아내구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4) 폭력부부는 낮은 사회계층에 많다.
- 5) 구타자는 정신병자다.
- 6) 아내구타자는 술 중독자다-술 때문에 구타한다.
- 7) 아내구타자는 의치증이 있다.
- 8) 남편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내를 구타한다.
- 9)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때린다.-구타하는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줄도 안다.
- 10) 매맞을 짓을 했으니까 매를 맞는다.

II.가정폭력 상담 요령

1. 가정폭력 발생 과정

1) 폭력의 사이클

1단계 : 긴장

- 신경질적이 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태인 남편을 느낄 수 있다.
- 문제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지만 의논을 할 수 없다.
- 남편은 무시, 멸시, 비난의 말로 학대하기 시작한다. 혹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을 따지고 감시하기 시작하고 돈을 최소한으로 주면서 제한하기 시작한다.
- 남편의 말같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못나서”화가 난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 “내 잘못”:이라는 느낌은 내가 잘하면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게 한다.
- 이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몇 주일, 몇 달 또는 몇 년이 계속된다-

2단계 : 폭력

-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다. 남편은 이성을 잃고 공격한다.
- 처음에는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점점 뺨 때리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패기, 발차기 등으로 심해지고 결국에는 몽둥이나 칼을 이용해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 남편은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라고 상대를 비난한다.
-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술 때문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불행한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 남편은 합리화와 비난을 받아들인다.

- 두 사람은 함께 상처가 별 것 아니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3단계 : 화해

- 두 사람은 모두 가라앉은 이 상태를 반긴다.
- 남편은 걱정이 되고 보상하려고 애쓴다.
- 어떤 경우는 도망가지 않을까, 자기를 싫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 여러 가지로 잘해주면서 좋은 남편이 된다. 어떤 때보다도 더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사랑해 준다.
-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 부인도 그러는 남편을 믿고 싶어한다.
- 남편은 “너 없으면 난 못산다.” 등의 말로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듯한다. 둘은 전보다 더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서로 의존하기 시작한다.
-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부인은 느끼기 시작하고 죄책감을 갖기 시작한다.
- 이 기간을 깨어지고 다시 긴장상태가 돌아온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 속에서 “나아지겠지” 하면서 몇 년이 지나간다-

2. 피해자 이해

1) 피해자의 희생화 과정

폭력이 반복되면 폭력희생자의 희생화 과정을 잘 이해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3단계를 나눌 수 있다.(김광일, 정신과 임상경험에서)

제 1기(분노의 시기) : 폭력을 당하는 초기에는 분노와 수치심, 자존심의 손상으로 가득찬다.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제 2기(공포의 시기) : 폭력이 반복되면 또다시 폭력을 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보복이 두려워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다. 공포의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죽음(공포)의 재경험이 일어나는데 폭력상황 혹은 남편과 관련된 상황을 회상하거나 기억에 떠오를 때는 공포에 휩싸인다. 더러는 꿈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밖에 불면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같은 자율신경과민이 생기면서 정신이 멍해지는 현상도 생겨서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

제 3기(무기력의 시기) : 폭력에 계속 시달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더불어 자존심의 손상과 공포 때문에 독립심이 전혀 없고 아주 무기력하게 된다. 매사에 결단을 못내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가기만 한다. 남편의 폭력에 대처할 아무런 힘도 없고 맞아 죽드라도 남편에 의지해서 살 수 밖에 없다는 철저한 체념속에서 산다. 무기력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우울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더러는 자살을 하는 수도 있고 일시적인 정신착란에 빠지는 수도 있고 이런 때 아주 드물게는 정신착란상태에서 남편에게 대항해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2)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 *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고 한다.
- * 옷, 몸무게, 청력 상태 등 신체적 차림에 이상이 나타난다.
- * 짜증을 잘 내고 충동적으로 변한다.
- *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두려움, 혼란 등을 많이 표현한다.
- * 자신을 깎아 내리는 말을 자주 한다.
- * 직장애 자주 빠지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 * 전에 안 하던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 * 술이나 약물에 갑자기 많이 의지한다.
- * 죽어야겠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한다.
- *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거나, 먹기 싫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한다.

3) 피해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체상의 증거

- * 머리, 목, 가슴, 그리고 배 등 겉으로 들어 나지 않는 부분에 상처가 있다.
- * 방어 태세를 취했을 때 나타날만한 상처가 있다.
(팔, 바깥쪽 부위에 발견되는 멍이나 상처)
-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가 있다.
- * 다친 시기가 제 각각인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 * 오래 전에 다친 것 같은데 치료받으러 온다.
- * 상처에 대해 별로 설명하지 못한다.

3. 상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상담자의 자세

1)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남존여비 사상이나 가부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폭력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없다. 양성평등적인 사고와 자매애를 가져야 한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적개심마저 가질 수 있다. 진정한 남녀평등 의식을 가져야 한다.

2)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 폭력 피해자를 돕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 일에는 희생정신, 의협심,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폭력피해자는 상담자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때로는 폭력남편으로부터 협박도 받고 폭행도 당할 수 있고 “가정파괴범”으로 고발당하기도 한다. 사명감 없이는 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3) 진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 성급한 조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혼을 하라거나 참고

견디라거나 하는 식의 조언은 피해야 한다. 쉽게 분개하는 상담자는 피해자를 자극해서 남편살해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게 한다. “나는 이혼할 능력도 없구나” 하고 자살을 하게도 된다. 피해자의 정도에 맞게 접근해야 하는데 가정폭력의 본질과 대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4) 가정폭력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쌓아야 한다. : 가정폭력의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와 그 본질과 대책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와 수련을 쌓아가야 한다.

> 상담단계

1) 1단계 : 상황파악 단계:

폭력상황과 이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이다. 폭력이 시작된 시기, 폭력의 정도와 방법, 폭력의 빈도, 그리고 피해상황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생기는지, 폭력의 구실은 무엇인지, 피해자가 폭력에 대처해온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 남편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데 폭력가정에서 자랐는지, 의치증을 비롯한 정신병이 병력이 있는지, 성격특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남편의 직업, 사회적 성공정도, 종교, 교육정도 같은 사항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들은 여성의 장래를 의논하는데 참고가 된다. ‘아내구타 이외에 자녀에 대한 폭력 같은 다른 폭력도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대책이 복잡해진다. 피해여성 자신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그 여성도 폭력가정에서 자랐는지, 직업, 경제적 능력, 교육배경, 종교, 남녀역할에 관한 가치관, 어려움에 대처한 행동양식 특성 같은 정보들도 대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이다.

2) 2단계 : 응급처리단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리에는 세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가 신체적 상처에 대한 응급처리 사건을 찍어놓는다든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일, 둘째로 증거를 가지고 즉각 고소하는일 셋째 응급대피를 위해서 쉼터를 안내하는일 불면증, 우울증 정신증상에 대해서는 정신과에 입원시키는일도 있을 수 있다.

3) 3단계 : 관계형성 단계

구타당하는 여성은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을 불신한다. 자기문제를 돕는 상담자도 불신한다. 자기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남편의 구타를 문제시하고 찾아온 경우는 좀 다르지만 증상호소를 위주로 찾아온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바람직한 상담자-피해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1)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상담자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인식시킬 일이다. 처음부터 어떤 주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대처해온 방식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같이 의논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대개는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하는 수가 많은데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먼저 이해시켜야 한다. (2)

피해자의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삼가야 한다. (3) 피해자 자신의 문제나 갈등을 캐내는 따위의 일은 금기이다.(즉 원인을 피해자한테서 찾는일) (4)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4) 4단계 : 관계형성단계

관계형성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향후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여러 여건들 이룰때면, 환경, 사회적 능력, 인격특성, 자아의 강도, 남편의 성격과 사회적 능력,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1)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항상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3) 친정이나 친지중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협조 구하도록 한다. (4) 남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 본다. 남편이 알콜중독이나 정신병이 확실하다면 치료대책도 세운다. (5) 이 시기에 이혼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때 상담자는 신중해야 한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실은 이혼할 용기와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자의 자아의 강도를 잘 가늠한 후 확신이 섰을때 변호사와 연결한다.

5) 5단계: 상담치료단계

(1)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2) 나약해진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3) 독립심을 키워주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때 세가지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말해준다. 첫째 **“말하라”** 책피해 하지 말고 친정이나 친지에게 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여성의전화“ 같은 상담소에 말하도록 권하고 자기 혼자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문제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함으로써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둘째 **”알라“**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똑바로 알라는 것이다. 폭력이라고 알아야지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체념하고 사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지식은 다음과 같다.

- *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 * 남자는 여자를 때릴 수도 있다.
- * 여자가 맞을것을 하니까 맞는다.
- * 시간이 지나면 혹은 더 잘 대해주면 폭력은 없을 것이다.
- * 폭력은 교정 혹은 치료될 수도 있다.
- *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때린다.
- * 나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셋째 **“인생을 생각하라”** 꼭 한 번밖에 못사는 인생이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함으로써 자기 위치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6) 6단계: 문제해결 단계

이혼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사는냐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때에도 모든 결정을 피해자 스스로 내리도록 해야 한다. (1) 이혼하든 그대로 살든, 피해자가 겪어야 할 여러 어려움들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를 감당할 정신적 자세와 강도를 가늠해보는 일이다.

(2) 이혼한다면 그후의 생활대책, 아이들의 문제 등도 대책을 세워본다. (3) 이혼방침이 결정되면 이혼절차, 법률상담소, 변호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미리 법적인 문제를 알아보도록 권한다. (4) 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폭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지지적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한다.

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해자에 대한 이해

1) 가해자의 특성

빈부귀천, 사회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정폭력은 일어난다. 물론 발생율이 가난한 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다소 높긴 하다. 그러나 그런사회경제적인 이유로는 폭력자의 인격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폭력자는 보통 인격장애자라고 하는데, 인격장애로는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착취하기만 하는 편집성 인격장애, 감정조절, 충동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정서적 불안정 인격장애, 상대방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생각하는 이기적 인격장애, 불만이 생겼을때 주변사람을 괴롭히는 피동공격형 인격장애 등 여러 형태의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일삼게 된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구충족에만 집착하는 성격구조와 충동을 조절할 줄 모르는 성격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내를 죽을 정도까지 때리고 나서도 후회하는 기색이 나 잘못 했다는 생각이 없고 “남자가 여자를 좀 때렸다고 왜들 간섭이나?” 하고 대든다. 이런성격구조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속에서 남성우월의식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폭력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고 아이들도 때렸다. 아버지로부터 맞은 어머니는 화풀이로 아이들을 때렸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르게 대처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III. 맺는말

아내구타 문제는 구타당하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수준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를 주어야 할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 구타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구타는 반복되는 양상과 더불어 심각성이 더해지게 된다. 구타당하는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대처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구타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도록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아내구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확대 및 그 참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적 당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 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는 일, 그리고 응급상담을 해주는 일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공부를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 김광일,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1990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2000
- ❧ 정희진,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이대여성학과 석사논문 2000.6
- ❧ 김병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12
- ❧ 김혜선/김인숙/신은주,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1997

<12강> 주제별 상담 8: 레즈비언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

김윤서이 (케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작년 1기 교육 자료집 중 <9강> “주제별 상담 3 : 레즈비언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의 강의안에서 통계 수치 부분만 현 시점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1. 레즈비언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

1) 상담 통계를 통해 본 각종 피해 현황

① 2007/1-12, 2008/1-12의 상담 종류 통계²²⁾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집계한 2007년 한 해의 총 상담은 517건, 총 상담 종류는 복수표기를 반영하여 모두 1,118건이다. 이 중 성폭력(이성 간, 동성 간 모두 포함)은 13건으로 총 상담의 2.51%를 차지하며, 기존 가족(원가족) 내 폭력 7건 1.35%, 동성 커플의 교제관계 내 폭력 18건 3.48%, 아웃팅 24건 4.64%, 아웃팅 매개범죄 32건 6.19%, 커뮤니티내 폭력 9건 1.74%, 혐오범죄 3건 0.58%이다.

2008년 한 해의 총 상담은 460건, 총 상담 종류는 복수표기를 반영하여 모두 965건이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성폭력 28건 6.09%, 기존 가족 내 폭력 7건 1.52%, 교제 관계 내 폭력 15건 3.26%, 아웃팅 39건 8.48%, 아웃팅 매개범죄 36건 7.83%, 커뮤니티 내 폭력 3건 0.65%, 혐오범죄 1건 0.21%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로 상담 요청을 해 오는 내담자들은 레즈비언으로 이미 정체화 하고 있거나 정체화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동성과의 교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피해의 경험을 타인에게 언어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점과, 이반으로서의 경험을 한 이들의 경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더 힘들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상담소>의 통계로 잡히는 이러한 경험들 외에 더 많은 유사 사례들이 존재하리라고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피해를 감당해 내고 있을 레즈비언들이 이 통계 수치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는 것이다.

② 폭력 피해의 범주들

레즈비언들이 입는 여러 폭력의 피해들은 크게 비(非)레즈비언으로부터 입는 피해와 레즈비언으로부터 입는 피해로 나뉜다. 비(非)레즈비언들이 저지르는 가해의 토대에는 호모포비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은 여성이며 동성애자라는 레즈비언의 사회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레즈비언을 이용하거나 괴롭힌다. 레즈비언에게 가해를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타인에게 고발하면 너를 아우팅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이 경우 레즈비언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폭력 그 자체보다 자신이 선부르게 피해 사실을 어딘가에 호소했을 때 겪게 될 지도 모를 아우팅을 더 많이 두려워한다. 하기에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거나 금품갈취를 당하는 등의 피해 상황을 차마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곤 한다.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릴 용기를 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22) 현재 언급하고 있는 2007, 2008 통계는 두 해 상담 기록을 1차 집계한 결과로 오차 범위를 수정한 2차 집계 결과의 수치는 지금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때문이다.

실제로 이렇게 동성애자 정체성, 레즈비언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접하고 있는 위태로운 입지를 이용하여 레즈비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까닭 중 하나가, 이렇게 피해자들이 침묵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시화 되지조차 않았기에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폭력들 또한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 않아왔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차츰 긍정적으로 변하고, 동성애자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 그 자체로 동성애자의 사회적 가시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분명 동성애자 권리 신장을 나타내는 신호이지만, 그와 더불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증가 또한 가능케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다. 동성애자는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에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 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서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말이다. 즉, 호모포비아란 쉽사리 척결되는 관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랜 시간 끊임없이 변형되며 동성애자들의 삶에 질곡을 만들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비(非)레즈비언들에 의한 폭력의 통계에 속하는 사례들 중에는 레즈비언들이 레즈비언으로서 입은, 우리 사회와 가해자의 호모포비아가 한데 어울려 빚어낸 피해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딸로서 입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도 담겨 있다. 많은 수의 레즈비언 내담자들과 정체성 탐색 과정에 있는 내담자들이 이제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홀로 가슴 속에 묻고 지내왔거나, 자신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타인에게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좌절된 경험을 안은 채,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 및 가정폭력 피해의 이야기들을 상담소로 들고 온다.

이들이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레즈비언 상담로소 가져오는 이유는, 자신이 입은 이런 피해들이 레즈비언 정체성과 연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담자들 중에는 자신이 이성의 상대로부터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남성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성애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자신으로 하여금 동성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 것 같다고 털어 놓는 이들이 상당하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 때문에 이성애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보니, 친밀함과 애정의 대상으로 떠올릴 존재 역시 동성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내담자들도 있다. 이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가 동성애의 일반적인 원인이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이 때 상담의 목표에는 성폭력 피해 및 가정폭력 피해의 치유와 긍정적인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하고 말이다. 남성애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레즈비언 정체성을 탐색하게 된 여성들은, 피해에 대해 묻어두어야만 했던 여러 상황들,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더럽혀지고 쓸모없어진 인간으로 비하하며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의 이러한 경험은 레즈비언 상담의 장면에서 점차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레즈비언들이 레즈비언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해자의 호모포비아를 근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보다는 레즈비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호모포비아적인 배경 속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이 증대된다는 측면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다. 레즈비언간의 성폭력의 경우(특히 레즈비언간의 성폭력에서 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폭력이 다 그렇지만)는, 이성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보다 그것을 ‘성폭력’이라 이름붙이기가

어렵다. 성폭력 자체를 이성 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을 과잉성애화 된 존재로 취급하는 시각도 편견이지만, 레즈비언 간에 일어나는 성을 매개로 한 행위-그것이 성관계이든 성폭력이든-라면 무엇이든 경시하는 태도 또한 호모포비아일진대, 바로 그러한 종류의 호모포비아가 레즈비언 간의 성폭력을 무게감 있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이다. 신고를 하더라도, ‘여자들끼리 좀 싸우는 게 뭐 대수냐’는 반응이 돌아오기 일쑤. 이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반응이다. 여성은 폭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편견, 여성 간에는 싸워봤자 위험할 거 없다는 편견이다. 레즈비언 간의 가정폭력도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사과하고 애정표현을 하다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의 순환 고리 속에서 피해자가 점점 무력해지는 건 어느 가정폭력에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수한 문제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가해자 상대방도 피해자인 나도 레즈비언으로서 쉽지 않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불쌍한 처지라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연민이다. 이러한 연민과 더불어 피해자가 갖기 쉬운 감정 중 하나는 가해자인 상대방과 이별하면 혼자가 된다는 데 대한 공포이다. 레즈비언들은 자신이 마음 맞는 상대와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성애자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에는 개인차가 있는 법이지만, 동성애가 여전히 금기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기까지는 수많은 진입장벽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 또한 가정폭력의 기본적인 악순환과 더불어, 동거하는 파트너간의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인 레즈비언이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레즈비언이 자신 또한 공유하고 있는 레즈비언으로서의 현실을 악용해 아우팅 협박을 매개로 하여 다른 레즈비언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금품을 갈취하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 중요한 건 이런 사실들을 레즈비언들이 범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 인식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세상 모든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레즈비언 커뮤니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이다. 레즈비언을 일탈적인 반사회적 문제자로 낙인찍는 것만큼이나 레즈비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완전무결하게 순수한 사회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도 레즈비언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이다.

레즈비언이 경험하는 이토록 다양한 폭력들은 모두 레즈비언 상담에서 점점 더 체계화 된 상담 기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피해들을 적절히 구제하는 데 유용한 법제도적 안전망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겠다.

2) 레즈비언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의 목표

① 위기 시 최대한 개입 및 사건 지원으로의 연결 (그러나, 상담소 사정 상 한계가 너무 큼)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경우나 피해 상황 직후 진행하는 상담을 보통 위기 상담이라고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위기 상담의 경우 우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내담자가 같이 방법을 모색하고, 내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성 단체 중 연계 가능한 곳이 있다면 연계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의 증거를 남기도록 격려하고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겠노라 마음을 먹는 경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 여성단체, 상담소 및 1366, 경찰 원스탑 서비스 등을 평소에 잘 알아두면 유용하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하게 위기 개입을 하여 더욱 심해질 수 있었던 피해를 한시라도 빨리 최소화 하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법적 제재나 처벌이 가해지고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레즈비언 상담 및 사건 지원은 사건을 타 기관에 연계하거나, 경찰서로 가져갈 때,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피해로부터 구제받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레즈비언인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많은 공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 담당자에게 레즈비언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 수사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청문감사관 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을 넣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상담소>의 경우, 상시적인 상근 인력 부족 및 재정난 등의 이유로 위기 상담 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② 피해로 인한 상처 치유

과거의 폭력 피해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피해든 폭력의 피해를 입은 내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직면해 자기 통제감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상담자가 함께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 및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상담 원리와 기법들을 숙지해 두고 항상 공부해 나감으로써 늘 이와 같은 사례를 풀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레즈비언 정체성 문제와 이러한 폭력 피해의 문제를 섬세하게 연결시켜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여성주의 상담과 레즈비언 권리문제를 늘 함께 학습하며 레즈비언 피해자를 상담할 때 유용할 상담 기법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피해의 회복은 단회기 상담으로 이루어내기 불가능한 것이라, 정기 상담 및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자가 피해자와 그러한 상담 작업을 구조화 해 낼 만큼 충분히 섬세하지 못하거나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될 때, 혹은 내담자가 적극적 치유의 의지를 미처 갖고 있지 못할 때, 사건 지원과 관련된 몇 차례의 소통만으로 상담이 종료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③ 피해자의 고립 혹은 상황의 악화를 저지

레즈비언 피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피해를 바깥으로 꺼내 놓기 어려워한다. 자신이 정말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피해 이야기를 했다가 레즈비언으로서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로 도움을 받기란 불가능하리라 예상되어서...등, 레즈비언 피해자가 침묵하게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피해자인 내담자들 중에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상담을 청해 왔다가도, 가령 게시판 상담의 경우, 상담자가 상담글을 댓글로 달기도 전에 어느새 자신이 올린 글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상담원과 같이 모색하던 중, 아무리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도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상담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비밀글로 상담글을 올렸으면서도,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가해자가 자신이 <상담소>에 가해자 이야기를 상담글로 올렸다는 사실을 알아챌까 무서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자칫하면 이들이 피해 상황 속에 계속 머무르기 쉬움을 알려주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비언 피해자가 피해 상황 속에 계속 머무는 걸 최대한 막는 일은 레즈비언 상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④ 법적 대응 가능성의 모색 및 실천

레즈비언 간의 성폭력은 동성간 성폭력 중 하나로, 처벌 최대 수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로밖에 올릴 수 없다. 파트너 간의 가정폭력은 동성간의 파트너십이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주로 다뤄질 수도 없다. 게다가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아우팅(혹은 아우팅 협박)’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성 범죄로 가중처벌하는 법률 등도 없거니와, 아우팅이나 아우팅 협박 자체도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추행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죄명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상의 인권 문제도 경찰서의 청문감사관 제도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진정 창구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상담소>는 십대 레즈비언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아우팅 협박 사건의 피해자, 레즈비언 간의 폭행, 성폭력 문제의 피해자, 파트너간 폭력 피해자 등을 다양한 수위로 지원해 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사건 지원 자체가 호지부지 되어 버리는 경우 등도 있었으나, 그 과정들을 통해 레즈비언 관련 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및 경찰 수사를 이용하여 해결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법적 대응 가능성의 모색과 실천이 레즈비언 상담에서 중요한 까닭은, 피해를 입는 레즈비언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사례의 축적을 통해 레즈비언을 포함한 성소수자의 현실에 보탬이 되는 법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레즈비언 피해자 상담의 기본 전제

사실 아래 네 가지 기본 전제는 꼭 레즈비언 피해자를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비(非)레즈비언 피해자를 상담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있다.

① 피해자가 털어 놓는 사건과 관련된 그 누구의 말보다도 피해자의 말을 우선 경청하고 존중하기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고통이고, 그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딛고 자신의 피해를 헤쳐 나가 보고자 용기를 내어 상담을 요청한다. 고통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고된 치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우팅 협박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이야기가 그녀에게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두서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도 있고, 했던 말을 반복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야기하길 저어하며 대강의 상황만을 반복해서 몽똥그려 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상담자는 갑갑해 하거나 피해자를 의심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찬찬히 질문을 던져 그녀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한다. 상담 및 사건 지원 과정에서 가해자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들은 언제나 자기 입장

에서 할 말을 가지고 상담자에게 다가 온다. 그/녀들은 상담자에게 사건을 대하는 ‘공평’한 시각을 요구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폭력 사건이란 공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점이다. 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풀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평한 접근은 바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다.

② 피해자가 피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각종 폭력의 피해자들은, (아우팅 협박의 피해자인 경우) 자신이 가해자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협박했던 대로 자신을 아우팅 시킬 거라고 생각하거나, (파트너간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표현을 왜곡된 방식으로 할 뿐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자신이 성폭력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등,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꺼린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피해자와 함께 찾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즉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기본적인 목표는 ‘어쩔 수 없다’는 피해자의 체념을 ‘벗어나고 싶다, 벗어날 수 있다,’ 는 의지로 바꾸는 데 있다. 피해자 본인의 변화 의지, 회복 의지는 폭력 피해 극복의 토대이자 지향이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이 피해를 감당하지 않고 벗어나려 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피해를 초래한 건 자기 탓이라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피해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동들을 피해자와 상담자가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좋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피해자가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을 구체적인 문젯거리들로 정리해 하나하나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③ 상담 과정 및 사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3차 가해에 개입하기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될 기관이나 경찰 쪽에서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선정적인 각도에서만 바라보려 하고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호모포비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인권 침해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이는 애써 용기를 내어 자기 피해를 사건화 한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를 하는 일이다. 연결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되거나 피해자와 동행하여 조사 현장에 있게 될 상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철저히 문제제기 해야 한다.

2. 레즈비언 피해자 상담의 예 및 참고 자료

1) 상담의 예: 파트너간의 폭력

(*각색한 내담을 중심으로)

내담 예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각색)
다혈질인 애인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에게 우호적인 정신과 의사가 있다면 애인과 같이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상담소에서도 저 같은 경우의

상담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는 둘이 다투다거나 제가 자기 비위를 좀 상하게 한다거나 하면, 자기가 죽든 저를 죽이든 한다며 행패입니다. 욕하고, 때리고, 절 망가뜨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게 백배 사죄했지요. 자기가 성격이 원래 좀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노력하겠다고,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싸움만 나면 자기 죽는다고 하고, 자해하고, 자기 혼자 죽지만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변하질 않네요. 병원에 알아보니 심리치료, 약물치료를 권하기는 하던데, 애인은 자기를 정신병 걸린 사람 취급한다며 더 화를 냅니다.

좀 전에도 다투었어요. 저러다 정말 저 사람 죽어버릴까 무섭네요. 이런 거, 해결책이 좀 없을까요. 평소에 저한테 나름 잘 하는 사람인데다 저 없음 안 된다고 해서, 폭력적인 성격 좀 고치게 해서 같이 있고 싶은데, 저도 사람이니까 자꾸 저러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그러면 큰 싸움이 되고, 그렇게만 되었다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담 예	
단계	실례
들어가는 인사/환영하기	○○님 상담소입니다. 무척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용기 내어 상담소를 찾아주신 ○○님에게 격려의 말씀부터 보내드리고 싶어요. 상담소로 참 잘 오셨어요.
내담 문제에 드러난 폭력 양상 명료화	애인분과 다툰 때면, 애인이 자기가 죽거나 ○○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자해 시도를 하기도 하는군요. ○○님에게 폭력도 행사하고요.
피해 상황에 대한 공감과 격려	애인분으로부터 협박이나 욕을 듣고 폭력을 당할 때마다 ○○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겨 주신 글을 읽으면서 상담원의 마음도 많이 아팠답니다.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담자의 욕구 및 감정 명료화	그런데, 애인분이 평소에는 ○○님에게 매우 잘 하는 성격인가 봅니다. ○○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식의 말도 하고요. 남겨 주신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님도 헤어질 마음이 앞선다기보다 교체를 유지하면서 애인분의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싸움이 잦고, 그럴 때면 애인의 폭력적인 면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애인분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석할 인식을 나눔	하지만 ○○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두 분이 서로를 많이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즉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인분이 ○○님을 협박하거나 ○○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애인분이 ○○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협박이나 폭력은 타인에 대한 극도로 왜곡된 방식의 감정 표현이고, 상대방의 감정과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되기 어려워요. 협박이나 폭력이 문제인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한 번 발생한 이상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보통 폭력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평소에는 매우 자상한 사람이고 폭력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무척 미안해서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상대방은, 한 번만 더 애인을 믿어보자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력이 반복되다 보면, 삶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피해자가 많이 무력해져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적인 파트너간 협박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님이 애인분과 맺고 있는 관계하고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상담원의 의견 제시/구체적인 고민의 방향 제안	상담원은, ○○님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 찬찬히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고 싶어요. 님께서 애인분에게 협박과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애인분이 잘 수용하며 노력을 보여줬고, 그 결과 협박과 폭력이 줄어들고 있는지, 협박과 폭력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한 폭력에 노출 되었을 때,님께서 보이게 되는 반응이 점점 심해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무뎌지는지, 평소에 두 분은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애인분이 더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애인분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지속시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님 스스로에게 존재하는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두 분께서 관계를 지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가 닿을 거예요. 위의 질문들을 생각해보면서 두 분의 관계와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두 분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시든 아니면 이별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시든, 그러한 판단이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본 후 나온 것이고 ○○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상담원은 님의 결정을 존중할 거예요.
후속 상담 권하기	○○님이 계속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혹은 커플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니면 이별을 결심해서 그 과정을 함께 나누어주길 바라신다면 상담소는 ○○님의 짐을 나누며 함께 할게요. 특히 레즈비언 커플 관계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고립되기 쉽다보니, 그 고립된 커플 관계 안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시면 지속적으로 상담소로 상담 요청을 해 주셔요.
상황 악화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안	그리고 ○○님, 아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애인분이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떼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애인분이 협박성 문자나 메일을 보낸다면 그 날짜와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내하기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로 보관해두셔야 하겠고요. 혹시라도 ○○님이 홀로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를 미리 대비해두시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러한 상황이 올 필요 없이 두 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겠지만 말이에요. 상담소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요.
마무리	○○님. 협박과 폭력이 두렵고 무서운 반면 ○○님에게 매달리는 애인분이 안 됐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서 폭력적인 성향도 바꾸어 놓고 싶고 앞으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맘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님 자신을 위한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비단 이번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님 스스로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날 도와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는 일이므로,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면 꼭 상담소로도 연락주세요. 이곳 상담실의 게시판도 이용하셔도 좋고, 상담전화 02-718-3542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면접 상담이나 커플 면접 상담의 경우에도 게시판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연락하신 후 시간 약속을 잡으면 되고요. ○○님. 상담글을 올릴 당시에 애인분과 다툰 상태라고 하셨는데, 지금 님의 상황이 안전한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님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님의 삶에 있어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님이 잊지 않고, 항상 힘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홀로 두렵고 속상하고 슬프지 않을 수 있도록, 원하실 경우에는 꼭 상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님, 그럼 오늘은 이만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힘내세요!

2) 참고자료: 아우팅 협박을 매개로 한 폭력

(*아우팅 협박을 매개로 한 폭력의 내담 사례 및 사건 지원 절차는 3. 사건 접수 및 사건 지원을 참고로 하자.)

<참고자료1>

출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1년 상담통계」

II.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

아우팅이란 동성애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성정체성을 폭로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우팅은 동성애자 스스로 커밍아웃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동성애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폭로되

는 것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내몰리고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따돌림과 괴롭힘 피해를 입는다.

이처럼 동성애자에게 성정체성이 노출되는 것이 삶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성정체성을 알려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를 아우팅 매개 범죄라 한다.

특히 최근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사례를 통해 보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아우팅 매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보고되었다. 즉 이성애자 등 비(非)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을 향해 아우팅 협박과 그를 매개로 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에게 아우팅 매개범죄를 가하는 것이다.

1. 내담을 통해 보고되는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

1-1.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애인에게 아우팅 매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헤어지려고 하는 애인에게 '나랑 헤어지면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
- 헤어진 애인에게 '나랑 다시 사귀지 않으면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
- 다시 사귀자는 등의 명확한 요구 사항은 없으나, 헤어진 애인에게 남아 있는 분한 마음으로 아우팅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헤어진 애인과의 사이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재산관계가 있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전 애인에게 아우팅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

1-2. 레즈비언 간 갈등이 아우팅 매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 레즈비언 간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우팅 시키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진다.
- 다툼이 일었던 상대를 향한 분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우팅 협박을 통해 지속적인 괴로움을 주고자 한다.

1-3. 금품 갈취 등 애초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우팅 매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아우팅 매개 범죄를 통해 금품 갈취, 성폭력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 아우팅 매개 범죄의 발생 배경 분석

2-1. 레즈비언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

많은 레즈비언들이 정체성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는 것은, 레즈비언을 향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도 많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긍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레즈비언 커뮤니티 밖으로 벗어나면, 이성애자인 척 가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알리고 나서 올 수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 변화, 해고, 퇴학 등의 피해가 두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레즈비언 존재 자체가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레즈비언은 범죄 노출에 있어 취약집단일 수밖에 없다.

2-2. 커뮤니티 내 개인정보 악용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대부분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의 익명성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자신을 긍정하며 다른 레즈비언과 교류하려는 레즈

비언의 욕구가 확대되면서 익명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들이 존재한다. 레즈비언들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사는 지역 등을 공개하거나 게시물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레즈비언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최소한 레즈비언 사이에서 자신을 알리고 개방하는 것은 자기 긍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디에나 상대의 약점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노리는 범죄들이 있는 것처럼,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 정보의 노출을 악용해 아우팅 매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2-3. 조력자, 지지집단의 부족

레즈비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나 지지집단은 매우 부족하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커밍아웃한 친구들이 없는 레즈비언도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갈등 당사자는 대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기 어렵다. 때문에 아우팅 매개 폭력을 가함으로써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노출된다.

3. 아우팅 매개 범죄 피해자의 취약성

3-1.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벌이 어려움.

동성애자의 삶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아우팅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아우팅 매개 범죄는 기존의 다른 범죄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경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사 절차 상에서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지면서 신고를 하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3-2. 형사 절차 중, 커밍아웃으로 인해 겪게 되는 2차, 3차 피해.

레즈비언 정체성을 밝히면 경찰로부터 욕을 듣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강요받는 등의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정체성이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레즈비언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이다.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가해자가 사건 경위와는 상관없는 레즈비언 정체성 관련 질문을 받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매개로 부당한 수사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어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3-3. 조력자, 지지집단의 부족.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가는 등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겁이 나는 일일 수 있다. 특히 레즈비언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무척 두렵고 괴로운 일이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커뮤니티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밝힐 수 없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찰, 검찰 등에 공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일이 무척 힘이 들 수 있다. 때문에 조력자, 지지집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에서의 지원은 전무하고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수도 매우 적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4. 아우팅 매개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장치

4-1. 아우팅 매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프랑스는 2005년부터 동성애 혐오 불법화 법안을 시행하여, 성정체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차별, 증오, 폭력 등을 선동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성별, 장애, 인종, 성정체성 등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기반으로 한 범죄를 혐오범죄(Hate Crime)로 따로 분류하

고 있다. 혐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내고 있으며,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가한다.

아우팅은 동성애자의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아우팅을 매개로 한 협박 등의 폭력은 동성애자의 취약한 위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을 단순 협박 등의 폭력과 동일하게 보고 경한 범죄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범죄를 악질인 것으로 보며 중한 처벌을 가한다면,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잦아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이 확산될 것이다. 한국도 아우팅 매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4-2. 검·경찰의 편견과 혐오 시정

경찰과 검찰이 동성애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것, 혐오적인 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에게 아우팅이 매우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중 가족이나 언론 등에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 경찰에서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혐오와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4-3.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의식 향상 필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인권 의식이 향상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같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서로의 취약한 위치를, 범죄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무지개빛 이반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3) 참고자료: 유아성폭력

(*‘유아성폭력’의 내담-상담 사례는 주제별 상담 1.의 강의안을 참고하자.)

<참고자료2>

출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1년 상담통계」

1.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경험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정체화는 결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가 그 사람의 성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 바로, 자신이 레즈비언인가의 여부를 고민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유아/어린이 시절 이성의 상대방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성정체성 탐색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은 상담소로 접수되는 성정체성 탐색 관련 내담에 담긴 내담자의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경험에 주목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레즈비언이 된 게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내담자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치유하고,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레즈비언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역시 알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겪는 수치심과 동성애혐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자긍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치유하는 작업과 동성애혐오를 줄여 나가는 작업을 병행하며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을 긍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1. 내담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레즈비언 경험에 미치는 악영향

1.1 레즈비언 정체성 고민

① 남성 혐오와 정체성 고민: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은 물론 남성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워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라면서, 그렇듯 남성에게 대한 혐오 때문에 자신이 레즈비언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내담자.

② 자기 혐오와 정체성 고민: 어렸을 때 몸을 ‘망쳤기’ 때문에 동성애자로밖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동성애 혐오가 자기 혐오를 강화시키는 사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동성의 상대에게 끌린다는 사실이 모두 자신을 ‘정상적이지 못한’ 존재로 만든다는 생각에 힘들다는 내담자.

1.2 인간 관계 자체에 대한 고민

① 자신의 존재 가치 의심: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그럴 희망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고백을 해 오는 내담자.

②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상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누구와도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고 털어놓는 내담자.

1.3 성적인 접촉에 대한 고민

①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 (동성) 애인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성적인 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 성관계만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내담자.

② 성에 대한 혐오: 성폭력 피해가 떠올라 괴로우면서도 성욕을 느끼는 자기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이 힘들다는 내담자.

③ 성에 대한 무감각: (동성) 애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관계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성관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의무감에 습관처럼 오히려 더 자주, 많이 성관계를 갖게 된다고 고백하는 내담자.

2.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방향

2-1. 성폭력 피해의 치유를 돕는다.

- ① 성폭력 피해의 고통에 최대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생존자인 내담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 ③ 성폭력 피해로 인한 수치심, 자괴감, 박탈감 등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자아와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2-2.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① 레즈비언 정체화의 핵심은 남성 혐오라기보다 여성에 대한 이끌림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 ② 여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적, 사회적, 성적 이끌림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임을 강조한다.
- ③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혹은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책하거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덧붙인다.
- ④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 거부감, 이중적 소외 등의 부담 등을 덜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2-3. 새로운 관계 맺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① 타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게 된 내담자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해 준다.
- ② 새로운 관계들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대인관계 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한다.
- ③ 관계 속에서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내담자만의 방식을 찾아나가도록 독려한다.
- ④ 교제 관계 안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쌓아나가도록 격려한다.

2-4.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 ① 성적인 접촉이 바로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내담자의 입장에 공감한다.
- ② 자기감정과 욕구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알려준다(싫으면 싫다/좋으면 좋다).
- ③ 자신이 번덕스러워 질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준다.
- ④ 성을 매개로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함을 언급한다.
- ⑤ 성적인 접촉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교제 관계 안에서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3. 앞으로의 과제들

3-1.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치유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전문성 제고한다. 성폭력 전문 상담 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 단체와 연대 세미나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3-2. 성폭력 전문 상담 단체와의 상시적인 연계망을 구축한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상담소로 찾아 온 내담자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연계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3-3.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정체성이 여성의 자긍심 약화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통해, 여성들이 자긍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피해를 치유하고 정체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한다.

3-4. 남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긍정적인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을 막고, 레즈비언의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자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의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려 낸다.

3. 사건 접수 및 사건 지원

1) <상담소>에서의 사건 접수 기준

① 형사 사건 관련 사례 중심으로 접수한다.

가령,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 자체 같은 경우는 <상담소>의 사건지원 대상 밖이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피해자의 경우, 형사 절차 쪽을 지원한다. 민사 절차 중에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한다.

② 레즈비언 정체성이 사건과 직결된 사례 중심으로 접수한다.

피해자가 레즈비언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이 레즈비언 정체성 자체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할 때는 <상담소>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종류의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레즈비언 간에 발생한 일이거나, 레즈비언에 대한 혐오범죄로서 발생한 사건은 <상담소>가 지원하나, 정체성과 상관없는 일로 벌어진 싸움에 개입된 폭행 사건 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상담소>에서의 사건 지원 절차

① 구체적인 피해 상황 확인



② 피해자의 신고/고소 의사 확인



③ 사건 접수



④ 해당 사건 관련 현행법 검토 및 제공



⑤ 사건 조사 과정상 수사 담당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피해자의 커밍아웃 필요성 안내



⑥ 증거 자료 수집 당부



⑦ 진술서 작성시 지원



⑧ 신고 접수 및 조사 과정 (필요할 경우) 동행 지원



⑨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사례 발생할 경우 단체 명의 의견서 제출 (혹은 청문감사실 민원 넣는 과정 지원)



⑩ 고소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 취하며 진행 경과 확인



⑪ 지원 종료



⑫ 내부 평가

3) 사건 지원 사례 공부

<참고자료3>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건지원팀 제작 사건지원 Case Study” 中 (아직 자료집으로 제작되기 전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례는 모두 각색을 거친 내담들입니다.)

◎ Case Study <청소년 동성애자 대상 혐오범죄>

[사례] 저는 현재 여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와 사귀는 지 일 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 관계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져서 다들 더럽다는 듯 저와 제 애인을 보며 부딪칠 때면 아예 몸을 비틀어 피해버리고 욕을 하며 가버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등교해서부터 하교 할 때까지 매일 매일이 가시방석입니다. 눈치 보며, 애인과 같이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건, 그런 일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애인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 오셔서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갇은 욕을 다 하면서 말이죠. 머리털이 뽑히고 발로 걷어차이고 따귀를 맞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교감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가 또 한 번 혐오적인 말들을 들어야 했을 뿐 아니라 전학을 가라는 둥, 안 그러면 퇴학을 시키겠다는 둥의 협박까지… 정말 억울합니다. 또 애인의

아버지는, 우리더러 당장 헤어지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합니다. 제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 이후로 계속 어지러워요. 안 그래도 우울증이 있는데, 지금 몸과 마음이 다 너무 힘듭니다. 안 맞으려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나요? 또 맞게 되어도 저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1. 사건 접수

1)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① 피해자와 피해자 애인의 현재 관계와 상태 그리고 애인 아버지(이하 가해자), 학교 당국 과 교감의 상황 확인
- ② 가해자의 가해 시기 및 가해 내용 확인
- ③ 구체적인 가해자의 폭력 내용 확인
- ④ 사건 지원 기관(한국레즈비언상담소, 청소년 관련 상담소, 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접수와 경찰에의 신고 가능성 및 피해자의 의지 확인
- 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부에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의 가능성과 의지 확인
- ⑥ 사건 신고를 비롯한 위의 제 절차시 커밍아웃의 필요성 혹은 아우팅의 위험성 설명

2) 이 사건의 경우 애인 아버지의 폭력 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에 발생한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이 되었다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이므로 학교에 대해 학생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신원 보장이 되고 피해자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인권위 및 교육부 등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사건 지원

1)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행법 검토 및 정보 제공

- ① 경찰에 신고, 조사 등 사건 진행 과정 및 국가 기관 관련 업무에 상담소가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함.
- ② 가족에게 알리지 말 것을 조사 기관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애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상황 때문에 아우팅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 (※ 물론 조사 과정상의 불이익에 관해서는 <청문감사실>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음.)
- ③ 가해자의 무차별적인 폭력은 <폭행죄>에 해당
- ④ 이유 없이 전학, 퇴학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
- ⑤ 폭력을 암시하며 헤어지라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
- ⑥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애인과의 관계를 공공연히 밝힐 경우 <사생활 침해죄>에 해당
- ⑦ 신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면 <보복범죄>에 해당
- ⑧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형법상 범죄 성립
- ⑨ 더불어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 당국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커밍아웃 및 아우팅에 관한 대응 논의.당부

- 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족에게 아우팅할 경우, i) 커밍아웃을 하고,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 ii) 지원이 가능할 경우, 가족들과 함께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iii) 지원 불가능할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
- ② 교내에 상황이 알려질 경우, i) 가족 지원 가능 상황 ii) 가족 지원 불가능 상황에 따르는 대처 방안 논의.확보가 필요하고 학교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전학 고려

3) 증거 자료 수집 당부

- ① 가해자의 가해 내용 드러나는 증거들(이 사건의 경우, 전화 통화 등의 가시적인 내역이 없다면 증

인의 확보가 절실)의 확보.

- ② 폭행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확보해 두어야 함.
- ③ 교감의 언행과 학교의 수수방관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
- ④ 모든 협박과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일시 기록 및 가해 내용에 관한 기록 필요.

4) 진술서 작성

5) 신고 과정 및 고소장 제출 과정 지원

- ① 작성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 동행
- ②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③ 조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직접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도록 함.

※국가인권위, 청소년 인권위, 교육부 등에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시 상담소가 적극 지원

6) 조사 기관에 아우팅 관련 주의 촉구 및 대질신문 과정 등에서 동행 지원

- ① 아우팅 관련 정보 수사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
- ② 피해자 조사 시 동행 지원
- ③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신문 과정 동행 지원

7) 수사 기관에 사건 접수시킨 후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확인,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8) 지원 종료

3. 후속 조치

- ①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 ② 피해자 및 피해자 애인에게 정기적인 상담 지원 반드시 필요
- ③ 피해자 가족에게 알려졌을 경우, 가족 상담도 필요
- ④ 국가 기관에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후 그 결과를 주시하고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 필요
- ⑤사건 지원 결과 내부 평가

4. 한계 및 과제

- ①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혐오범죄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음. 이후 혐오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입법 운동이 필요.
- ② 상담소가 적극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 정서상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사건 절차에 있어 상당히 불리.
- ③ 교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임에도 학교의 제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점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므로 학교에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육이 절실함.

◎ Case Study <아우팅, 실직, 차용증>

[사례] 저는 27세의 학원강사입니다. 전 애인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교제 관계에서 저는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전 애인은 저와 같은 학원의 동료 강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결국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애인은 저의 부모님께 아우팅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1년여 간의 교제 기간 중 자신이 사용했

던 비용을 내놓으라며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했고, 저는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결국 1,000만원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애인은 학원으로 찾아와 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했고, 학원 전화와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를 아우팅 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후 전 애인은 저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 있어 전 애인은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 사건 접수

1)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실제 사건의 피해자와 상담소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2) 피해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① 가해자의 가해 시기 및 가해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
- ② 구체적인 가해자의 협박 내용에 관한 증거물 보관 상태 확인
- ③ 사건 지원 기관 접수 및 경찰 신고의 의지를 가해자에게 전달했는지 유무 확인
- ④ 조사 과정에서의 커밍아웃의 불가피성 설명
- ⑤ 변의 지원받을 수 있는 인맥 파악 및 연락처 확보

3) 피해자의 피해 신고의 의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의지를 확인하면 사건을 접수한다.

2. 사건 지원

1)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행법 검토 및 정보 제공

- ① 경찰에 신고, 조사 사건 진행 과정에 상담소가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함.
- ② 조사 기관 관계자들이 요구 불이행 시, 조사 과정상의 불이익에 관해서는 <청문감사실>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음
- ③ 아우팅 협박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차용증 작성 강요 등)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와 <공갈죄>에 해당
- ④ 아우팅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
- ⑤ 아우팅은 <사생활 침해죄>에 해당
- ⑥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형법상 범죄 성립

※ 필요하다면, 가해자에게 사건 접수 및 지원 이전에 가해자를 상대로 사건 지원 기관 접수 및 경찰 신고 가능성 전달

※ 강제로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강요로 인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증 원인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전달.

2) 증거 자료 수집 당부

- ① 전화 통화 내역,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이메일 등 가해자의 가해 내용 드러나는 증거들 확보
- ② 폭행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확보해 두어야 함.
- ③ 모든 협박과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일시 기록 및 가해 내용에 관한 기록 필요.

3) 진술서 작성

4) 신고 과정 및 고소장 제출 과정 지원

- ① 작성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 동행
- ②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조사 기관에 아우팅 관련 주의 촉구 및 대질신문 과정 등에서 동행 지원

- ① 아우팅 관련 정보 수사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
- ② 피해자 조사 시 동행 지원
- ③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신문 과정 동행 지원

6) 수사 기관에 사건 접수시킨 후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확인,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7) 지원 종료

3. 후속 조치

- ①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 ②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상담 지원
- ③ 사건 지원 결과 내부 평가

4. 한계 및 과제

(공란)

◎ Case Study <에인의 협박과 폭력>

[사례] 에인과의 문제로 상담 요청합니다. 평소엔 제게 참 잘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자해를 하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잘못도 그 쪽에서 한 상황이라 서로 다투는 상황인데도 제가 화를 내거나 하면 억울하다며 억지를 부리고,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이 사람이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번호도요. 일터로도 집으로도 전화를 걸어 온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왔다갔다 합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기도 하고, 반드시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 나로부터 격리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 동안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많았고, 이제 어찌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상식 이하의 폭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욕하고 협박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해코지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그럴 수도 없네요.

저와 저희 집에 연락 못하게 끊을 방법이 없을는지요. 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제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지금도 싸웠는데, 또 제 탓만 하면서, 자기를 나쁘게 만든 것 또한 저이므로, 저는 죽어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정말 죽일 것처럼 굴었던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1. 사건 접수

1)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실제 사건의 피해자와 상담소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2) 피해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① 가해자와의 관계
- ② 가해자의 가해 시기 및 가해 내용 확인
- ③ 가해자가 했다는 “거짓말”의 내용 확인
- ④ 구체적인 가해자의 협박 내용 확인
- ⑤ 사건 지원 기관 접수 및 경찰 신고의 의지를 가해자에게 전달했는지 유무 확인
- ⑥ 필요하다면, 가해자에게 사건 접수 및 지원 이전에 가해자를 상대로 사건 지원 기관 접수 및 경찰 신고 가능성 전달
- ⑦ 피해자에게 반복·상습적으로 가해자 신고 접수할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을 시에도 이후 사건 접수 시에 고려된다는 사실 전달
- ⑧ 조사 과정에서의 커밍아웃의 불가피성 설명
- ⑨ 주변의 지원받을 수 있는 인맥 파악 및 연락처 확보

3) 피해자의 피해 신고의 의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의지를 확인하면 사건을 접수한다.

2. 사건 지원

1)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행법 검토 및 정보 제공

- ① 경찰에 신고, 조사 사건 진행 과정에 상담소가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함.
- ② 성인일 경우, 가족에게 알리지 말 것을 조사 기관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면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 거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 조사 기관 관계자들이 요구 불이행 시, 조사 과정상의 불이익에 관해서는 <청문감사실>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음)
- ③ 아우팅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
- ④ 아우팅 협박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
- ⑤ 거짓말을 하여 카드 대금을 갚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
- ⑥ 아우팅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
- ⑦ 신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면 <보복범죄>에 해당
- ⑧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형법상 범죄 성립

2) 커밍아웃 및 아우팅에 관한 대응 논의·당부

- ① 아우팅 당할 경우, i) ‘사실 무근’으로 일축 ii) 커밍아웃을 하고,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 iii) 지원 불가능할 경우, 정면충돌 피하고 가족과의 분리 고려
- ②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아우팅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커밍아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인지 시켜야 함.
- ③ 커밍아웃 이후의 두 가지 상황 즉, i) 가족 지원 가능 상황 ii) 가족 지원 불가능 상황에 따르는 대처 방안 논의·확보

3) 애인에 대한 행동 논의-당부

- ① 마음을 굳게 먹고 애인과 헤어질 것인지 결정
- ② 우유부단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요청 (괴롭힘이 지속될 수 있음을 상기)

- ③ 아우팅 협박에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 가지라고 요청
- ④ 협박이 계속되는 경우 신고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길 요청

4) 증거 자료 수집 당부

- ① 전화 통화 내역,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이메일 등 가해자의 가해 내용 드러나는 증거들 확보
- ② 폭행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확보해 두어야 함.
- ③ 모든 협박과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일시 기록 및 가해 내용에 관한 기록 필요.

5) 진술서 작성

6) 신고 과정 및 고소장 제출 과정 지원

- ① 작성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 동행
- ②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③ 조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직접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도록 함.

7) 조사 기관에 아우팅 관련 주의 촉구 및 대질신문 과정 등에서 동행 지원

- ① 아우팅 관련 정보 수사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
- ② 피해자 조사 시 동행 지원
- ③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신문 과정 동행 지원

8) 수사 기관에 사건 접수시킨 후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확인,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9) 지원 종료

3. 후속 조치

- ①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 ②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상담 지원
- ③ 사건 지원 결과 내부 평가

4. 한계 및 과제

아우팅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하는 입법과, 스토킹, 전애인의 폭력, 협박 등에 대한 엄한 처벌 및 접근금지 제도 등이 없음. [끝]

<13강> 주제별 상담 9: 레즈비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강의

장서연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들어가기 전 질문

- “레즈비언들에게 필요한 상담은 뭘까?”, “그렇다면 레즈비언들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은?”,
- “상담소에 상담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의 어려움

- 노출을 꺼리는 내담자, 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의 한계,
- 책임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상담

첫 상담의 중요성

- 상담일지 기록의 중요성(사실관계정리의 중요성- 법적 대응의 전제),
- 신속한 사후 조치(내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제공과 지원)

I.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당하였다면

1. 아웃팅, 아웃팅 매개 범죄, 혐오범죄

1) 아웃팅과 범죄 사례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동거녀가 동성애를 이유로 변심하자 직장 등에 대자보를 붙여 동성애 사실을 폭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5.부산 해운대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해오던 이모(29.여.회사원)씨가 직장 여성동료와의 동성애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의 직장 정문 등에 ‘이씨는 같은 여자끼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다’는 등의 대자보를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상습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2004년 4월 28일, ‘동성애 이유 변심 동거녀 상습 협박’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전 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반임을 알리겠다(아웃팅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현행법상 협박죄(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당신의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반임을 아웃팅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²³⁾

또한 누군가가 당신이 이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당신의 핸드폰으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아웃팅을 수단으로 한 범죄는 협박, 강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웃팅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되며, 아웃팅을 수단으로 각서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될 수 있고,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로 가중처벌 된다.

(구체적인 처벌이 벌금이나, 구속이나는 개별적인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

3) 혐오범죄

사례1. 이유 없는 폭행과 협박²⁴⁾

남산 인근에서 32세의 남성 C씨가 정체 모를 사람 2명에 의해 각목으로 구타당한 사건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노숙자로 밝히고, "우리들이 호모들을 잡아서 경찰에게 많이 넘겼다. 집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 동성연애 계속 할거냐 라는 폭언으로 내담자를 협박했음.

-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동성애자인권연대, 2004.

사례2. 종교를 빌미로 한 호모포비아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이하 <변날>)>는 국내 대학의 성적소수자 모임 중 유일한 레즈비언 독자 운동모임이다. 미션 스쿨인 이화여대에서 어렵게 자치 단위로써의 위상을 획득한 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학내의 보수 기독교 동아리로 추측되는 세력이 <변날>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변날>이 배포하는 자료집을 몽땅 가져다가 폐기처분하며 <변날>이 걸어둔 플래카드를 가위질해 놓고 <변날> 방에 성유(聖油)를 뿌려놓고 달아난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변날>이 개최하는 학내 레즈비언 문화제에 대해 '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학내 모임을 결성해 호모포비아적인 활동을 펼친다.

- <변날> 활동가들의 경험담

혐오범죄도 현행법상의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범죄에 대한 불법성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²⁵⁾

23)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합의서(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 작성시 신중해야 한다.

24) 이하 모든 사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국가인권위원회)” 참조.

2. 동성간 성폭력의 문제

1) 사례

① 아는 사람에 의한, 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여성 간 성폭력

B씨는 우연히 한 방에 얼마 친구분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B씨는 그 아주머니로부터 생리는 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계속 성적인 질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그냥 얼마 친구로서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질문들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브래지어를 하나고 물어보면서 B씨의 가슴을 만졌다. 싫은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슴까지 만지자 결국 B씨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정말 불쾌했고, 앞으로도 그 아주머니를 만날 일이 또 있을 텐데 다시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

- 반성폭력네트워크, 「성폭력 이제 그만 2」 사례

② 친목모임에서의 레즈비언-레즈비언 간 성폭력

가입한 친목모임에서 연 정기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는 만취한 한 여성으로부터 심한 스킨십을 당했다. 처음에는 다리를 손으로 감싸는 가 싶더니 나중에는 다리 사이에까지 손을 집어넣고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수차례 “불쾌하니 멈추라”고 경고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말했으나 만취한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주변인들 중에는 이를 보고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

- 반성폭력네트워크(kirikiri.org/network) 공개상담게시판 사례

③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레즈비언-레즈비언 간 성폭력

서울지검 형사5부 황인규 검사는 13일 동성연애 관계를 청산하려는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해온 박현순씨(39·여·서울 관악구 신림5동)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89년 9월 여성전용 헬스클럽에서 만나 동성연애를 해온 공모씨(32)가 지난해부터 관계를 끊으려하자 같은해 6월 공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과도로 위협하고 『남편에게 동성연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황검사는 『죄질은 강간 또는 특수강간에 가까우나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991년 09월 14일 (사회) 가십 22면 판 292자

2) 동성간 성폭력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법²⁶⁾ 해석상 강간의 개념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강간의 개념이 생식기관 중심으로, 이성애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간 성폭력은 그

25) 미국은 3개 주만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두고 있다.

26)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범죄의 악랄함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결코 ‘강간죄’의 죄목이 될 수 없고, ‘강제추행죄’²⁷⁾로만 처벌이 가능하다.²⁸⁾

3.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 절차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기소 - 법원 - 판결”이라는 전형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사 담당자들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으로 관계자에 대한 모욕, 편견에 기초한 수사, 아웃팅 등 인권 침해가 절차 내에서 반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소수자들이 공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고소(고발)장 작성 및 수사시 상담활동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소, 고발 과정에서 상담활동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적 수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 엄격한 처벌 기타 수사 진행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고소(고발)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관련자의 성정체성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도록 소환방법, 조사방법 등에서 유의할 것,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성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금지할 것, 동성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 보호 규정

27)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 범행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28) **스웨덴**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동성간의 성교뿐 아니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강간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남성도 여성 가해자에 의한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성폭력 대상을 확장시켰다.

호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진행된 각 사법관할지역의 형법개정 경향을 볼 때, ①강간(rape)이라는 용어를 몇몇 지역에서 성폭행(sexual assault)로 대체하고 ②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성폭행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물건이나 음경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 의한 질, 항문, 입의 관통이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정의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조사관의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문제제기할 수도 있다. 청문감사실은 일종의 경찰 내부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민원인들의 진정을 접수하여 내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일정한 내부 징계 조치나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²⁹⁾

3) 형사배상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4. 가정폭력의 문제

- 혈연관계에서의 가정폭력, 파트너관계에서의 가정폭력문제

29) 만약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비밀보장을 위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 경찰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서울신문, 2007.8.18.

1) 사례

① 딸의 애인 살해

김모씨 부부는 최근 “우리 딸이 동성애자라며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최모씨(60·여)를 상대로 1억1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김씨 부부의 딸(당시 48세)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집에 찾아와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딸에게서 떨어져라”며 효자손 등으로 1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02년 03월 11일 (사회) 가십 31면 05판 275자

② 혈연가족에 의한 정신과 치료 강요

피해자는 레즈비언임을 혈연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대학교 남자 동기에 의해 그 사실은 혈연 가족에게 알려 짐.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를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성애자로 만들기” 위한 “치료”에 돌입.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정서적 고통을 당함.

- 성적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사례수집 (내부자료)

③ 레즈비언 파트너 간 폭력

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자신과 사귀던 동성 애인이 변심한 데 격분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박아무개(23·여·전북 전주)씨와 이에 맞서 싸운 최아무개(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3일 아침 6시30분께 최씨 집에 찾아간 박씨는 최씨가 다른 여자와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에 흥분해 화분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최씨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 한겨레, 1996년 08월 15일 ‘레즈비언들의 사랑 싸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을 규율하고 있는데, 위 특례법은 ‘가족구성권’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 2호).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이와 같은 규정은 가정의 범위를 이성 배우자와 부모자녀 관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에 의한 폭력은 법에 의한 가정폭력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성적소수자 파트너의 경우 사실 혼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의미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으로도 당신이 이반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동거하는 형제자매부터 당하는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응급할 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 ①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8.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8.3>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29조(임시조치)

-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2.21, 2007.8.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II. 레즈비언으로서 차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1. 사례

사례1. 연세대 퀴어영화제 장소대여 거부/ 사례2.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프로그램 강의실 사용 거부
사례3. 국회, 홍석천씨 국정감사장 입장 거부/ 사례4.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의 강좌신청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아래참조)/ 사례5. 성적소수자 관련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차단/ 사례6. 포털 사이트, 동성에 관련 용어 '금치아'로 선정/ 사례7. 정보통신회사, 동성애자 채팅서비스 개설요청 거절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신청 및 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2) 인권상담/진정접수

인권상담은 인권 피해자들이 상담원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다. 진정접수는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원과 대면하며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 접수를 해야 한다.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진정/민원접수)

<인권위결정례>

1. 2005.02.21.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1] 진정인이 속한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센터는 여성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추구하고,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므로, 설립목적 및 업무내용상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한 여성단체에 해당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동아리 등록대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진정인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용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 여성센터의 장에게 향후 교육수강에 있

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2. 2003.03.31. 성적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등 침해

【결정요지】

[1] 동성애는 정신의학상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신적 장애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발행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가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고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2]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행동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바, 이와 같은 성적행동에는 동성애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곧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심의기준(제7조 관련)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3. 2004.08.03. 【헌혈문진시 성적지향에 의한 평등권침해】

[1]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중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문항은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여 HIV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도 헌혈에서 배제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잘못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III. 파트너 관계에서

1.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차별 사례

사례 1.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받는 경제적 차별

우리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 200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까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결혼 직후 2000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A씨가 직장에서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상속이 파트너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공단 측은 법적으로는 A씨가 솔로이므로 사망 후 연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에선 매달 3만원씩 배우자수당이 다른 이성애자 부부들은 수당을 받아 가는데 비해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사회적 차별이다.

- 여기동,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발표집, 2004

사례 2 혼인신고 불가의 법적 차별

저희는 지난 3월 7일 동성애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카페에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선 OO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며 찢찢매더군요. 동사무소는 여섯 시간이나 검토한 끝에 “신랑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국어사전에 나온 뜻 그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지 ‘허가’가 아니므로, 저희는 나라에 ‘결혼했음’을 알린 ‘정식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권단체, 동성애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동성혼인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 세계일보, 2004년5월20일,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랑도 결혼도堂堂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례 3. 사실혼 관계 인정을 못 받는 차별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그들의 이성애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은 것이다.

- 일다, 2004년8월2일자,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사례 4. 위급시 의료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차별

20대 중반의 레즈비언 커플인 A씨는 늦은 밤에 파트너 B씨가 갑작스런 출혈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지금 올 수 없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이었던 탓에 밤중에 100만원을 구할 수 없었던 A 씨는 하는 수없이 멀리 사는 B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3년 12월

사례 5. 비자 발급 및 해외 거주자로서의 차별

5년제 동성 연인과 함께 동거중인 레즈비언 P씨(30대 초반)는 2003년에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파트너 M씨는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의 직장까지 정리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이성애자 부부와는 달리 법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은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5년 2월

사례 6. 경조사 휴가신청을 할 수 없는 차별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함께 내려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장지까지 따라 가고 싶지만, 회사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성애자라면 사실혼 관계에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녀를 친구라 고밖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 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2004년 8월

2. 재산문제에 대하여

(1) 상속과 유증

1) 상속의 문제

동성 파트너는 현행 민법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 사망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³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의 상속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던 경우, 또는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상속의 의사표시를 유언으로 해두거나,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2) 유언 및 유증의 방법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민법 제1060조)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망 전까진 언제든지 유언을

30)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철회할 수 있다.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만드는 방법(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³¹⁾

(2)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직 국내법원에서 동성간의 '사실혼'을 인정한 예는 없다(위 차별사례3. 참조).

'사실혼'은 법률상 용어³²⁾로서, 남녀 간의 사실혼관계에서도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국가유공자등에 우대지원에관한법률³³⁾ 등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2000도4942),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3)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아직 국내에서 동성간 파트너관계를 '혼인신고'할 수 있다는 법적규정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게이 커플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거부하였던 사례가 있었다(위 차별사례3. 참조). 하지만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동성간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명백하지 않다. 다만, 민법에서 혼인의 효력부분에서 '夫婦'라는 용어사용, 헌법상 '양성의 평등' 규정이 혼인은 남녀 이성간의 관계를 전제로

31)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작성한 연도와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하면 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타인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타자기로 쓴 것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름은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되고, 날인은 인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된다.

32)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000도4942)

33) **국가유공자등에우대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27, 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별첨자료.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참조).

3. 자녀 입양문제

(1) 민법상의 일반적인 입양요건에 의하면 성년자(양친자가 될 사람)는 누구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1) 민법상의 일반적인 입양요건과 입양절차

우선,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양친이 될 사람은 성년이어야 하고, 양자의 나이 자체는 제한이 없으나 양친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동갑이거나 손아래 항렬이어야 하며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여서는 안 된다.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입양의 승낙을 하게 된다. 성년자라 하더라도 양자가 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법정혈족관계 발생

입양을 하게 되면 양자는 민법 제772조에 의해 양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어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 상속관계가 생긴다.

양친자 관계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혈족관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친자간은 물론이고, 양친의 직계혈족, 양친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과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파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된다.

3) 양친자관계의 해소 - 파양

입양을 파기 하는 것을 파양이라 하는데 입양 당사자가 합의 하에 파양하는 경우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파양하는 경우가 있다.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요건과 입양절차

이 법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촉진 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요보호아동' 이라 함은 제4조에 의하면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거나 가출을 하여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떠나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자녀로서 보호시설 등에 보호가 의뢰된 아동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되려면 제5조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³⁴⁾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이 법에 따른 입양 시 입양아동의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제6조에 의해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동이 15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입양신고는 별첨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참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친자의 자격 중 혼인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서 형식상으로 독신자에 의한 입양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성부부의 입양이 가능할 지는 명백하지 않다. 최근 성전환자 하리수씨의 입양문제가 이슈가 된 것처럼 법적으로 입양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성전환자의 입양은 전례가 없다는 점, 입양되는 아이의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입양전문기관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⁵⁾

4. 전 세계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 현황³⁶⁾

지역범위	시민결합 ³⁷⁾	동성결혼 이전 시민결합인정	동성결혼
------	---------------------	-------------------	------

3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6.12.11]

<개정전>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3. 혼인중일 것

35) **동성커플간의 입양권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 괌, 안도라, 벨기에,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지역,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시민결합 속 파트너의 아이 또는 입양아를 입양할 수 있는 "stepchild-adoption"을 인정하고 있다.

36)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파트너십 관련 해외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친구사이 대표 이종헌)

37)가정적 동반자 관계, 동반자 등록법, 시민 결합, 민간 결합 계약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전국	덴마크(1989) 노르웨이(1993) 스웨덴(1995) 그린란드(1996) 아이슬란드(1996) 프랑스(1999) 독일(2001) 포르투갈(2001) 핀란드(2002) 룩셈부르크(2004) 뉴질랜드(2005) 영국(2005) 안도라(2005) 체코공화국(2006) 슬로베니아(2006) 스위스(2007) 콜롬비아(2007) 비등록 동거 이스라엘(1994) 헝가리(1996) 크로아티아(2003) 오스트리아(2003)	네덜란드(1998)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벨기에 (2000)	네덜란드 (2001) 벨기에 (2003) 스페인 (2005) 캐나다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2006) 타국 동성 결혼 인정국 이스라엘 (2006) 아루바 (2007) 네덜란드령 앤티리스 제도 (2007)
일부	미국(1997) 아르헨티나(2003) 호주(2004) 브라질(2004) 이탈리아(2004) 멕시코(2006)	스페인(17개 지역 중 12지역) (1998) 캐나다 (QC, NS and MB) (2001)	매사추세츠주 (2004)
논쟁 중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 리카,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폴란드, 푸에르토 리코, 미국, 우루과이 (우순)		

<표 1>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 지역적 현황 ('same sax marriage',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

5. 기타 문제되는 것들

(1)인공수정: 최근 허수경씨의 인공수정이 이슈화되었다. 국내에는 아직 인공수정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의학계에서 윤리지침으로 법률상 혼인부부(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인공수정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관련기사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인공수정가족법 제정토론회'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는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와 관련한 법률이 전무한 상태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입적 논란과 다툼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해석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의 인권문제에도 소홀했었다.

이은정 경북대 법대 교수는 “인공수정과 관련한 확실한 법은 없지만 민법을 통해 친생자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 2000년 전에는 남편의 동의에 의한 인공수정일 경우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법적지위가 같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받을 경우 다툼 및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법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법제정시 불임부부에 한정하는 법을 만들고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금지만 해서될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발표한 엄동섭 서강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다양한 입법사례와 달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의해 대리모의 일부유형만 금지될 뿐,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응기 함춘 산부인과 원장은 “흔히 말하는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에 밀어 넣는 것이며 체외수정은 시험관아이를 뜻하지만 정부에서 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분리해 통합적으로 ‘인공수태’란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원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의사윤리지침’ 등을 제정해 공포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등으로 의사들의 기본적인 윤리를 강조해 왔다”며 정부차원에서 보장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 [쿠키뉴스 2006-03-15]

(2) 동성혼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동성혼을 하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에서 인정된 동성혼의 국내에서의 효력은 국제사법상의 문제에 속한다. 국제사법상 혼인의 효력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의 동성혼인 경우 국내에서도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국제사법상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국내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사법)’고 하는 ‘공서양속규장’에 의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³⁸⁾

(3) 기타 법률상식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은 없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

2) 체불임금 해결방법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여 발급받아 소송자료에 활용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38)최근 귀화한 파키스탄이 사촌과 결혼했다. 그가 나고 자란 파키스탄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건 ‘평범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이다. 그러나 그 혼인은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부부는 생이별(배우자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7-07-30 한겨레 참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이를 대항요건이라 함) 그 다음날로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 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 역	서 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제외)	기타 지역
금 액	2억 4천만원 이하	1억 9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1억 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액과 계산사례]

- 환산보증금: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월세에 100을 곱하여 계산함
- 계산 사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의 월세라면 전세환산금액은 1억5천만원[3천 + (120만×100)]이다. 서울이라면 보호대상이지만 지방은 보호를 넘어서는 금액이 된다. 이 때 보증금 3천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요령껏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방법이란 계약서상에 보증금 + 월세 + 관리비 식으로 표기하여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 그리고 관리비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다면 환산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 되어 지방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별첨자료. <민법>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826조 (夫婦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별첨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시행일 2008.1.1]]

제62조 (입양의 신고) ①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

제7절 혼인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4강> 유형별 상담: 전화·메일·게시판 등 온라인 상담의 기법

이정연 (원영)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본 강의안은 <2008년 1기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 중 「유형별 상담: 메일, 게시판 등 온라인 상담을 중심으로 -단회기 전화사이버 상담의 기법-(강사: 김김찬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난 일 년 간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고민들을 반영하여 다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기본 골자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인용 처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 편집자 주.

0. 들어가며

상담의 방법에는 △내방 및 방문을 포함하는 대면상담, △전화 상담, △이메일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이버 상담 등이 있다.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묶어 온라인 상담이라 칭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상담은 다회기 대면 상담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회기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의 비중도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담의 특징으로는 단회기가 많고, 한국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며, 내담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사이버 상담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시·공간 제약이 적어 접근이 자유롭다는 점, 자기 공개 정도를 내담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히 청소년 상담의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데, 레즈비언의 경우에게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사이버 상담은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보면, 총 460건의 상담 중 게시판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64.13%(295/460)로 가장 높고, 이메일 상담이 9.78%(45/460)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전화상담은 16.52%(76/460)이고, 내방 및 기타상담 9.57%(44/460)로 나타난다. 사이버 상담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는 내담자가 자신을 상담원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동성애 혐오와 같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내담자는 상담원에게조차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린다는 것.

레즈비언 상담이 전화 및 사이버 상담에 편중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의 기법을 익히는 것은 레즈비언 상담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은 전통적 대면 상담에 비해 연구된 바가 적어 기법을 공부할 기회가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면 상담보다 수월하거나 쉽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이 힘들고 내담자 중심으로 주도권이 형성되는 등 여러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1. 전화, 사이버 상담의 특징

1.1. 단회기

전화,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와 다회기를 구조화하고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사이버 상담은 실시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담자에게 장기 상담을 제안해도 내담자가 성실하게 다음 회기에 참여할지 알 수 없다.

전화나 사이버 상담은 대면 상담에 비해 이용이 편리한 만큼 내담자들의 태도가 즉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리라 기대하고 장기상담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로 후속상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 단회기 상담으로 예상하고 내담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해 빠트림 없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2. 편의성

대면 상담은 정해진 공간에서 약속된 시간에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야 한다. 방문 상담도 있지만 대개 내방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약속된 시간에 상담소 공간으로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전화, 사이버 상담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편리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화 상담 시간과 사이버 상담 답변 시일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24시간 내내 hotline으로 운영되는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해두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사이버 상담은 내담 이메일이나 내담 게시판 글에 대해 몇 시간 내에 답변이 가능한지를 명시해야 한다. 죄책감이 심하거나 자존감이 하락한 상태인 내담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 답변이 즉각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상황으로 조바심 낼 수도 있다. 미리 답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사이버 상담 중 게시판 상담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따라서 답변이 제때 달리지 않는 것은 상담소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원에게도 시,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에 자칫 상담원이 나태해지기도 쉬운데, 답변 시일을 정하는 것은 상담원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연중무휴로 24시간 내내 사이버 상담을 운영하고, 내담에 대해 평상시에는 24시간 내, 공휴일에는 48시간 내에 답변을 한다.

1.3. 익명성

‘들어가며’에서 언급했듯이,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레즈비언의 상담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요인이다.

특히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탐색기에 있는 내담자들은 아직 레즈비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해 자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이 때 자신의 상담 내용이 ‘부도덕적’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 사이버 상담에의 접근성이 높다. 즉 사회적으로 편견을 겪는 상담 내용이나 쉽게 개방할 수 없는 성적인 부분이 전화, 사이버 상담에서는 훨씬 개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한편 상담자의 입장에서 익명성은 상담에 훨씬 집중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전화,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외모,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단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내담자가 요청한 상담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성을 인해 발생하는 단점들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즉흥적 태도와 거짓 상담, 자신의 불만이나 성적인 욕구의 배설구로 상담을 이용하는 것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자가 익명적인 존재로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와 rapport 형성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1.4. 내담자 주도성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위계적 권력 형성의 문제는, 효과적인 상담에 있어서 언제나 걸림돌로 고려되어 왔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공감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주의 상담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사이버 상담과 전화 상담의 경우에도 여전히 상담자의 권력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대면 상담에 비해 내담자 주도성이 훨씬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 시작은 물론 상담의 종료도 대개 내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화를 걸었다가 상담자의 몇 마디만 듣다가 바로 끊어버리는 경우나, 사이버 상담에서 상담자가 후속 상담을 권했으나 내담자가 아예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내담자 주도성은 기존 상담에 비해 아주 큰 장점일 수 있다. 사이버상담에서 내담자들의 상담동기가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담동기가 오히려 낮다는 반론도 크다.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일상과 구별되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다기보다는 인터넷 상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내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대답을 듣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상

답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상담을 종료해 버리거나, 사이버 상담에서는 아예 답변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장기 상담으로의 구조화는 물론, 단회기 상담의 구조화조차 실패하게 되기도 한다. 전화 상담의 단계에서 미처 탐색의 과정을 끝내기도 전에 내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가 원하는 대답만을 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지적인 글쓰기와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한 후 직면과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자신을 믿고 격려한다는 느낌을 잃지 않게 하면서 주도권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5. 당면한 문제 해결 중심

전화, 사이버 상담은 대개 단회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개입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단회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과제를 내주거나 내담자와 함께 모색했던 해결책이 실제로 적절하게 발휘되고 있는지 후속 피드백을 주고받는 등의 처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에 대한 깊은 되돌아봄을 수행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는 실상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인성과 가치, 삶에 대한 통찰을 얻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다. 실제 후속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만약 내담자와 다회기를 약속하고 구조화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일 거라는 생각으로 매 상담에 응해야 한다.

즉 매회기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들에서 변화 가능한 지점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용하다. 과거 사건들에 대해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것은 내담자에게 오히려 자신이 낙인 찍혔다거나 통제권을 완전히 잃은 듯 상황에 대해 압도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트라우마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거나 내담자의 자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전화, 사이버 상담만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사이버 상담은 위기 상황이나 응급 상담에 대한 대처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겪었던 사례로, 상담을 진행해왔던 내담자가 자살을 시도하겠다는 식의 내용을 담아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상담자가 답변을 미처 달기도 전에 그 글을 지워 버렸던 일이 있다. 그리고 며칠 후 내담자의 친구로부터 내담자가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연락이 게시판을 통해 왔고, 상담자는 매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상담자는 자살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에 대해 정신의학적인 평가를 제안해야 하며, 과거 사건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경우라면 장기 대면 상담을 권해야 한다. 한국 사회 신경정신과가 아직 동성애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제안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하다. 하지만, 내담자가 극한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이버 상담

만을 이어나가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1.6. 사이버 상담 - 글쓰기와 읽기의 치유 효과

글쓰기의 치료 효과는 계속해서 발견 중에 있다. ‘글쓰기치료(Scriptotherapy)’라는 상담 전략은, 글을 쓰면서 내담자의 긴장이 완화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내담자들 중에서는 과거 사건들에 대한 정리와 내면의 혼란과 욕구에 대한 직면으로 A4용지로 3-4장에 달하는 내용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글로 정리해 털어놓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사이버 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다. 몇 개월 만에 상담소를 다시 찾은 내담자들 중에는 그동안 상담자가 주었던 답변을 반복해서 읽으며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있다. 상담자 입장에서라도 상담 내용이 기록되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상담자들과 슈퍼비전을 하는 데 용이한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기’의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른 믿을 만한 지지그룹을 찾고 경험과 고민을 털어놓으라는 권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화, 사이버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정기적으로 대면하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이고 익명적 존재로 남아 있다. 때문에 내담자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위안과 지지가 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존재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레즈비언의 경우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자긍심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사이버 상담의 기법

2.1. 단계와 기법

1) 환영하기

환영을 나타내는 언어구사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의 경우, 내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킨 사례가 있었다.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온 것인데, 안녕을 묻는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사이버상담은 내담자와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 교감할 수 없음으로, 언어구사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문제초점의 명료화

문제초점을 명료화할 때, 내담자의 호소와 증상을 열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의 성격,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 문제의 극복을 위해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보다 깊이 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3) 공감과 격려를 통한 라포 형성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잘 형성된 라포는 이후 정보제공과 직면을 내담자가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내담자의 감정을 짚고 적절한 공감 반응을 해야 하지만, 이때 내담자의 감정을 너무 부정적인 언어들로만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공감반응은, 상담자가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목표 설정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조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저항이 큰 내담자는 이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내담자와의 라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해봅시다”라는 표현보다 “~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식의 권유가 더 좋을 수 있다.

5) 정보제공/직면

레즈비언 상담의 내담자들은 대개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는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학습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우울증, 가부장적·유교적 가족문화, 성차별적 노동시장 등 여성의 생애 과제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쉽고 지지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답변을 하며 주의할 점은 내담자에게 직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생각할 때에도, 항상 **지지적인 방식으로 직면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다그치거나 지나치게 단호한 말투는 내담자로부터 혼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직면에도 효과가 없다. 상담원이 비지지적인 방식으로 직면을 유도하는 경우는 대개, 문제가 내담자의 내적 역동으로 인해 지속된다고 생각할 때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는 내적 역동뿐 아니라 외적인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사이버 상담에서는 **과거에의 지나친 집중은 좋지 않다**. 가령 내담글에서 내담자가 과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 엿보일 때 상담자가 그 점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하려 든다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간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상황을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다. 즉 문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느끼게 되어, 현재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단회기로 끝낼 수 있는 상담에서 지나치게 과거에 집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때는 구조화된 장기상담을 권하는 편이 좋다.

6) 결론

상담의 종결 시에는 간단하게 상담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것이 좋다. 이때 부정적인 언어구사보다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음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7) 끝인사

“행복하세요.”나 “건강하세요.”라는 끝인사가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언어표현을 연습해두면 좋다. 그리고 후속상담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2.2. 사이버 상담 사례

내담 예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각색)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상담 수업 과정 중 성(性)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특히 성폭력이 연상되는 내용이 나오면 오랫동안 그 단어에 시달립니다. 음... 아마 전 애인과의 갈등이 아직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애인은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사귀는 내내 애인을 지켜주지 못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늘 애인을 원망했지요. 사랑 받고 싶어서 성적인 자극을 은근히 내비치는 모습이 너무 싫었고 불쾌했습니다. 지금은 그 애인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사람만 만나도 기분이 나쁩니다.
	상담 수업 시간에 성폭력 관련 주제가 나오면 상담자의 자세보다는 내담자로서의 감정과 고통에 휩쓸립니다. 여러 감정들이 마구 뒤섞여 나와요. 가장 큰 문제는, 남자들을 자극하는 외모를 지닌 여자들을 보면 거부감이 들고, 겉으로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여성주의가 한계에 부딪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상담 예	
단계	실례
환영하기	님, 상담소입니다. 상담소에 참 잘 오셨어요.
문제 초점의 명료화	전 애인 분이 성폭력 피해자였는데님은 그 분과 사귀면서 늘 그 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원망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 기분이 나쁘셨다고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도 그 부분이 나오면 매우 힘들다고 적어 주셨네요. 상담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내담자에게 감정이입과 전이가 심하게 되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요.
공감과 격려를 통한 라포 형성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자는 상담자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상담 장면 중에 긴장을 놓지 않기를 훈련 받는데요. 하지만 상담자도 사람이기에 상담으로 인한 마음의 부딪침을 늘상 겪기 마련입니다. 상담원도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과 상담원 개인의 경험이 중첩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도 때때로 굴 넘어 겪고 계신 지금의 어려움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님은 전 애인 분이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어 그 일이님께도 마음의 상

	처로 남아 여전히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지켜주지 못 했다”라는 죄책감이 강간 피해자에 대한 미움으로 전이되었다고 적어 주셨는데요.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방어 기제가 펼쳐지는 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설정	폭력의 후유증은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인도 함께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까 하는 건 사람들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상담원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님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거치셨으면 하고요. 또한 상담원은 지금 이 상담을 통해 님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돌아볼 수 있도록 힘이 되기를 바라요.
정보제공 / 직면	상담원의 짐작이 님이 겪고 있는 힘든 마음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피해 경험 이후에 함께 견디어야 하는 시간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생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상담원은 그것이 ‘이기적’이라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피해 사실을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통 속에서 갇힌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시도들을 해 보지만 그조차도 마음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때면 반대로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가지를 뺏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위협과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피해사실을 잊고 숨겨야 더 괜찮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생각을 우리는 더 쉽게 접하게 되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님께 다른 생각을 하는 일이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성주의를 접하면서도 사랑받고 싶어 성적인 자극을 은연중 표출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싫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님, 우리가 공기처럼 여겨왔던 많은 편견들을 깨고자 하는 여성주의를 받아들이며 두 가지 마음이 한 번에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통처럼 겪는 통과의례일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경험에 귀 기울이는 일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과정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원은 님의 이러한 마음을 함께 다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만 상담원은 님께 님이 전 애인 분을 ‘지켜주지 못 했다’는 생각으로 고통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님은 그저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을 겪게 되신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 한 경험이 님을 아프게 한 것이고요.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님의 마음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상담 공부를 할 때 마다 강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힘들어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님, 상담원은 님께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이 나아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전에 겪었던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죄책감과 원망스러움 미움까지 모두

	다 짊어지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씩 나아질 수 있게 자신을 조금 더 다독여 주실 수 있다면 님 자신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짐들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전에 구스타프 융이라는 상담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10년 동안 상담을 진행한 한 내담자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이 엉켜 있는지도 몰랐던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나 내담자는 몇 년에 걸쳐서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가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10년의 상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원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님께도 빨리 나아져야 상담자의 마음으로 내담자와 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할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을 마음을 낮게 하는 일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성주의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상담자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지하는 것, 내담자를 일방적으로 케어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주입하는 권력 관계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터놓고 내담자의 아픈 마음을 다루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작업은 상담자가 무조건적으로 내담자의 편을 들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되도록 동등하게 만들어 마음속 엉킨 이야기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위함일 것입니다.
결론	상담원은 결국 상담이란 님과 내담자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님도 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상담과 다른 활동, 그리고 상처를 천천히 다독이면서 이후에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인사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면접 상담을 원하시면 02-718-3542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주시면 돼요. 상담원과 시간을 잡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상담 메일이나 게시판에 이용해 주시고요. 이 메일을 읽고 님이 조금 더 위로 받고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3. 전화 상담의 기법

3.1. 내담자 스스로 탐색하도록 돕기

전화 상담은 몸짓, 눈빛 등의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통해 교감을 이루기 어렵고 단회기성이 강하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한 통화의 전화에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부담들은 상담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화 상담에 있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내담자의 결정을 대신해주려는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동의나 부정을 구하는 질문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로, 상담자는 오히려 대답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내담자가 “애인과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계약결혼 제의를 승낙할까요?” 등의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에 비해, 전화 상담에서 내담자의 질문들은 충분히 정리되거나 숙고되지 않은 것들이다. 내담자의 질문들은 즉흥적인 것이 많고, 사실은 현재 “애인과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애인에게 화가 나있다”, “계약결혼이라고 하고 싶을 만큼,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지쳤다”는 감정이 위와 같은 질문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화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 당면한 문제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대신, “많이 화가 나셨군요.”, “저라도 답답할 것 같아요.”, “외로우신 것 같아요.” 등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게 좋다.

3.2.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전화 상담은 사이버 상담에 비해 상담원이 주도권을 갖고 상담을 진행하기 쉽다. 그런데 내담자와 직접 마주한 것이 아니고 눈빛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인 소통이 적다 보니, 상담원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과도한 주도권만 쥐게 될 수 있다.

사이버 상담에서 답변글은 검토 후 올릴 수 있지만, 전화 상담에서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상담자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자가 권위를 내세우려는 대표적인 예로는, **내담자를 무조건 안심시키려 들거나 반대로 내담자를 겁주거나 비난**하는 행동이 있다. 내담자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등으로 대답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내담자는 자신의 고민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애인이 용서를 구했어도 용서가 안 되고 무척 힘이 드신데, 바꾸어 보면 사실은 애인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라는 식으로 내담자의 감정이나 힘든 상황을 좋은 것인 양 안심시키려는 태도로 삼가야 한다.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토로할 때는 그러한 감정적인 발언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내담자에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애인은 떠날 거예요.”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만 심해질 뿐입니다.”라는 식으로 겁주는 것 역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내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또한 내담자의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그것은 ~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 문제를 갖고

계신 겁니다.”라는 식으로 정의내리고 설명하려 드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 이는 내담자의 구체적인 마음 상태를 짚는 것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상담자가 내담자를 단번에 파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3. 기타

내담자의 침묵에 당황해서, 이전까지의 이야기줄기와 다르게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정도의 침묵 뒤에는 “고민이 많이 되시나 봐요.,”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지요?” 등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상담원이 통화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있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부담을 느끼며 당황하는 바람에 사실 확인 위주의 질문만 던지게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아, 어제 그러셨대요?”, “그 사람은 근처에 사나요?” 등 무의미한 질문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방해한다.

그밖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라는 식의 상투적인 조언은 내담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식으로 추상적이고 가르치려 드는 말투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나가며

전화, 사이버 상담을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단회기 상담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생긴다. 반면 장기 상담을 귀찮아하거나 경시하는 태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단회기로도 깊고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번 노력해야 하며, 내담자에게 장기 상담을 권하고 후속 상담에 성실히 임하려는 태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들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특히 레즈비언 상담은 내담자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어떤 문제든 사회의 구조와 연결지어 보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 여성 문제, 동성애자 문제 등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 문헌

배동석, “전화상담의 기법과 실제”, 열쇠 따르릉 전화친구 상담 자료집, 1997.4.

이명화, “전화 상담의 실제”, 열쇠 따르릉 전화친구 상담 자료집, 1997.4.

임은미, 사이버 상담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위경선, “사이버상담”, 전북교육연수원, 2005.

주디스 워렐·파멜라 리머,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2004.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7 상담사례보고, 2007.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9 2기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
강의 자료집

발행일 2009년 1월 31일
펴낸곳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esbian Counselling Center in South Korea

대표전화 02) 703-3542

상담전화 02) 718-3542

팩스번호 02) 703-3543

대표메일 lsangdam@lsangdam.org

상담메일 lsangdam@hanmail.net

홈페이지 www.lsangdam.org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한국레즈비언상담소